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 아래로 ·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7월 1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10호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일선 사찰은 'Zero타임'

[사찰이 안전하지 않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실태

2016년 3월, 가톨릭 수원교구의 한 성당에서 운동을 하던 한 신부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 신부에게서는 쇼크와 함께 심정지 현상이 나타났다. 다행이 이 성당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돼 있었다. 옆에 있던 한 신도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쓰러진 신부를 응급처치해 구했다. 이후 가톨릭 수원교구는 6월까지 산하 75개 성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했다. 최근 자동심장충격기(AED · 제세동기)를 설치한 공공기관과 종교시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찰은 극소수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지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신도와 관광객들이 운집하는 템플스테이 사찰(종단 무관) 124곳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10곳만이 이를 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치된 사찰은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를 비롯해 제주 관음사, 단양 구인사, 양양 낙산사, 대구 동화사, 양산 통도사, 낙산 묘각사, 수원 용주사, 부산 홍법사 등이다. 나머지 사찰 114곳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존재 여부도 모르는 곳이 많아 심각한 상태다.

통계청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심정지 발생은 매년 3만 309건으로 2000명 당 1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고령화 등으로 이 수치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정지 발생 후 생존율이 4.9%에 불과하다. 심정지 환자의 생명이 달린 심정지 발생 초기 4분 이내, 이른바 골든타임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응급기기 미비가 주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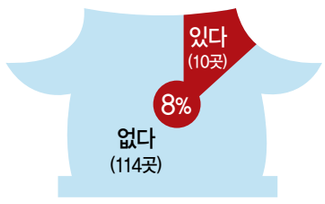
자동심장충격기는 이 골든타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로 환자에게 심장전기충격이 필요한지를 자동으로 분석해 구조자에게 심장전기충격을 하도록 알려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설치시 처벌 규정은 없어 자발적인 설치만 이뤄지고 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승준 간사(명지병원 응급의학과)는 "심장마비는 고령일 수록 발생할 확률이 늘어난다"며 "사찰의 경우 대중 대부분이 어르신들일 뿐만 아니라 병원 후송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응급장비 구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교계의 미미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상황에 비해 이웃종교계는 이미 대부분 설치를 완료했거나 본격적으로 보급을 시작하고 있다. 사랑의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국내 주요 대형교회는 조사 결과 각각 1대 이상씩 설치돼 있었다. 자동심장충격기 전문업체 라디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교회 42곳에 설치됐다. 가톨릭의 경우 앞서 수원교구 75곳을 시작으로 전국교구에 설치가 시작되고 있다.

AED, 심정지 생존 '필수 기기'
사찰 124곳 중 단 '10곳' 설치
존재 여부도 모르는 곳 태반

템플스테이 사찰 AED 설치 실태



고령일수록 심장마비 확률↑
이웃종교계, 본격적으로 설치
일선사찰 "비싼 가격에 주저"

사업단 · 조계종 필요성은 인지
프로젝트 무산, 교육만 진행
"정부 논의, 전체사찰 교육해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사찰들은 만일의 사고에 대한 대비와 함께 불자들의 안전의식도 함께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김득중 낙산사 종무실장은 "사찰 보안업체인 S1에서 제공해줬다"며 "요사채에 비치해놓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있다.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안전교육을 해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최종현 조계사 기획차장도 "1대를 설치했는데,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만큼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 안전을 사찰이 지켜준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8월 중 소방서와 합동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효과에도 사찰에 설치가 미미한 까닭은 무엇일까. 많은 사찰들이 비용문제와 함께 사찰을 대중시설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꼽았다.

강릉 보현사 주지 승원 스님은 "시와 소방서에 얘기했는데, 자부담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법회 등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정부나 종단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직접 구매하려 해봤지만 자동심장충격기가 200만원이 넘는 고가인 까닭에 영세한 사찰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템플스테이 사찰을 관리하는 불교문화사업단의 경우 2014년 기기 보급을 잠시 논의했지만 예산 문제로 응급구급함 보급에 그쳤다. 정창진 불교문화사업단 교육연구실 팀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논의를 했지만 예산문제가 컸다. 1억원을 투입해 먼저 안전매뉴얼과 구급함, 안전손수건 등을 보급했다"고 소개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현재 동국대 응급의학과와 함께 연 1회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 사회복지재단이 2012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과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국민안전처로 부처가 변경되며 프로젝트가 흐지부지됐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당시 심정지환자와 외상환자 소생율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종교계와 시민단체, 공공기관을 연결한 생명네트워크 구축이 기획됐지만 현재까지 불교계에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최대해 동국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등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어 정부와의 접촉이 중요하다. 개별사찰 접근이 힘들다면 종단 차원에서 협의해볼만 하다"며 "교육에 대한 관심도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1년에 1회 이상, 합동으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 스님, 종무소 직원의 안전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다도 즐기며 100세까지 힐링합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 1호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문을 열었다.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이하 100세 힐링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신체 · 정서 힐링 프로그램이다. 8월 10일 개최된 개소식서 어르신들이 다도 프로그램 시연회를 선보였다. 박아름 기자

"광복 71주년 코앞… 한반도 현실은 암울"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10곳, 8월 8일 남북평화 염원 기자 회견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10곳이 광복절을 7일 앞두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입장문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대한불교청년회 · 바른불교재가모임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광복71주년 8.15준비 불교단체 연석회의(이하 8.15불교단체연석회의)는 8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불교계 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8.15불교단체연석회의는 "온 겨레가 감격스럽게 맞이해야할 광복 7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오늘의 현실은 암울하고 고통스럽다"며 "남북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란 오명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지 못한 채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단절과 봉쇄,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만으로는 남북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양국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남북갈등의 극대화 문제를 꼬집으며 "주변국들이 '사드배치 기지는 타격대상'이라 공언하는 상황에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됐다"며 "사드배치 결정은 안보와 동맹 논리만을 앞세우며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내몬 것"이라 날 세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측과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 △종교 · 인도 지원 등 민간교류를 허용할 것 △남북 간 만남과 대화를 추진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8.15불교단체연석회의엔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총동문회 '통일바루', 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속해있다. 박아름 기자

동국대도 '평단대' 놓고 내홍 조짐

총학 "대학 가치 훼손" VS 학교 "교육 질 담보 최선"

이화여대로 촉발된 평생교육단과대학(이하 평단대) 사업 논란이 동국대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평단대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고, 학교 당국과 총동창회는 사업 지지를 호소했다.

동국대 총학생회는 8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속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평단 사업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선정 두 달 만에 신입생을 선발한 뒤 2학기 동안 단과대 커리큘럼을 확정하고 신임교원을 선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동국대 교수협의회도 사업을 즉각 취소하고, 평생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교육부와 학교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동국대도 정책위원과 총동창회의 성명을 통해 사태 진화에 나섰다. 동국대 정책위원들은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평단대의 교육환경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총동창회도 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모교를 빛낼 인재를 배출할 또 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사고

본사 사옥 이전

현대불교신문사가
신사옥을 마련해
8월 26일 이전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새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606호

중앙승가대학교 '4년 단기출가자' 모집

✓ 'Uni-출가' : University + 출가

Uni-출가는? 유니출가하여 중앙승가대학교 4년간의 정규 대학과정을 이수하면서 출가생활을 경험하고 졸업 후 스님으로서 전법과 수행에 매진하거나 사회전문직업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단기출가의 모델

• 모집대상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단기출가(Uni-출가) 경험 희망자
• 신청자격
고등학교 재학생 / 고교졸업학력 이상 및 만 50세 미만인 자
• 문 의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 031) 980-7736, 7713~5

✓ 'Uni-출가' 개요
• 청소년 출가자는 '청소년출가 특별법'에 의해 행자교육이 면제됩니다.

사미(니)계 수계 → 중앙승가대학교 입학/졸업 → 스님 (출가 수행자) / 사회 전문 직업인 종사

✓ 특전 및 진로
• 문학사 학위 취득 • 등록금/기숙사 4년 전액 지원 • 다양한 장학 혜택
• 해외자매결연대학(대만 불광/남화대학, 미국 서래대학, 호주 남천대학, 필리핀 광명대학, 일본 교토 불교대학) 교환학생 : 학비 · 기숙사 전액지원
• 군법사 자격부여 : 남 · 여 지원가능(국방부지정 군종장교 후보생지원대학)
•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및 1급 응시자격 부여 : 복지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
• 불교심리상담사, 템플스테이 지도사, 문화재 준학예사 취득 및 지원 자격 부여 • 사찰/종단 종무 행정직 취업

10118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123 중앙승가대학교 Tel 031-980-7736, 7713~5 Fax 031-980-7778 https://www.sangha.ac.kr

조계종 과거사 성찰은 '현재진행형'

대중공사 25일 '조계종 현대사 성찰' 의제 제시

조계종이 올해 하반기 근현대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과거사 정리에 나선다. 사부대중100인대중공사추진위(공동위원장 도법)는 8월 25일 오전 10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 현대사의 성찰과 미래불교를 향한 희망'을 주제로 한 제3차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한다.

이번 대중공사에서는 지난해 9월 불교계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94년 개혁 멸빈자 사면과 함께 '대승정법 구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지역현장에서의 불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신뢰받는 종단을 위한 제안?' 등이 의제로 상정된다.

사부대중위, 10일 성찰 보고서 공개
조성택 교수 등 대중공사서 발표
94년 개혁 멸빈자 처리 논쟁될 듯

조계종은 지난해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판결 사태 이후, 과거사 문제 해결 및 멸빈자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 고민을 이어왔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사부대중위원회가 종단 50년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부대중위원회는 2015년 9월 출범해 △과거서 정리 △개혁계승 △94년 멸빈자 복권 등의 분과로 나눠 연구 및 조사 활동을 진행해왔다.

사부대중위원회는 대중공사에 앞서 8월 10일 간담회를 열고 발표 예정인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당초 공청회 형식으로 이날 발표하려 했지만 내부조율로 인해 간담회로 변경됐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부대중위원회는 과거사 성찰에 대해 △성찰의 이유와 대상, △조계종 50년의 성장과 발전, △회고와 과제 등을 총 3장에 걸쳐 다뤘다.

특히 사부대중위는 조계종 50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종단 운영구조를 근대화 체계화하고 괄목상대한 성장을 이뤘지만, 종단의 규모를 늘리는 데 집중돼 가치의 측면은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 성찰 과제로 △불교가치의 목표, 생명 안락과 행복 구현으로 재설정 △한국불교 정체성, 추상적 선언에서 구체적 상(相) 정립과 제시 △불교교육, 추상적 지식 · 교리 전달과 습득 중심에서 구체적 삶에서의 실천 중심으로 전환 △종단 구조와 제도, 근대화를 넘어 불교 고유의 문화와 가치의 제도화로 노력 △종헌, 임시체계에서 정상(正常)체계로 전환 △종단 풍토 진정한 연기적 공동체로 회복 △불교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참여 △정치권력과의 관계, 의존성과 무기력을 넘어 자율성 회복 등을 제시했다.

또 종지 · 종풍, 권력구조와 선출방식, 멸빈 제도 등 사법제도에 대해 "현재에도 여러 논란이 있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헌과 종법에 종도대중의 뜻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안에 대해 조성택 사부대중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재 범계 행위 등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법인 스님도 "재가불자 신행을 다루는 등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스님, 복숭아 받고 시원함 드립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8월 9일 칠석기도 회향을 맞아 신도 2000여 명에게 신중단에 올린 천도복숭아를 나누는 '해피복숭아 나눔의식'을 진행했다. 직접 복숭아를 전달하느라 굵은 땀을 흘리는 주지 지현 스님에게 한 신도가 시원한 선풍기 바람을 보내고 있다. 노덕현 기자

기복 아닌 작복으로… 이타적 실천이 중요

현각 스님 발언으로 본 한국불교– ① '기복=돈' 한국불교

푸른 눈의 수행자 현각 스님이 SNS를 통해 제기한 한국불교에 대한 비판 멘트 중 하나가 '기복=$'이다. 정확한 발언은 "열린 그 자리를 기복 종교로 귀복시켰다"는 것이다.

사실 불교에서 기복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기복불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불교 유일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에서는 기복불교에 대한 논쟁이 활발했다.

기복불교를 비판하는 학자와 재가, 스님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복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비판은 이렇게 정리된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원하는 행위가 불교적이지 않다. 또한 수행의 종교임을 자부하는 불교가 부처가 되는 수행이 아닌 부처를 믿는 행위인 기복에 몰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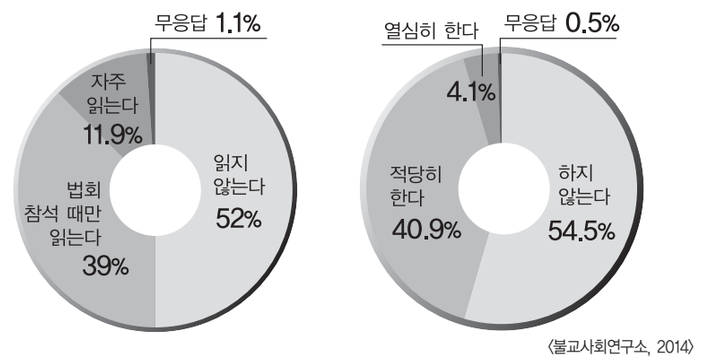
기복불교를 옹호하는 쪽도 적지 않다. 이들도 "초기 불교에도 기복신앙의 흔적이 전해진다(김성철)", "부파불교 시대에도 기복신앙은 있었다(울만 파트리크)"는 등의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며 기복불교는 종교 신앙이 가지는 기본적인 행위임을 증명한다.

'기복은 불교인가, 아닌가'는 2000년대 後 최고 논쟁 사안

수행 뒷전, 기복에 치중된 세태
불자 신행 만족도 종교 중 最下
떳다방 포교당, 기도를 돈벌이로

기복불교에 대한 학술적 논쟁과 함께 봐야 하는 것은 현재 한국불교의 상황이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기저에는 재와 기도 수입에 치중하는 모습들도 적지 않다. 한 대형 사찰에서 49재를 7번 지내도록 유도한 것은 현재까지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떳다방 포교당'의 경우 재와 기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세태이다.

前 조계종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기복신앙적 요소들은 현재 한국사회 민낯을 보여주는 면이기도 하다. 요즘 한국불교가 자본과 정치권력에 짙게 물들어 가는 점은 위기임에 틀림없다"며 "돈과 얽혀 있는 기복신앙은 셀프박해이며 자기기만"이라고 말했다.



〈불교사회연구소, 2014〉

반면, 한국불교에서 수행과 지계 등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매우 저조하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2014년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교의 계율 · 계명 준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종교 신자 중 개신교(49.5%)였다. 불교의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평소 종교 경전을 얼마나 자주 읽냐는 질문에 '경전을 자주 읽는다'고 응답한 불자는 11.9%에 그쳤다. 동체 대비를 위한 봉사활동 실천 역시 54.5%의 불자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신앙생활의 만족도도 불교가 최하위였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개신교가 65.1%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은 50%, 불교는 34.3%였다.

이를 정리하면, 한국불자들은 경전도 읽지 않고, 계율도 지키지 않으며, 자비실천 의지도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초하루와 재일에 불공을 올리기 위한 신도들로 북새통을 이루지만, 정작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신행하는 불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은 자신의 글 '기복신앙 문제의 본질 과제'에서 "주변에는 부처님께 복을 비는 것이 불교 신앙의 전부인양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면서 "이들을 기복에서 작복으로, 다시 작복에서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드배치 반대' 불교계 움직임, 확산일로

성주불교사암연합회 등 반대시위 · 입장 발표 잇달아

성주 사드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불교계로 확산됐다. 불교계 재가단체 및 스님들은 전국 곳곳서 정부에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8월 5일 성주군청 앞에선 성주군 불교사암연합회 및 신도회가 주최하고 성주불교지도자회가 주관한 '사드배치 반대 한반도 평화기원 대법회'가 봉행됐다. 성주불교지도자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사드배치를 '성주군민 5만의 가슴에 던진 무서운 폭탄'이라 표현하고, 사드배치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주불교지도자회 등은 "성주는 옛 문화를 창달해 생활사(生活死)의 문화를 현창하는 바, 매년 전국서 유일한 '성주생명문화축제'를 열어왔다. 하지만 이젠 사드에 의해 '생활사 문화'는 다 죽게 됐다"며 "사드 때문에 성주서 출산하지 않으려 하니 생(生)이 죽고, 학생을 외지로 보내려 하니 활(活)이 죽고, 사드가 가야고분을 짓밟아 사(死)가 죽게 생겼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평화정신을 본받아 한반도의 평화를 멀게 하는 사드배치를 절대 반대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신도회 성문숙 씨가 대표로 낭독한 기원문에서 "대통령은 재작년 초 '통일 대박'이라 외치며 국민에 통일이 임박한 듯 희망을 줬다"며 "그러나 지난 7월 12일 성주 주산인 성산을 미군에 내어주고, 고고도 미사일을 설치하겠다 발표했다. 이것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길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이하 정평불)는 8월 8일 오후 5시 30분부터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시위는 상임대표 이도흠 한양대 교수를 시작으로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김광수 한양여대 교수, 장성우 정평불 사무총장, 최연 온두라 대표가 차례로 참가한다.


8월 5일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평화기원대법회에서 불자들이 한반도평화정착과 성주군민의 여론을 반영한 사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평불은 지난 7월 14일에도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상임대표 법응)은 8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소회의실서 '사드 한반도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응 스님은 인사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찬반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사드배치에 대해 전 국민 뿐 아니라 국가 간 대립 양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사드배치 외에 다른 대책은 없는지 고민해야하며, 또 반드시 필요하다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광복 71주년 기념

제8회 만공대선사 학술대회

• 주제 : 일제하(日帝下)의
만공 대선사 항일 사자후(獅子吼)



덕숭총림 수덕사는 광복 71주년 기념으로 '일제하의 만공대선사 항일 사자후'를 주제로 한 제8회 경허 만공 학술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만공선사는 1937년 3월 일제 총독부 어전회의에서 조선불교진흥책에 강력히 저항하여 총독에게 언어폭탄(一喝)을 던져 일제의 조선 식민지 흉계를 단칼에 불식시키고 민족자존을 지켜냈습니다. 만공선사는 일제를 향한 민족적 저항과 항일 정신을 앞장서 이끌었던 경허 대선사의 선풍을 대기대용(大機大用)으로 크게 진작시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수호했습니다.

이번 대회로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경허 만공 연구가 한층 축척되어 한국불교사와 민족정기 함양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8일(목) 오후 1시
■ 장 소 | 수덕사 황하정루
■ 주 최 | 덕숭총림 수덕사 / 경허 만공 선양회
■ 후 원 | 충청남도 / 예산군
■ 문 의 | 041)330-7713

영상 전법의 견인차… 선지식 법문 세계로

500회 맞은 불교TV 무상사 일요초청법회

10개국 163명의 국내외 선지식 초청. 방송횟수 1700여 회. 평균 참여 인원 500명. 모두 BTN불교TV 무상사의 일요초청법회에 관련된 수식들이다.

BTN불교TV의 영상 전법 도량 무상사의 일요초청법회가 8월 7일 500회를 맞았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법사로 나섰다. 진제 스님이 2011년 종정 추대 이후 총림을 벗어나 대중법회에서 법문을 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00명이 장사진을 이룬 이날 법회에서 진제 스님은 자신의 출가 이야기와 함께 간화선 수행의 중요성을 설했다.

진제 스님은 "조계종은 부처님의 심인법을 잇는 종단"이라며 "중생의 근본 뿌리를 송두리째 뽑는 것이 화두 참선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바로 보면 이 안에 진리가 있다. 곧 바른 수행을 하라는 것이 조계종의 종지"라고 강조했다.

불교TV의 영상 전법 도량 무상사의 일요초청법회는 국내외 고승 대덕 스님들을 초청해 법문을 청하고 이를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일요초청법회는 영상 전법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방송콘텐츠로 시작 당시부터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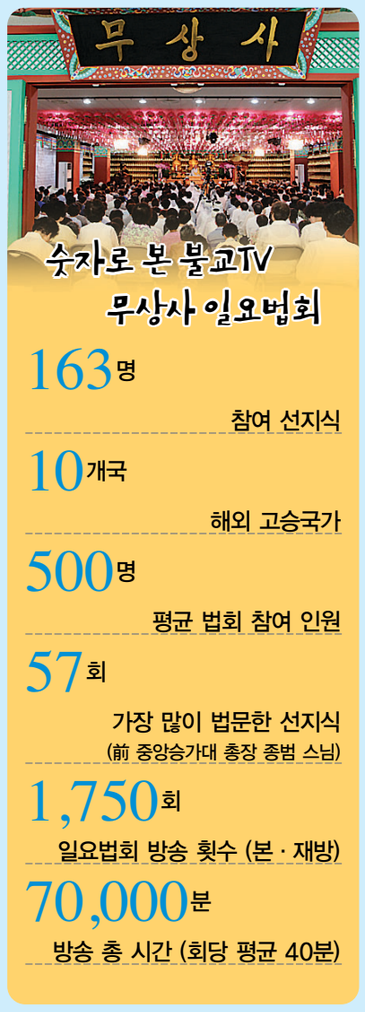
일요초청법회는 2003년 열린 무상사 개원특별법회가 시작이었다.

무상사 일요법회의 첫 법문은 장좌불와와 하루 한 끼 공양, 염불선의 실천자 등 수많은 수식어가 뒤따랐던 곡성 성륜사 조실 청화 스님이었다. 스님

2003년 무상사 개원하며 시작
국내외 선지식 163명 초청 법문
500회 법사 종정 진제 스님 모셔
"1천회 법회 준비하며 정진할 것"

은 당시 개원법회 법문에서 "우리가 어째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불교를 알려야 하는 것인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면 인생과 우주의 참다운 도리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했다.

무상사 개원 당시에는 일요일 법회가 흔치 않던 시절이었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이 시대의 선지식들을 만날 수 있다는 매력에 평균 500명의 신도들로 법당은 가득 찼다.



500회를 한주도 빠지지 않고 법회를 열면서 여러 진기록들이 세워졌다. 총 163명의 국내외 선지식들이 법상에 올랐고, 참여 국가는 10개국에 이른다.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부터 원로의장 밀운 스님, 前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 등 선 · 교 · 율의 선지식들이 법사로 참여했다. 또한 입적한 前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과 황대선원 조실 성수 스님,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 법장 스님, 정대 스님, 원로의원 정무 스님, 무진장스님 등도 일요 법회를 통해 불자들에게 깨달음을 전했다.

법회를 녹화 중계해 방송으로 볼 수 있게 한 것도 일요초청법회의 큰 장점이었다. 현재까지 일요초청법회의 방송 횟수는 1750회이며, 방송 평균 러닝타임이 40분정도임을 감안하면 총 방송시간은 70,000분 · 1167시간에 달한다.

구본일 BTN불교TV 대표이사는 "불교TV가 한국불교 대표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500회를 맞이한 무상사 일요초청법회가 초석이었다"면서 "이제 1,000회 법회를 준비하며 소중한 기쁨을 불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한국불교 대표방송 불교TV와 무상사는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세계 최초 원폭2세 환우 쉼터 개원

합천평화의집, 8월 6일 개원식 거행



합천평화의집은 8월 6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서 한국 원폭2세 환우 생활 쉼터 개원식을 거행했다.

한국 원폭 피해 2세 환우들을 위한 생활 쉼터가 개원했다.

합천평화의집(원장 윤여준)은 8월 6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서 한국 원폭2세 환우 생활 쉼터 개원식을 거행했다. 원폭 2세 환우들을 위한 쉼터 공간 개원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합천평화의집을 지원하고 있는 (사)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은 이날 "(히로시마 원폭투하) 71년이 지나, 지금이라도 피해자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주기엔 아직 많은 부족함이 있다"며 "특히 원폭2세는 19대 국회서 통과한 특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스님은 "이번 원폭2세 쉼터 개원이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합천평화의집 측은 "이 쉼터는 민간 차원으로 운영되며, 원폭 2세 문씨 형제를 포함한 4명의 환우들이 생활할 예정"이라며 "추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2세 환우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하창환 합천군수, 김성만 합천군의회 의장, 히라오카 다카시 일본 히로시마 前 시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생명 존엄성 알리자" 생명포럼 공식 출범

종교계 및 학계 인사 '한시적' 모임… 8월 18일 출범식

생명의 존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교인 및 학계인사들이 모여 창설한 '생명포럼'이 8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은덕문화원서 공식 출범한다.

생명포럼은 '생명존엄성을 중시하는 흐름을 만들자'는 취지로 창설된 한시적 모임이다. 김영호 前 산업자원부 장관, 김용복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장, 정민걸 공주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박병상 가톨릭대 교수, 윤용택 제주대 교수, 김은진 원광대 교수, 이원영 수원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국 6대 종교인들과 학계 인사들이 모였다.

생명포럼은 △세계생명헌장 또는 협정서 구성 △내년 대선 생명정책 공약 도출 등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활동을 계획하고, 오는 9월과 10월 각각 국회와 오대산 월정사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2차 세미나도 진행된다. 2차 세미나 주제는 '동물의 희생과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방식'이다. 박아름 기자

나무여성인권, 에코젠더사업 실시

조계종 후원으로 진행
9월 30일 모집 마감

비영리단체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인권과 성 평등 향상을 위한 '에코젠더사업'을 실시한다.

조계종 사회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불교적 평등관과 생명존중 사상을 통해 혐오 차별을 지양, 인권과 성 평등 의식을 향상시켜 사회문제 해결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경기지역 사찰과 복지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내용은 △연기법으로 배우는 평등과 생명 △차별과 혐오, 인권이 답이다 총 2개 주제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사찰 및 복지관, 지역기관 등 기관단위로 전화(02-732-1367) 또는 메일(namuright@hanmail.net)로 신청 가능하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쏘고 찌르고… 불자선수 金·金·金

양궁 男단체 · 펜싱 박상영
사격 진종오 등 쾌거

2016리우올림픽에 나선 국가대표 불자선수들의 금메달 소식이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달래고 있다.

양궁 남자단체전에 참가한 구본찬 · 김우진 · 이승윤 선수는 6일(현지시간) 삼보드로모 경기장에서 열린 결승전서 최상의 기량을 뽐내며 미국을 세트점수 6-0으로 꺾고 우리나라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본선 내내 상대팀에게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이로써 2012런던올림픽서 동메달에 그쳤던 아쉬움을 털어냈다. 양궁 남자단체 국가대표 선수들은 돈독한 불심을 바탕으로 사찰에서 불교수행을 하며 집중력을 높인 것으로 잘 알려졌다.

언더독(Underdog)으로 평가되던 펜싱 남자개인 에페 박상영 선수는 결승전



서 상대선수에게 10-14로 밀리다가 막판에 5연속 득점을 하며 금빛 대역전 드라마를 썼다. 박 선수는 2011~2013년 경남체육고 재학시절 영축종림 통도사가 주관한 체육인불자 장학생에 선정됐다. 박 선수 모친 역시 신심 깊은 불자로 대회를 앞두고 두 달여 동안 전국사찰을 돌며 108배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감동을 더했다.

사격간판 진종오 선수는 본인의 주종목인 50m 권총서 총점 193.7점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동시에 세계 최초 올림픽 사격 3연패라는 대업도 달성했다. 그는 경기 중반 탈락위기서 뛰어난 집중력으로 역전극을 연출했다. 진 선수는 모친과 함께 불심을 닦으며 오랫동안 선전하고 있는 대표 불자선수 중 하나다.

이 같은 불자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0(위)-10(금메달)'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아울러 경기를 앞두고 있는 다른 불자선수들의 활약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출가자 국민연금 2017년부터 지원 시작

조계종 승려복지회에서 7월 30일자로 스님들의 2017년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신청공고를 공시했다. 승려복지에 국민연금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일환이다.

신청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 국민연금(지역가입자에 한함)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이다. 지원액은 2017년 1월부터 월 10,800원, 2018년에는 월 18,000원, 2019년부터는 월 36,000원으로 점차 늘어난다. 신청은 조계종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해 재적 교구본사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교구본사는 접수내역을 정리, 승려복지회로 이관하면 승려복지회는 지원여부를 심사해 2017년 1월 중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입금해 준다. (02)2011-1726 노덕현 기자

일 주 문



청주무예마스터십 MOU

정도 충북불교총연합회장 스님은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청주 선프라자서 충북도와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홍보MOU를 맺는다.



선운사 칠석기도

경우 고창 선운사 주지 스님은 8월 9일 경내 지장보궁서 '가족의 행운을 기원하는 칠석기도'를 봉행했다.



고운사 종경록 특강

호성 의성 고운사 주지 스님은 8월 22~26일 오후 2시 화엄문화템플관서 '각성 스님 종경록 특강'을 개최한다.



공불련 첫 정기법회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8월 1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조계사 관음전서 첫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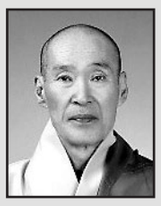
마음모아 함께 바자회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은 9월 1~2일 오전 10시~오후 6시 서울 견지동 나무갤러리 및 개발원 주차장서 마음모아 함께 바자회를 연다.

화촉 이근혁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임은 8월 28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회기역 2번 출구) 웨딩 헤너스 7층 씨엘로홀에서 신부 김윤주 씨와 화촉을 밝힌다.

월정사 선덕 홍원월면 스님 원적

법랍 54세, 세납 75세… 산중장 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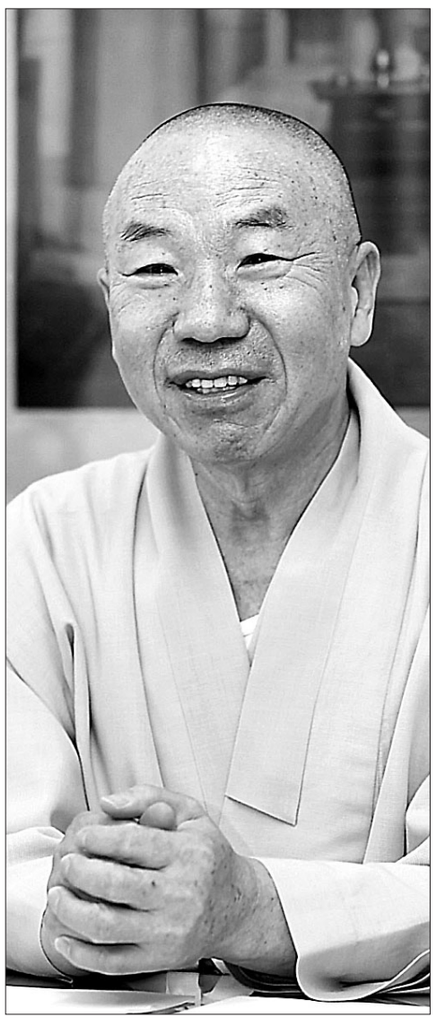


조계종 제4교구본사 평창 월정사 선덕 홍원(弘願)당 월면(月面) 스님〈사진〉이 8월 8일 오전9시 원적에 들었다. 법랍 54세, 세납 75세. 월정사(주지 정념)는 8월 8~10일 오대산 산중장을 엄수하고, 10일 오전 10시 영결식을 봉행했다.

1942년 경남 양산서 출생한 월면 스님은 1962년 월정사서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9년 해인사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윤호섭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09호 4면 '법륜비구니장학금' 기사에서 윤서 스님을 **'윤성 스님'**으로, 감사 운성 스님을 **'운산 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청년 희망, 불교가 심어주자"

제1회 청년희망캠프 여는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못 먹고 못 사는 것 보다 희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질보다 자신의 삶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계가 이런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합천 해인사가 오는 8월 18일부터 20일,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2회에 걸쳐 사상 처음으로 '가야산 해인사 청년희망캠프'를 개최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보유한 해인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희망캠프를 연 것은 이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사진〉은 8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상대평가 하는 이 시대, 청년들이 자기 삶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교색을 버리고 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던 차에 이번 캠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인사는 참가하는 청년들을 위해 18일 오전 11시 김천구미역서 해인사로 버스를 운행한다. 입재식과 함께 해인사 학감 보일 스님과의 가야산 순례가 진행된다. 또 국민멘토 혜민 스님을 비롯해 정홍규 신부, 유수상 목사 등 이웃종교인들도 참여,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취업을 위한 전문강좌도 열려 8명의 취업 전문가들이 조별 리딩을 맡아 매력적인 이력서 쓰기, 실제 면접 시뮬레이션 등 1:1 코치를 한다.

혜민 스님, 정홍규 신부 등 멘토 나서

무한 경쟁에 지친 청년들 희망 전달

취업강좌 · 문화행사 등도 펼쳐져

문화행사로는 김범준 MBN사회자의 전문진행에 맞춰 해인사 축구장서 인디밴드 '준수-바름을 가르고'와 퓨전국악그룹 '어쿠스틱 미미'가 출연하는 공연프로그램, 산사명상 및 암자순례, 차담, 마애불 산행 등이 진행된다.

향적 스님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무료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삶의 희망과 목표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며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해인사에서 과도한 경쟁 등으로 지친 심신을 위해 안정과 쉼의 시간을 갖고, 취업전문가와 멘토들의 조언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적 스님은 이번 활동에 이어 향후 팔만대장경을 활용한 국민 밀착형 포교를 전개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향적 스님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경판 하나당 한 명을 결연해 직접 보살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보를 스스로 보존한다는 책임감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매년 8만 명이 사찰을 찾게 돼 불교포교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향적 스님은 "불교는 현재 출가자가 감소하고 있는 등 위기에 처해있다. 기존 포교방법으로는 유교와 같이 유물, 사상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며 "이번 캠프를 계기로 사회 속에서 여러 계층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강화지역 어르신, 늘 건강하세요!"

강화불교사암연, 3년째 어르신 효도잔치 열어

강화불교사암연합회(회장 승석, 전등사 주지)는 8월 11일 적석사에서 강화지역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효도잔치를 개최했다.〈사진〉 효도잔치는 백중을 맞아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효의 의미를 살리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효도잔치는 행사를 주관한 적석사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행사를 주관한 적석사 주지 선암 스님은 "백중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게 돼 영광"이라며 "많은 분들이 오신 것에 감사드리고,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화불교사암연합회장 승석 스님은 "요즘 심각한 무더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바람도 시원하고 풍경도 좋다. 그리고 그보다 행사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불자 가수 김흥국 씨를 비롯한 대한가수협회 소속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다양한 노래공연을 선보였다. 이에 어르신들은 흥겹게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집은 무척 더워서 답답했는데 이곳에 오니 더운 줄 모르겠다"며 "음식도 맛있고 공연도 재밌다. 매년 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어르신들은 행사가 끝난 뒤 사암연합회가 준비한 우산과 수건 등의 선물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행사에는 각 사찰 주지스님들과 이상복 강화군수,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원, 배정만 강화불교신도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문화유산, 우리가 지킨다!"

전국문화유산 캠페인 서포터즈, 8월 11일 출정식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은 8월 11일 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원 강당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를 나누기 위한 '2016 I LOVE KOREA 전국문화유산 캠페인(이하 전국문화유산 캠페인)' 출정식을 개최했다.〈사진〉

전국문화유산 캠페인은 지난해 진선연고서 진행된 문화재 환수 캠페인에 이은 진각복지재단이 주최하는 2번째 캠페인이다. 전국 100여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단이 8월 11~13일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문화유산의 가치와 이해를 전달하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 국악밴드 AVIO · 더킹 · 써니플레이 · 코마 등 공연팀의 다채로운 공연도 함께했다.

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 진행되는 '시민 참여형 퀴즈 이벤트'서 정답을 맞춘 시민들에게 음료 기프트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상품도 마련됐다.

첫날인 11일엔 대구 백화점 앞 및 경주 황룡사지, 12일엔 부산역 및 광안리 만남의 광장, 13일엔 서울 마로니에 공원서 진행됐다.

서포터즈단은 앞서 7월 9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이번 캠페인서 진행되는 퍼포먼스 등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다. 이에 대해 진각복지재단 측은 "대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역사의식을 갖게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6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6년 8월 22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제1회 한마음선원 세계청년연합수련회에 참가한 세계각국의 청년불자들이 상원사 참배에서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는 하트를 그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청년불자 350여명이 참여해 마음공부에 대한 교감을 나눴다.

세계청년 불자들 "주인공에 맡기면 '우리는 하나'"

〔현장〕 제1회 한마음선원 세계청년연합수련회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세계 청년불자 350명 참여
불교문화유산 견학 · 담선 진행

8월 6일 본행사서 장기자랑
"불심으로 한마음 되어요"
서산정 참배서 원력 다져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린 8월 초순의 한 토요일, 사찰 불단 앞에서 풍물패의 장단에 맞춰 사자탈을 쓴 청년들이 신명나는 춤사위를 선보였다. 묘기와 같은 춤사위에 법당에 모인 350여 청년불자들에게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청년불자들의 뜨거운 열기가 여름더위보다 거셌던 이 대회는 바로 한마음선원이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세계청년연합수련회였다.

8월 6일 저녁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는 세계각국의 청년불자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이날 자리는 7월 30일부터 한국에서 세계청년수련회를 소화한 한마음선원 국외지원 청년들이 안양본원에서 한국 각 지역의 청년불자들과 교류하는 자리였다.

한마음선원 미국 뉴욕 · LA · 시카고 지원, 캐나다, 태국, 독일, 아르헨티나 등에서 온 50여 청년불자와 전국에서 모인 지원 300여 청년불자들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교감을 나눴다.

장기자랑에서는 본원 청년회의 풍물과 사자춤 공연을 시작으로 캐나다 지원과 태국 지원의 댄스가 진행됐다.

캐나다 토론토 지원에서 온 추정인 씨는 "우리 지원을 자랑하고 싶었다. 마음으로 소통하고 문화로 공존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지원에서 온 청년불자들은 선법가와 피아노 · 기타 연주를 선보였으며 LA지원 손연재 씨는 홀로아리랑을 불러 교포 출신 청년불자들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다.

손연재 씨는 "이번 수련회에서 통일전망대를 가 음성공양을 올린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어느새 우리가 분단국가이고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수련회에서 보여준 각국 청년불자들의 화합의 힘이라면 통일이 당겨질 것이라 보인다"고 아리랑을 부른 이유를 말해 감동을 선사했다.

수련회 장기자랑의 백미는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연극단 '청공'의 연극이었다. 대행 스님의 법문 '지옥 간 훈련대장 이야기'를 주제로 이들은 실감나는 연기를 선보였다. 자신의 업으로 인해 뱀으로 태어난 훈련대장이 업을 녹이기 위해 스님의 조언을 듣고 뜨거운 아궁이 불 속에서 자신을 녹이는 것이 내용이었다. 연극 공연을 마친 뒤 출연진들은 "내 속의 무한한 가능성,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큰스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헤매었을까 생각하며, 마음공부하는 도반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한마음선원 각 지원에서 청년법우들 30여명이 모여 만든 법문등 350여개를 들고 서산정 참배와 함께 촛불재를 진행했다. 법문등은 7월 9일부터 1박 2일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광주, 통영 등 전국 지원의 청년법우들이 모여 함께 만든 LED등이었다. 이 제작과정도 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대구지원 정상재 씨는 "국외지원 법우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이기에 대행 스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무사히 돌아가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등을 만들게 됐다"며 "밤을 세워가며 LED작업을 했지만 등을 본 해외지원 청년들이 좋아할 생각을 하니 힘든 줄 모르겠다"고 영상으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촛불재에서 이들은 대장부, 푸르게살라 등을 부르며 대행 스님이 남긴 가르침을 되새겼다.

뉴욕지원 김효진 씨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감사함을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라며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수련회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고 많은 순간들을 앞으로 내내 기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캐나다지원 임혜리 씨는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다. 다른 법우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침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수련회는 제 인생 내내 잊지 못할 값어치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세계평화와 불법홍포를 위해 해외지원을 세우신 대행 큰 스님의 원력이 씨앗이 되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쳤다"며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대회에서 등불을 밝힌 것처럼 마음공부로 스스로를 밝히고 또 세상을 밝히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8월 5일 입재한 세계청년연합수련회에서 청년불자들은 조별 담선, 촛불재 등의 프로그램과 노년의 대행 스님이 주석했던 서산정 참배, 최초로 중생구제의 원력을 펼쳤던 장소인 치악산 견성암 참배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이어가는 현재의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으로 향하는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에 앞서 국외지원 청년불자들은 7월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음성 광명선원에서 '한마음으로 돌아가네'를 주제로 국외지원연합수련회를 진행했으며, 8월1일부터 4일까지는 부산지역과 문무대왕릉,감은사지,불국사,석굴암 등 경주지역 순례, 문경새재길 산책과 래프팅 체험, 통일전망대에서 통일기원 화합재, 경복궁 견학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안양 한마음선원 인근 서산정에서의 촛불재 기념사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독일지원 불자들의 선법가 합창.



안양본원 청년회의 사자춤과 풍물공연.



원주 치악산에 위치한 대행 스님 오도처 견성암 참배 모습.



말법시대의 현성공안 만을
선정하여 라이브로 공개강좌 하다

제 2차 공개강좌

고통 해탈문

2016년 여름 현재, 진귀수행자는 법회, 기도, 신도단련, 천도재, 및 각종수련 등등을 일체 하지않는 수행자로서,오직 화엄경연구와 역경작업에만 전념하고 있으며,특히, 공개강좌 외의 법문요청, 강의요청 및 친견요청 등등을 일체 사절중에 있으며, 혹 간절하고 간절한 친견을 원하시는분이 있으면 소속 사찰에서 만배(10,000배 : 1:1친견시만 해당됩니다, 공개강좌는 제외)를 5일 이내에 마친후 확인증을 제출하신분에 한하여 친견을 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 개 강 좌 일 시 : 2016년 8월 31일 (수) 오후 3시
• 공 개 강 좌 장 소 : 깨달음센터 (대구 수성구 소재)
• 참석대상 및 참가비 : 누구나, 선착순 33명 제한, 참가비 무료
• 예약신청 및 문의처 : 1899-9532 (예약접수 하신 분만 참석 가능 함.)

깨달음 센터
(구. 화엄경 강원)
주지 원일 합장

생명나눔, 김준서 · 익명의 스님 치료 지원

9월 치료비 지원환자로 선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의 9월 치료비 지원 환자로 김준서(5 · 남) 군과 익명의 스님이 선정됐다.

9월 정기지원 환자로 선정된 김준서 군은 국내에선 3명만이 앓고 있는 알란헌든더들리증후군이란 희귀병으로 투병 중이다. 엄마와 단둘이 살며, 기초수급자로서 국가 지원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희귀병 중에서도 너무나 희귀하단 이유로, 희귀병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란헌든더들리증후군은 정신지체와 말더듬증, 근육긴장저하가 함께 나타나며, 정상 발달을 하지 못하고 평생 누워 지내야 하는 병이다.

근육긴장저하로 인해 평생을 누워 지내야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구토와 경련을 일으키지만 김 군의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다. 얼마 전 김 군이 4년 만에 목을 가누고 뒤집기를 시작했고, 의사들도 놀랄 만큼 병을 이기려는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님환자 지원사업 환자로 선정된 OO 스님은 2011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우측 편마비 장애가 발생, 2년간 재활전문병원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2012년 오른쪽 눈에 까지 이상이 생겨 각막이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스님은 경제적 부담감으로 수술을 거부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생명나눔 측은 발병 전 경남지역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포교와 수행에 전념했던 OO 스님을 위해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명나눔 측은 "환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가 9월 치료비 지원환자로 김준서 군(사진)과 익명의 스님을 선정했다.

사찰음식, 먹지만 말고 직접 요리를…

전국 사찰음식강좌 '인기'
사찰 · 체험관 등 8월 강좌 5選



사찰음식이 먹는 것서 벗어나 '배우기'로 또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진관사서 진행된 '1차 공양주 채공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모습.

a먹는 것서 벗어나 배우기 '열풍'
신혼부부 · 외국인 등 수요층 다양
여름철 사찰음식 등 강좌 다채

몇 해 전부터 불어온 사찰음식 열풍.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 '슬로우 푸드(Slow Food)'가 주목받으며, 채식 위주의 식단인 사찰음식이 그 선두에 섰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엔 사찰음식당이 개설되며, 사찰이 아닌 곳에서도 사찰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사찰음식이 '먹는 것'서 벗어나 '만드는 것'으로 또 한 번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메뉴와 맛도 진화돼 일반 가정과 신혼부부, 외국인 등 각계각층 사람들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무더운 8월 입맛을 돋울 사찰음식을 배울 수 있는 5곳을 소개한다.

서울 안국동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은 매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4주 과정과 1일 체험으로 나뉘고, 4주 과정은 사전모집 신청자에 한에 운영된다. 현재 8월 4주 과정 모집은 마감됐으며, 1일 체험은 신청 가능하다.

8월 진행 중인 1일 체험 프로그램은 △3소식 사찰음식 배우기 △Let's Learn Korean Temple Food △우리가족 사찰음식 등이다.

특히 '우리가족 사찰음식'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인 및 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세부일정 및 메뉴는 △8월 7일 · 14일 호박만두, 애호박전, 오이무침 △8월 21일 · 28일 냉들깨 국수 작설차 잎 · 애호박 전, 오이 당귀잎겉절이로 구성된다. 강사는 지견 · 수관 스님이 나서며, 1회 참가비 1만원이다.

이 밖에 'Let's Learn Korean Temple Food'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실시된다. 영어로 진행되며, 강사는 혜성 스님이 맡았다. 참가비 1만원.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은 2016년 하반기 사찰음식 정규강좌를 마련한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내 향적세계서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초급 · 중급 · 고급강좌로 구성된다.

초급강좌는 우관 · 동원 스님이 강사로 나서, 11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와 금요일 오전 10시 각각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중급강좌는 도림 스님이 강의하며, 11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12주 과정으로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고급 강좌는 법송 스님이 강사를 맡아 11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중 · 고급 과정 모두 다른 강좌와 동시 수강 가능하다.

강좌는 상시접수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는 신도 교무금 납부 영수증 확인 후 수강료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대구 동화사는 직장인을 위한 일요사찰음식 강좌를 실시한다. 평일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매달 첫째 · 둘째 · 셋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가족, 외국인 등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7월부터 시작된 강좌는 5차까지 진행돼, 8월 21일 마지막 강좌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엔 상추장떡, 수박김치, 새암심 콩국 요리법을 배운다. 신청은 금요일 오후까지 전화(053-980-7977)로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이다.

대전 영선사는 가을학기 사찰음식 강좌를 개설했다. 법송 스님이 강사로 나서며, 월요 · 토요 강좌가 각각 9월 5일~12월 5일, 9월 3일~11월 16일 오후 2~5시 진행된다. 강의료는 12주에 60만원이다(재료비 · 앞치마 · 교재 포함). 전화 접수(042-523-1144) 하면 된다.

의성 고운사는 사찰음식체험관을 운영하며 참가 희망자들의 기호에 따라 산발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총 5개 프로그램 △사찰음식 체험 템플반 △기초반 △단기반 △발표음식 체험반 △1일 체험반 등을 개설해 놓고, 신청자들의 수요에 따라 요일과 시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사찰음식 체험 템플반'은 4인 이상 · 1박 2일 · 참가비 6만원, 기초반은 6인 이상 · 주 1회씩 총 6회 · 참가비 20만원, 단기반은 4인 이상 · 주 1회씩 총 12회 · 참가비 35만원 등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예비 · 영유아 부모님 행복하세요

동국대 경주캠, 17일까지 '행복 마음정원' 교육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대원) 불교아동교육연구소와 불교아동보육학과가 태교 및 영유아 프로그램인 '예비 부모와 영유아 부모를 위한 행복한 마음정원 가꾸기' 교육을 시행한다.

조계종 포교원이 후원하는 이번 교육은 8월 9일부터 17일까지 예비 부모와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수기 및 다도, 태교 음악, 명상과 예술놀이, 감각태교, 태교책 만들기 등 명상과 예술놀이를 통한 부모 · 자녀 인성교육 등이 이뤄진다.

이수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아동교육연구소장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조계종 포교원 산하 인성교육계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불교아동교육연구소의 자체 개발 프로그램"이라며 "예비부모 및 영유아 부모가 우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임신부와 태아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행복한 출산과 육아에 이르기 위한 스스로의 감정을 훌륭히 다스릴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개최한 예비 부모와 영유아 부모를 위한 행복한 마음정원 가꾸기 교육 모습.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교 교류 활성화 가교 역할해달라"

라자팍세 前 대통령, 9일 석왕사 진신사리 친견

미힌다 라자팍세 前 스리랑카 대통령이 석왕사에 봉안된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기원했다.

라자팍세 前 대통령은 8월 9일 칠석을 맞아 열린 부천 석왕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참석했다. 석왕사에 봉안된 진신사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빠진 한국 국민들을 위해 라자팍세 前 대통령이 주지 영담 스님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날 법회에서 영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에 기증자 라자팍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증명했다.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자비심으로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데 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힌다 라자팍세 前 스리랑카 대통령이 8월 9일 부천 석왕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에 참석해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있다. 석왕사에 봉안된 진신사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빠진 한국 국민을 위로하고자 라자팍세 前 대통령이 전달한 것이다.

라자팍세 前 대통령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영담 스님이 친절하게 도와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한국과 스리랑카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석왕사가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친견법회에는 스리랑카 수부띠 사원 주지 와스카두워 마힌다 완사 스님, 김만수 부천시장, 설훈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봉은사 템플스테이, '마인드 힐링' 개설

서울 봉은사와 혜민 스님의 마음치유학교가 함께하는 '봉은사 마인드힐링 템플스테이'가 문을 연다.

봉은사(주지 원명)는 오는 9~12월 매월 첫째 주 토~일 1박 2일 '마인드힐링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총 4차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일정은 △자비의 대화법(9월 10~11일, 김점란 붓다대화연구소장) △마음챙김명상(10월 15~16일, 명상상담 지도자 운성 스님) △미술치유(11월 12~13일, 오미영 한국임상치유예술학회 편집위원장) △춤 명상(12월 10~11일, 김미애 상담심리사) 등이다. 희망 프로그램을 선택해 해당 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각 회차 7일 전까지 선착순 25명 모집하며, 봉은사 홈페이지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bongeunsa@templestay.com)로 전송하면 된다. 참가비 12만원.

박아름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6년 8월 10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6년 9월 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 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천도재 의식 및 권공의식
◇원서교부 : 2016년 8월 10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6년 9월 1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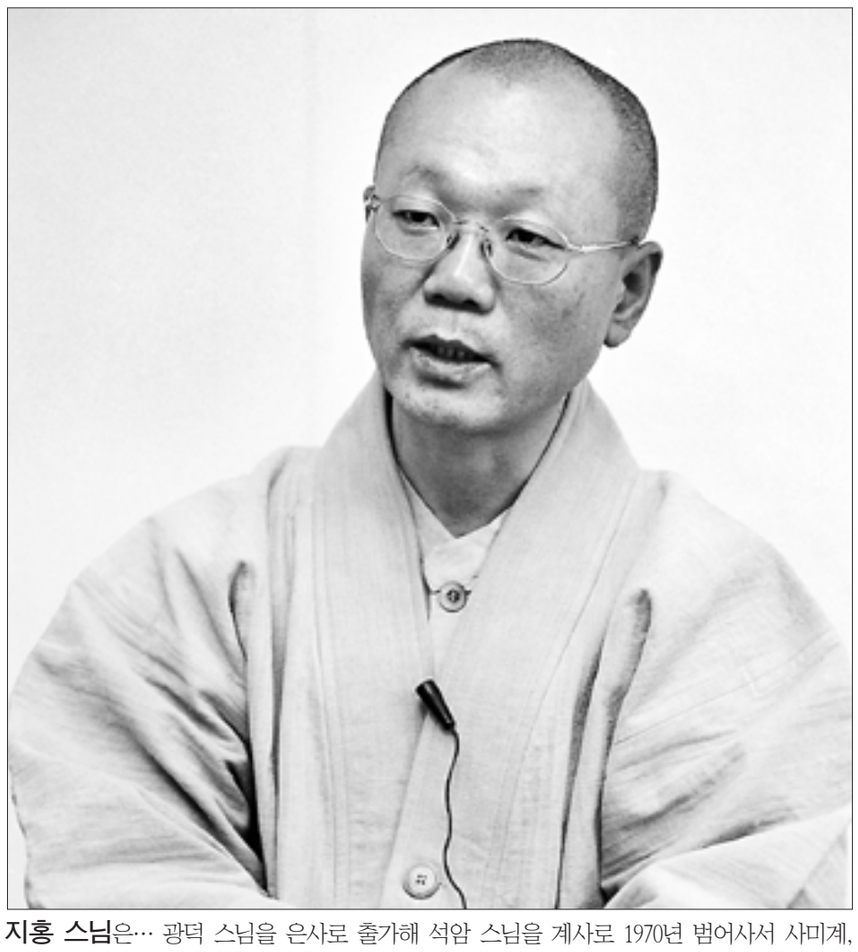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6년 8월 31일까지
◆개강일시 : 2016년 9월 5일 (월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나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조계사 일요법회… '부처님처럼 살자'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사실은 하나지만 대중은 서로 다른 견해로 늘 부딪힌다. 각자의 입장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연을 끊기도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7월 24일 서울 조계사 일요법회서 '부처님처럼 살자'라는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화가 난 나를 먼저 돌아보고 여유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리=이승희 수습기자



지홍 스님은… 광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석암 스님을 계사로 1970년 범어사서 사미계, 1975년 쌍계사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2004년 서울 불광사 회주 소임을 맡아 불광사를 대표적인 도심포교도량으로 일궜고, 월간 〈불광〉 발간 등으로 문서포교에도 앞장섰다. 2014년에는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과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제11~16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부처님이 깨닫고 본 중생
미혹한 존재 아닌 '여래'
아상 탓에 참상 못 볼 뿐
욕심 지울 때 고통 사라져

부처님의 깨달음

오늘 여러분과 '부처님처럼 살자'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화엄경〉에는 부처님이 깨달은 직후 느낀 바를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리수 아래서 막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기이하도다, 참으로 기이하도다. 일체중생 모두가 여래의 지혜와 덕성을 원만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찌 이리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성스러운 진리로써 그들을 가르쳐 잘못된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버리게 하리라.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광대한 지혜가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하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얼핏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후 지혜의 눈을 뜨고 본 세상은 분명 이전의 세상과 많이 다르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뭔가 신비해서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지혜의 눈을 뜨고 본 세상은 이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숲, 새, 꽃, 짐승은 그대로였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처님은 지혜의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중생을 떠올렸습니다. 이전엔 중생이 무명에 휩싸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인줄로만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중생은 무명의 존재가 아닌, 깨달은 당신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부처님처럼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중생이 부처님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존재로, 이미 지혜의 덕성이 원만히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들이 어리석어 그 점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머니 속 보석

〈법화경〉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친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거지가 구걸을 떠났다가 부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수준이 비슷했던 둘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부자 친구는 장사와 모임으로 바빠 외국을 다니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거지 친구는 구걸해 먹고 사는 처지가 됐습니다.

몸에 뼈와 가죽만 남은 초라한 행색으로 하룻밤 묵길 청하는 거지 친구를 본 부자 친구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모처럼 편하게 먹고 마신 거지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부자 친구가 약속이 생겨 외출하려는데 이 모습을 봤습니다. 안쓰럽게 잠든 친구를 위해 부자 친구는 거지 친구가 평생 여유롭게 먹고 살만큼의 보석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술에 취해 잃어버릴까 염려해 윗옷 주머니에 보석을 넣고 바느질로 잘 꿰매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술에서 깨 부자 친구 집을 나온 거지 친구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계속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연히 부자 친구와 마주쳤을 때, 부자 친구는 여전히 거지꼴인 친구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석을 줬는데 왜 여전히 구걸하며 살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자 친구의 물음에 안주머니를 뒤져보니 거기엔 보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 거지는 충분히 보석을 발견하고 부자로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구걸 이외의 삶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눈치 챘겠지만 거지 친구는 중생을, 부자 친구는 부처님을 비유한 존재입니다.

어렸을 땐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부자는 열심히 인생을 개척해서 잘 살게 됐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단지 열심히 능력을 개발한 사람만이 훌륭한 결과를 얻습니다. 이 가능성을 '불성'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들 안주머니에 값진 보물이 들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겐 부처님의 덕성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어디로 방향을 잡고 공부하느냐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논리도 통합니다. 어느 분야라도 노력하지 않고 전문가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면, 우리의 일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결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몫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보물을 그대로 썩히는 꼴이 됩니다.

이기심 버리고, 세상과 함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많은 일들을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내 취향이 아니야' 등을 이유로 포기한 채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보면 미련으로 인해 번뇌가 많아집니다. 번뇌가 깊어지면 고민이 되고, 고민이 심해지면 고통이 됩니다. 이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면 삶은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 '나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선 깨달은 이후에 고뇌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대자대비심(大慈大悲心)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자대비가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고통과 번뇌가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속 고통을 버리려면 부처님처럼 대자대비의 배려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 입장에서 이해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가 바로 자비심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났단 생각에 나를 너무 앞세웁니다. '아상(我相)' 때문입니다. 나란 존재를 내 마음 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앞세우는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망에 가득 찬 탐욕스러운 '나'를 내려놓는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경계를 받아들이는 수행법을 익히면 갑자기 경계가 풀리면서 모든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경계, 상황, 상대방, 사건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들을 다 받아들일 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아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남편, 아내,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주장만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함께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나의 판단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세상 누구와도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 속을 썩이는 일도 없게 됩니다. 흔히 자식은 전생의 빚쟁이나 원수라고들 말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부모 마음에 드는 자식이 별로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들은 일생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부모라는 생각을 먼저 내세웠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자식은 본인 나름의 뜻과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부모 말을 안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마음이 일치가 될 수 없는 것은 전혀 고민거리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내 말을 들어주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할지 생각만하고, 자식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을 인정하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니 자식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해가 돼도 실천이 어렵지요?

우리들 욕구를 채우고, 우리 욕망 중심으로 살아온 몇 십 년 세월이 한 번에 바뀌긴 힘듭니다. 업보가 몸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업을 소멸하려면 굉장히 큰 깨우침과 수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큰 수행으로 전환이 없으면 인생은 죽는 순간까지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자식이 원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쁜 며느리를 그대로 예쁘게 볼 수 있는 시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아상(我相)·인상(人相)·중생상(衆生相)·수자상(壽者相)을 내려놔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입니다. 속는 셈 치고 믿어보십시오. 앞으로 모든 세상을 대할 때 우리 생각을 내려놓아보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 판단이 서도 일단 그 마음을 접고 오직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 화가 나더라도, 그것은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하고 여유롭게 바라보십시오. 성질이 급해 당장 화를 내고 마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뺨을 때리는 행동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식은 우리를 더욱 미워하고, 우리는 자식을 건방지다고 생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의 덕성을 지닌 우리는 화를 가라앉히고 내 안의 양심을 발동해 화내는 가짜 나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탐진치에 놀아나는 나를 내려놓고, '양심적 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양심의 내가 화내는 나를 제압해야 삶이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은 마음 닦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꾸 수행하면 이것이 습성이 되고, 선업으로 굳어져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바라보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도림선사에게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을 만한 법문을 요청했습니다. 도림선사는 '작은 악업도 짓지 말고, 작은 선업이라도 행하라(諸惡莫作 衆善奉行)'고 대답했습니다. 백거이는 '세 살 먹은 어린이도 다 아는 말'이라며 실망했지만 도림선사는 '비록 세 살배기가 알아도, 팔십 먹은 노인조차 행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과 화합하려는 마음을 지키고, 수행을 통해 '내려놓음'을 실천해 부처님과 닮은 삶을 사십시오.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50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6년 9월 5일 (월요일) 오후 3시 (복타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총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계사, 병접재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계율을학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2016년 불교학과 49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 불교학과 [9월 3일(토) 오후 5시 개강]

▶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 CD배송

학 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과 목	1. 근본불교 2. 반야심경 3. 유식불교	4. 대승불교와 천수경 5. 아미타경과 정토 6. 화엄경	7. 부처님생애와 인도불교 8. 중국·한국불교 9. 법화경	10. 불교의 체계적 이해 11. 불교문화 12. 선불교
교수진	법산스님(본대학장)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주명철교수 정성준교수 종석스님 정엄스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박종교수 차차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활안스님 김호귀교수 정병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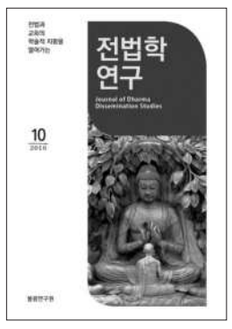
■ 모집인원(불교학과) | 12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6년 8월 1일 부터 ■ 문 의 | 02)732-1206 ~ 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 선·명상학과 (2년과정) 개강 [9월 8일(목)] ✲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 개강 [9월 8일(목)]
✲ 불교다도학과 (2년과정) 개강 [9월 6일(화)] ✲ 불교대학원 (3년과정) 개강 [9월 6일(화)] 삼국유사, 마하왁가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사무처 : (우) 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www.dongsanbud.net

‘미디어·저출가’ 등 불교적 해법 찾다

불광연구원, 〈전법학 연구〉 10호 발간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불교 전법의 학문적 진흥을 위해 발간하는 〈전법학 연구〉 10호가 7월 30일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미디어환경 변화와 불교 출판 · 잡지의 미래’를 주제로 한 논문 4편, ‘감동적 법회와 설법의 구성과 내용’을 다룬 논문 5편, ‘저출가 시대와 한국불교의 미래’를 진단한 논문 4편 등 총 14편의 논문과 전법리뷰 1편이 수록됐다.

첫 번째 특집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불교출판 · 잡지의 미래 전략’으로 지난 4월 27일 월간 〈불광〉 지령 500호를 기념해 열린 연찬회의 성과를 담았다. 연찬회에서 발표된 ‘한국불교 출판시장 분석과 미래전략’(장은수), ‘디지털 시대, 출판 잡지의 동향과 트렌드’(이중호), ‘연결의 시대, 미디어 지형도 및 콘텐츠 소비 성향의 변화’(김경달)등의 논문이 게재됐다.

두 번째 주제 ‘감동적 법회를 위한 설법의 구성과 내용’에는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설법방법에 대한 논문인 ‘붓다의 설법론: 초기경전상의 붓다 설법의 원리와 방법’(조준호), ‘대승경전에 나타난 설법의 내용과 방법’(남수영)을 비롯해 현 시대에 적용가능한 설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효과적 메시지 전달과 청중의 몰입을 위한 설법방법론’(백도수), ‘생활밀착형 스토리텔링으로 삶의 이정표 제시해야’(박상건) 등이 실렸다.

세 번째 주제인 ‘저출가 시대와 한국불교의 미래’에는 ‘출가자 감소의 대내외적 원인과 대책’(박수호), ‘저출가 시대 승가의 위상과 역할 변화’(유승무) 등이 게재됐다.

신성민 기자

불일아카데미 ‘삼국유사와 자장’ 강좌

5기 신입생 모집… 오는 9월 1일 개강

삼국유사와 자장율사를 조명하는 인문 강좌가 열린다.

서울 법련사(주지 진경)는 오는 9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경내 불일문화회관에서 3개월 과정의 제5기 불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수강료는 15만원.

불일아카데미는 인문학 강좌로 진행된다. 주제는 ‘삼국유사, 자장과 신라불국토로 떠나다’이며, 강사는 정진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강좌를 통해 ‘자장율사’로 알려진 자장스님의 신라불국토 프로젝트에 선덕여왕과 미실, 진덕여왕이 가세하여 신라불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과정을 살핀다.

정 교수는 앞서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와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의 두 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과정에서는 일본 속 삼국유사의 자취를 찾아보는 답사 프로그램도 기획 중에 있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생태적 삶을 부처는 어떻게 보았나

생태콘텐츠硏 9월 강좌
조계종 연수교육 인정도

생태적 삶이 부처님 가르침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는 강좌가 열린다.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는 오는 9월 21 · 23 · 28 · 30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생태적 삶,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주제로 강좌를 개최한다.

조계종 연수교육으로도 인증되는 이번 강좌는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및 종단 등록사찰 주지스님은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재가자도 참여할 수 있다. 수강료는 10만원.

연구소는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로 인류는 기후변화 등의 위기에 직면했다. 여기에는 인간이 가진 탐욕의 총체를 만날 수 있다”면서 “이번 강좌는 현실 환경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해결점을 불교에서 찾고 실천의 계기를 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10)8020-1123 신성민 기자

“비판불교는 이분법 논리… 다양성 허용 안해”

금강대 불교문화硏, ‘불성 · 여래장’ 국제학술대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성 · 여래장 사상의 형성,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인도에서 기원 · 전래돼 동아시아 불교 사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성 · 여래장 사상이 어떻게 수용 · 변용됐는지를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성 · 여래장 사상의 형성,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불성 · 여래장 사상 연구 분야에서 선구적 연구를 이끌고 있는 석학들이 대거 참여해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성 · 여래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비판불교’를 재비판하는 논문들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대승대반열반경〉 여래장 사상에서 해석학적 문제’를 발표한 시모다 마사히로 도쿄대 교수는 ‘비판불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모다 교수는 “비판불교를 주장하는 책과 논문들은 방대하지만 주장의 기저는 동일하다”면서 “하나는 문제가 다분한 이분법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언어적 표현을 넘어선 명상 경험의 중요성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다분한 이분법에 대해서는 대승불교 내 다양한 사상에 담긴 이론적

여래장 해석학적 접근 시도한
시모다 교수 ‘비판불교’ 재비판
“비판불교는 이론적 맥락 간과”

불성 · 여래장 변용 수용 과정
각 분야 세계 석학들 논의해

맥락의 다양성을 ‘비판불교’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시모다 교수는 “대승불교에서 파생된 많은 개념과 사상은 이분법적 논리로 파악할 수 없는 맥락들이 있다. 일견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용어들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의미의 다양한 층위 내지 국면으로 기능한다”면서 “비판불교 주창자들은 다양성에 따른 의미의 차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판불교의 특징 중 하나인 비언어적인 명상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는 “언어와 명상 경험의 관계에 대한 고려를 불교학의 주제 영역에서 몰아낸다면 불교의 중요한 부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지혜인 ‘반야’에 대해서 관련된 언어 요소를 자세히 논의할 수 있다고 해도 계율과 명상 경험인 ‘삼매’를 박탈한다면, 전체 불교 체계는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야마베 노부요시 와세다대 교수의 ‘다시 한 번 기체설(基體說)에 관하여’를 비롯해 △안성두 서울대 교수의 ‘〈보성론〉과 몇몇 유가행파 문헌들에 공통된 세 비유’ △카노 카즈오 고야산대 교수가 ‘인도에서 〈보성론〉의 수용’ 등이 각각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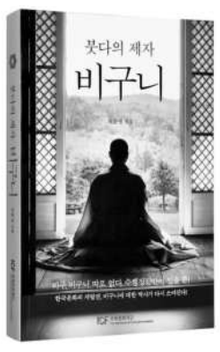
이어 둘째 날에는 △로버트 H. 샤프 버클리대 교수가 ‘불성과 초기 선(禪)’ △차상엽 금강대 교수가 ‘중국불교와 티베트 불교 속 여래장의 세 가지 의미’ △도르지 왕축 함부르크대 교수의 ‘롱소빠의 여래장 사상’이 발표됐으며, 이후 조성택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비구니 스님들의 모든 것을 담아내다

하춘생 교수, 연구서 〈붓다의 제자 비구니〉 발간

초기 비구니 승가 성립부터
韓비구니 역사 · 문중 등 망라
내년 영문 번역… 해외 보급



불교 역사에서 비구니 승가가 가지는 지위는 크다. 특히 한국불교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수행과 포교 · 전법,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이 같은 비구니 승가의 역사와 현황 등을 망라한 연구서가 발간됐다.

하춘생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과정 주임교수는 비구니 스님들의 면모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연구서 〈붓다의 제자 비구니〉를 내놨다.

불교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하 교수는 오래 전부터 비구니 승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최초의 ‘한국의 비구니열전’이라고 할 만한 〈깨달음의 꽃: 한국불교를 빛낸 근세비구니(전2권)〉를 펴내 ‘한국의 비구니문중 연구’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연구서 〈붓다의 제자 비구니〉는 하 교수의 연구를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폭 넓고 쉽게 기술했다. 개론서에 가깝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의 여정과 그 성성한 숨결을 만나기에는 충분하다.

책은 총 5개의 챕터로 이뤄진다. 첫 번째 장인 ‘비구니는 누구인가’는 출가의 개념부터 수행은 무엇인지, 최초의 비구니에 대해서 친절하고 쉽게 기술했다. 두 번째 장인 ‘비구니가 되는 길’은 득도수계, 수계의식의 역사적 변천과 수계 전통의 복원과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세 번째인 ‘역사 속 비구니’는 부처님이 아낀 비구니 제자부터 한국불교 전래와 첫 여성 출가, 한국사에 기록된 비구니 등 역사 속에 나타난 비구니 스님들을 조명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구도 · 강학 · 지율 · 수선 · 포교 · 복지 · 문화 등 현재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마지막 장인 ‘비구니문중과 그 원류’이다. 저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내 현존하는 11개 비구니문중을 중심으로 문중성립의 인연과 문중본찰 49개 사암 및 기타 문중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에 대해 하 교수는 “구도와 교화현장에서 열정을 불사르며 전법 · 수행과 교육 · 복지 · 문화에 이르기까지 비구니들이 보여주고 있는 역동성과 생명성에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희구(希求)를 담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로서 불교 교단을 위시한 종교계가 지목되고 있는 현실이 얼마만큼 부조리한지를 깊게 인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국제문화재단이 펴낸 〈붓다의 제자 비구니〉는 내년 영문으로 번역돼 해외 유수대학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신라사본과 원효’ 주제 한 · 일 공동학술대회

동국대 불문연 · 가나자와문고 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과 한국사상사학회, 일본 가나가와현립 가나자와문고는 ‘신라사본과 원효’를 주제로 8월 19일 오후 1시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 내 불교학술원 강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1부 신라사본, 2부 원효를 주제로 나눠 열린다. 1부 신라사본에서는 △김병곤 미노부산대 교수의 ‘원홍(圓弘) 〈묘법화엄론자주(妙法華嚴論子注)〉의 새로운 이해’ △박광연 동국대 교수의 ‘쇼묘지 소장 가나자와문고 보관 의적(義寂)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의 기초 연구’ △도치 아야노의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의 텍스트 연구’가 발표된다.

2부 원효에서는 △오카모토 잇페이 케이오기주쿠대 교수의 ‘원효 〈대혜도경종요(大慧度經宗要)〉의 기초 연구’ △김천학 동국대 교수의 ‘쇼묘지 소장 가나자와문고 보관 원효 〈대승기신론별기(大乘起信論別記)〉’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핸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핸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1200년 긴 잠서 깬 청량 국사 〈화엄경 소초〉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 총 230권 완역

10년 7개월 동안 번역해
8월 1일 완역 순간 맞아
가장 방대한 화엄경 해설서
"전 세계서 처음 있는 일"

"장대한 광장설에는 한 글자도 없었고, 사사무애 진실한 뜻에도 또한 한 뜻도 없었다. 능전과 소전이 함께 사라진 때에, 시간 밖의 한 경전이 영원히 광명을 놓는 도다."

8월 1일 오후 11시 57분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펜을 놓으며 위 게송을 읊었다. 10년 7개월 동안 번역해 온 〈화엄경 청량소초〉를 완역한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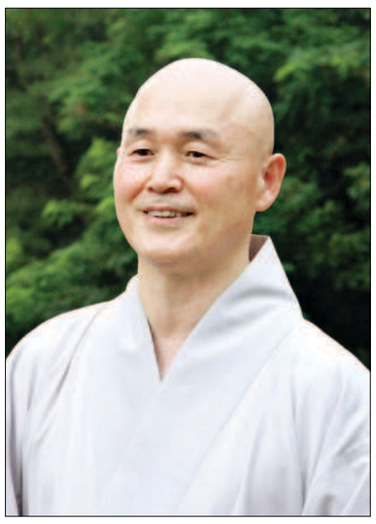
〈화엄경 청량소초〉는 중국 당나라 화엄종 제4대 조인 청량 국사(澄觀, 737~838)가 저술한 논서로 화엄경 80권을 본으로 삼고 소가 60권 초가 90권, 총 230권인 가장 방대한 화엄경 해설서다. 우리나라엔 1000여 년 전 들어왔지만 전통 강원서 가끔 사용될 뿐 번역된 바가 없었고, 전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로 알려진다.

수진 스님은 이번 번역 작업에 대해 '은혜를 갚는 일'이었다고 소회했다. 스님은 "이 논서를 완역함으로 부처님과 은사이신 문성 스님, 그리고 부모님께 그 은혜를 갚은 것 같다"며 번역을 시작한 또 다른 이유로 "화엄 사상이 곧 현시대 불교와 사회의 답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진 스님은 "화엄 불교가 살아났을 때 한국 불교가 살아난다. 이는 소통이 필요한 한국 사회에 답이 될 것"이라며 "화엄은 화쟁 사상으로 종단 안팎에 상생을 제시하고, 노사 간의 대립 등 여러 사회 문제에도 답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번역본이 없던 것은 청량 스님의 글을 해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번 번역은 우리나라 종단의 자존심이자, 불자들에겐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엄경 청량소초〉는 양 뿐만 아니라 불교와 인문학적 내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수진 스님은 "불세출의 걸작인 〈화엄경 청량소초〉는 동양 사상서도 종합대백과 사전과 같은 책이다. 대승불교 뿐 아니라 선종과 초기불교까지 인용해 내용을 다루고 있어 불교의 전반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자와 장자, 유교의 사서삼경과 제자백가, 주역까지 모두 동원해 저술한 책이며, 천문학과 지리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비종교적 부분서도 인문학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지난 8월 1일 〈화엄경 청량 소초〉 번역을 마무리했다. 이 책은 불교 뿐 아니라 인문학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며 앞으로 책이 출간 되면 화엄경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스님은 이번 번역본이 책으로 출판되기 위해선 5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10만매에 달하는 방대한 원고를 정리하고, 출판에 필요한 편집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수진 스님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사)조계종부산연합회가 주관하는 '병신년 재가 안거 하안거'가 오는 8월 17일 해제한다. 해제법회는 참가 단체 및 각 조계종 사찰서 각기 진행하며, 그동안의 수행과 성과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2014년 동안거를 시작으로 열린 조계종부산연합회 재가안거는 매년 동안거와 하안거 두 차례 안거철에 맞춰 진행된다. 2014년 당시 16개 조계종 사찰서 1500여명이 함께 동참했으며, 현재 포교사단 및 조계종 19사찰 2000여명이 입재해 수행 풍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진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전국승가대학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재편찬위원회 위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위원회 위원, 제11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해인정사 주지이며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 석좌교수,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 선원장을 맡고 있다.

하성미 기자

포산당 혜인대종사, 49재 회향법회

8월 10일 은해사 수련관 육화원서


포산당 혜인대종사의 49재 회향법회가 8월 10일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경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육화원서 봉행됐다.

은해사 조실 포산당 혜인대종사의 49재 회향법회가 8월 10일 은해사 템플스테이 수련관 육화원서 봉행됐다.

원명 스님이 집전을 맡은 이날 법회는 관욕 및 사시마지 예불에 이어 생전 육성법문, 종사 영반, 헌화와 헌향, 법문 등으로 진행됐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인연에 따라 생과 사가 윤회로 돌아가고, 당당한 자성 그 자리서 참면목을 볼 수 있으니 바로 이 도리를 깨쳐 알아가자"는 법문을 했다.

제10교구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큰 스님 가신 자리가 너무 크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새겨서 우리 후학들이 더 발전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원적한 큰스님을 예경하는 마음을 전했다.

이날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해인총림 전계사 종인 스님, 해인총림 율학승가대학 원장 서봉 스님, 백양사 회주 법안 스님, 동곡문도회 대표 혜국 스님,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 관장 돈명 스님 · 주지 돈관스님,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해 혜인 스님을 추모했다.

포산당 혜인대종사는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한 평생 신심과 원력의 삶을 표상하며 수행정진 했다. 2012년 은해사 조실로 추대됐으며, 지난 6월 23일 은해사 기기암 선원에서 세납 75세, 법랍 62세로 원적에 드셨다.

한편 은해사 동곡문도회는 혜인 스님의 재비를 절약해 마련한 2000만원을 승가복지기금으로 써달라며 동국대 의료원에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쌍계사, 자비와 평화 기원하는 방생대법회

8월 19일 오전 9시 30분 고성 당항포에서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원정)는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민족화합을 기원하는 '제 26회 자비방생 대법회'를 8월 19일 오전 9시 30분 고성 당항포 공룡 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한다.

쌍계사가 주최하며 제13교구 본말사암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법회는 쌍계사 방장 고산 대종사를 비롯해 제13교구 본말사암 소속 54개 사찰 및 신도 25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개식 선언에 이어 헌화, 대회사, 고산 대종사의 법어,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방장 고산 스님을 비롯한 동참 대중 전원은 물고기를 방생하는 의식을 가지며 평화를 기원한다. 쌍계사는 "방생을 통해 일깨운 자비심은 평화의 근본이며, 나아가 민족과 세계를 위한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쌍계사는 지난 1992년부터 매년 하안거 해제 직후 자비방생 대법회를 봉행해 왔다.

하성미 기자

음악과 함께 부처님 말씀 들으며 '더위 탈출'

통도사, '음악과 함께하는 부처님 말씀' 개최

푹푹 찌는 여름 더위를 피해 '쉼'을 찾아 통도사(주지 영배)를 방문한 사람들이 영축산 계곡을 가득 채웠다. 삼삼오오 모인 가족들은 나무 그늘 아래 땀을 식혔고, 시원한 물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경내에 울려 퍼졌다.

더위를 피해 산중을 찾은 이들을 위해 통도사가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했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8월 7일 경내 해장보각 앞 쉼터서 '음악과 함께하는 부처님 말씀'을 개최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신도 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은 관현악단의 음악에 맞추어 통도사 총무국장 도문 스님이 〈법구경〉의 말씀을 들려줬다.

총무 국장 도문 스님은 "법구경은 누구나 편하게 듣고 접할 수 있는 내용이며, 마음 깊이 울림을 주기에 선정했다"며 "음악과 함께 스님이 직접 읽어 주는 부처님 말씀은 마음에 시원함과 함께 참된 휴식을 안겨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도사는 경내 해장보각 앞 쉼터에서 '음악과 함께 하는 부처님 말씀'을 진행하고 있다. 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이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이날 행사가 시원한 여름 선물과 같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흥균(대전 · 53) 씨는 "시원한 휴가를 위해 가족들과 통도사를 찾았는데, 음악도 나오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더욱 색다르다"며 "기대치 않은 선물을 받은 것처럼 행복하다"고 했다.

이현옥(부산 연지동 · 62)씨는 "너무 더워 힘이 들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며 행복을 얻었다"며 "법회서 듣는 법문도 좋지만 이렇게 음악과 함께 들으니 진정한 쉼을 얻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음악과 함께 하는 부처님 말씀'은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에 진행되며 관현악단, 클래식, 성악곡 까지 다양한 곡들이 마련된다. (055)382-7182

하성미 기자

허 왕후 고향, 인도 첸나이서 온 학생들

국제 청소년 예술제 참가 위해… 불교 유적지 관람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州)의 주도 첸나이는 허황옥 왕비의 고향으로 알려진다. 문헌에 따르면 허 왕후는 부산 김해 가야국의 시조인 김수로 왕과 결혼했다. 가야국에 올 당시 함께 온 장유화상(허황옥 왕후의 친 오빠)은 스님으로 가야국에 최초로 불교를 알렸다고 한다.

허 왕후의 고향 인도 첸나이시 아요디아서 청소년과 학부모 및 교사 20여명이 8월 4~9일 한국을 방문했다. (사)K-ART국제교류협회(이사장 허숙)가 주최하는 '2016 국제 청소년 예술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방문단은 일정 가운데 김수로 왕릉 및 범어사, 경주 불국사, 흥법사, 안국선원 등 사찰과 유적지를 찾았다. 한국의 불교문화를 접하고 허황옥 왕비의 발자취를 찾기 위한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한국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특히 채식만 고집하는 이들은 사찰 음식에 찬사를 보냈다.


인도 학생들이 가야 김수로 왕의 유적지를 관람하고 있다.

쉬리야(15) 학생은 "한국 사찰의 아름다움을 보며 허 왕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며 "특히 불교 전파 경로를 알게 되니 한국이 더욱 친밀하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말했다.

허숙 K-ART국제교류협회 이사장은 "인도 학생들이 미술 교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이 처음이라 더욱 뜻 깊다"며 "허 왕후로 인해 맺어진 인도와 가야의 인연과 한국의 불교를 보여주니 그들에게 더욱 감동적인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실상예불선으로...

불자 여러분 이땅의 아픔과 갈등의 치유를 발원하옵니다.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部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然
(생야일편무운기) (사야일편부운멸) (부운자체본무실) (생사거래역여연)

삶이란 한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오. 죽음이란 한조각 구름이 없어짐이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것 죽고 살고 오고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출처 : 서산대사해탈의시

영가(정신착란증)에 시달리면 고생하시는 분
사람이면서 사람 행동을 못하시는 분은
실상예불선을 받들어 수지 독송 하시며
부정을 긍정으로 불안한 마음을...

1. 관찰한다
2. 영적인 본질을 보는것
3. 부처님은 다알고 계신다.
4. 계속되면 스님을 친견하기시 바랍니다.

예약 : 총무 010-4566-4504



(社)護國佛教曹溪宗 총무원장 유심성도 jogyejong.kr

• 총무원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1번길 16 부산역 앞 관음정사
전화 051)468-5657 | 팩스 051)442-5659 | 모바일홈페이지 http://jogyejong.kr
부설단체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 시신 및 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 본 디스크의 내용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051)442-5658]

감 독 : 관음 박몬비
조감독 : 무념 도감원, 천곡 강모종
사진촬영 : 보교기획
제 작 : (주)예인미디어 / 녹 음 : 그냥해 STUDIO
기 획 : 유심스님 / 요 령 : 봉덕스님
목 탁 : 혜명스님 / 염불선, 징 : 유심스님

판매처 : 부산불교전시관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330-152번지 / ☎ 051)644-8092

“지역불교 화합, 발전가능성 극대화”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



승가는 사전적으로 중(衆)·화합중(和合衆)을 의미한다. 승가는 교단생활을 하는 화합한 대중을 가리키며, 줄여서 승(僧)이라고도 한다. 종단도 하나의 승가이고, 각 교구별로 또 작은 승가가 존재한다. 지역별로 본다면 지역사찰과 암자들의 모임이 승가에 해당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불교연합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창립과 함께 회장에 취임해 3년째 혁신적인 승가의 활동을 펼치는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광주지역 내에서 단연 화제의 주인공이다. 스님이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의 역량도 있지만 그보다 지역스님들과의 화합과 올바른 승가단체의 활동 때문이다.

“개인의 나무를 키우는 것보다 불교의 숲을 가꾸는 것이 더 큰 힘이고 바른 포교입니다. 숲에서 한 나무만 대단히 크는 것보다, 다 같이 크는 것이 더 많은 그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불교연합회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역 사암 연합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가장 중심에 있는 사업은 모두가 참여하는 봉축행사다. 연광 스님이 회장에 취임하기 전 광주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내홍과 불신이 존재했다. 급기야 2013년에는 해방 후 50여 년간 이어진 봉축행사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해 10월 불교 주요종단 연합체이자 출가단체인 광주불교연합회가 새로 결성됐다.

“광주불교연합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성도재일 행사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입니다. 봉축행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많은 신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행사가 되어야 연합회가 튼튼해집니다.”

연광 스님은 연합 봉축행사의 활성화와 내실화가 지역사찰과 단체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 기본이 된다고 강조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큰 봉축행사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광주지역 불교활동가들로 구성된 기획단을 만들어 전문적인 봉축행사 진행의 첫걸음을 디뎠다. 이후 지역불교에서는 드물게 전통등 만들기 보급을 3년째 지속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역불교 화합 매진
봉축·성도재일 행사 발전 거듭
운영위원회 대중공사가 밑거름

여기에 올해에는 서울 봉축행사의 백미인 전체율동과 연희단을 사찰별로 만들어 흥겨움을 더했다. 효과는 대단했다. 최근 10년 이내의 참가자 평균에 2~3배가 넘는 참여도가 나왔다.

이렇게 적극적인 지역불교활동을 펼치는 연광 스님이 강조하는 덕목은 ‘화합과 희생’이다.

“화합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혼자 산에서 자기 수행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도시에 나와 사찰 주지로서 포교하는 것은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특히 수행을 통해 자비심이 나오고, 화합과 희생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현재 연광 스님은 광주불교연합회 행사 외에도 지역불교 최초로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를 부설단체로 설립해 지역불교발전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네팔 지진피해 돕기를 지역불교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해 총 9600만원을 피해지역에 전달했다. 불교단체실무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개설한 ‘모금 강좌’도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불교의 문제는 스님들 개인은 잘 살지만, 서로의 장점을 융합하지 못한 점입니다. 제가 할 일은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재가활동가들을 위한 활동 마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광 스님은 연합회 회장직과 더불어 증심사 주지, 조계종 제21교구종회의원직을 겸하고 있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연합회와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한다.

“회장 직책은 그 기간이 한정돼 있어 때가 되면 물러나지만, 회장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운영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연합회에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있다. 중요한 일은 운영위원회 대중공사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연광 스님은 “매월 지장재일 오후에 열리는 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날이다. 여기에 역량 있는 불교활동가를 실무진으로 배치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캐나다 현직 교사들, 대흥사서 불교문화 만끽
1박2일 템플스테이로 심리적 위안



사물을 감상하는 캐나다 교사들.

캐나다 현직 교사들이 한국의 전통산사를 찾아 화제다.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는 8월 6~7일 캐나다인 25명이 참여한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행사는 한국에 관심 있는 캐나다 현직 교사들이 직접 대흥사 템플스테이를 선정해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한국 방문과 함께 산사체험의 기회를 갖고자 땅끝 해남 대흥사를 찾았다. 이들은 입재식과 회주 보선 스님의 법문, 불교예절, 산사음악회, 예불, 명상, 트레킹 등을 체험했다.

보선 스님은 법문에서 “진정한 불자라면 팔정도를 생활화해야 한다. 팔정도를 잊어버리면 불교신자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른 모든 종교에도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팔정도야말로 인류와 모든 생명의 존엄을 실천하는 가르침이다”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캐나다 현직 교사 피터 아귀알 씨는 “한국의 오래된 전통사찰에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고, 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아름다운 사찰을 보게 돼 정말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지구촌 빈민촌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위한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40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합동 대법회]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국회의원 회관 / 오후 1시 30분

전계대화상 :
世界佛教徒의 法王 –
우 꾸마라 사야도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Dr. Bhaddanta Kumarabhivamsa
Bhamo Sayadaw
Agga Maha Saddhammajotika
Agga Maha Pandita
Chairman of the State Sangha Maha
Nayaka Committee

■ 교수아사리 : 살아있는 팔만대장경의 화신 제13대 에인다 빠라 삼장법사. 연방승가회 부회장 사야도
■ 갈마아사리 : 법왕청 법왕 보좌 비서실장 – 목탁 대승정 | 짜익티오성 사야도

한국본부 전계대화상 | 교수아사리 | 갈마아사리

三師 108證明團합동 建幢(건당)의식 및 품수의식 봉행

400여 종단 한국불교 高僧 및 元老 큰스님!
정중히 공개적으로 추대하여 이 법석에 모시고자 합니다.

석가세존에게 테라와다 불교의 정법을 위촉받은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법왕님의 상좌 건당 및 품수 의식. 계첩에 이름을 올릴
3師 108 證明團에 韓國佛教 高僧 元老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 세계평화기원 대법회 봉행위원단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주 관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승려 60만의 불교나라 미얀마 최고의 큰스님과 부종정 사야도, 경전의 화신 13대 삼장법사, 짜익티오성 사야도와 상원의원 활동과 마얀마 신정부 경제특보이면서 수백억의 재산을 불교에 보시한 보시의 화신 닥터 킨쉐이 박사가 동참하여 성스런 불교의식을 한국에서 봉행합니다.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대한불교 108 종정연합회
대한불교 고승 장로단
세계불교 고시위원회
국제붓다봉사단
대한불교 종단 인권위원회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 협의회
대한불교 원로 장로단
대한불교 대종사 연합협의회

총괄본부장 : 아까마하 사다함마 저티카 하자 大僧正 목 탁 (법왕청 법왕보좌 비서실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 신영빌딩 3층 (삼봉로 68) • 문의 및 접수 : 02)733-5665. 010-3618-6061

여름방학 책임진 山寺들의 체험여행
금산사·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 어린이 프로그램 실시

전북지역 주요 사찰들이 여름방학과 휴가를 이용한 다양한 어린이 청소년 산사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어린이 청소년 여름 산사수련회는 참선수행과 명상, 물놀이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8월 9~11일 ‘나도 쉬고 싶다’는 주제로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템플스테이는 예불, 천자문 읽기, 행복 108배, 염주만들기. 전통놀이, 물놀이, 영화감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금산사 여름템플스테이는 모악산 계곡 물놀이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여 참가 어린이들의 호응이 매우 컸다는 후문이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는 8월 5~7일 부안 내소사에서 제22회 어린이 여름생태학교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지역 60여 명의 어린이들이 동참한 이번 여름생태학교는 다양한 자연체험과 숲 명상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넓고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자리로 꾸며졌다.

내소사 대웅전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예불, 영어명상, 전래놀이 체험, 나와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먹거리 만들기, 즐겁게 배우는 통일이야기, 영어게임, 직소폭포 트레킹, 물놀이 등 도심 속 어린이들이 자연의 품속에서 맘껏 뛰놀면서 자연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8월 5~7일 부안 내소사에서 진행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어린이 여름생태학교.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천년고찰 내소사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길 바란다”며 “다가올 미래세계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어린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전주 참좋은우리절, 남원 실상사 등도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가는 길’ 전봇대 없애 경관 살린다
고창군, 선운사 일주문~도솔암 6km 구간 지중화사업

앞으로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자연경관을 해치던 전봇대와 전깃줄이 사라져 더욱 아름다운 사계를 만날 수 있게 된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선운사도립공원 내 경관을 해치는 전선과 통신주 등을 제거하고, 필요 선로를 지하로 매설하는 2차 지중화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고창군은 선운사 일주문서 도솔암에 이르는 6.15km 구간의 전봇대와 전깃줄 등을 모두 없애고, 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중화 1차 사업을 시작, 선운사 일주문부터 도솔암 구간 5km에 걸친 전봇대 등을 모두 철거했다.

나머지 일주문과 매표소 인근 1.15km 구간도 11억 원의 예산으로 올 하반기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운사 지중화사업은 고창군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KT·SK·LG가 총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선운사 자연경관이 한층 더 아름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운사가 자리 잡고 있는 선운산은 기암괴석이 많고, 풍광이 뛰어나 ‘호남의 내금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시사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선운사 일주문에서 시작된 ‘선운사 가는 길’은 아름다운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등이 호위하듯 서 있는 아름다운 숲길로 1년 내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하지만 일주문서 도솔암에 이르는 구간 곳곳에 전기시설 등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전봇대와 전깃줄 등이 사라진 ‘선운사 가는 길’ 구간.

고창군 관계자는 “지중화사업을 통해 선운산의 옛 모습을 복원하고, 유네스코 생물보전권 핵심지역 청정이미지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답게 행동하는 존재가 바로 '부처'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⑥1 독각시대왕과 심우도에 대한 소고

앉을 자리가 없는데 앉으려 한 것에 대한 삼쾌선생의 해석이 좀 과장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듯 하네요. 그렇지만 서유기에 분명 이러한 해석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런 게송이 나오거든요.

'도가 한자 높아지니 장애는 한길이 높아지고 성정이 어지럽고 어두워지니 머물 곳을 혼동하는구나. 법신에는 앉을 자리가 없음이 유감이로구나. 그 때의 행동이 한 생각 어그러진 것이로세.' (道高一尺魔高丈, 性亂情昏錯認家, 可恨法身無坐位, 當時行動念頭差.)

법신에 앉을 자리가 없다! 이 한 구절이 천고의 비밀을 드러내주고 있다고나 할까요? 앉을 자리가 없는데 앉을 곳을 찾았으니, 그 행동의 과보를 받을 수밖에요. 그것이 요괴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 그 다음 옷을 입은 것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 할까요? 물론 그것은 삼쾌선생의 해석입니다. 앉을 자리 찾아간 곳에 옷까지 놓여 있으니 자연 그것도 입어보고 싶겠지요. 의식주(衣食住) 아닙니까? 의식주! 지금 손오공은 밥 얻으러 갔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먹을 것을 찾아간 손오공이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함부로 주(住)와 의(衣)를 찾아 나선 것이지요.

그리고 머물 곳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고, 걸치지 말아야 할 것을 걸친 것이지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꽁꽁 묶여서 요괴 굴에 떨어지고 만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삼쾌선생의 해석이. 탁월한 해석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원효스님의 말씀을 끌어들여 볼까요?

원효스님이 말씀하신 일심이문(一心二門)의 틀에 의하면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생멸문(生滅門)에서 진여문(眞如門)으로 나가는 것이라 합니다. 생멸문과 진여문이 바로 이문(二門)이지요. 그게 무슨 문이냐구요? 생멸문은 말 그대로 생멸이 있는 현상세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기고 소멸함이 있는 세계, 차별이 있는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진여문은 그 반대입니다. 참다운 진리의 세계,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차별과 집착이 있는 세계에서 모든 차별을 넘어선 세계로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여 진여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려는 순간, 바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진여의 특징이 무엇이었던가요? '차별 없음'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아! 이것이 진여로구나. 나는 진여의 경지에 도달하였다!"한다면, 이것은 차별, 분별이 아닌가요? 진여와 생멸을 차별하는 차별, 그것마저 넘어서야 진정한 진여가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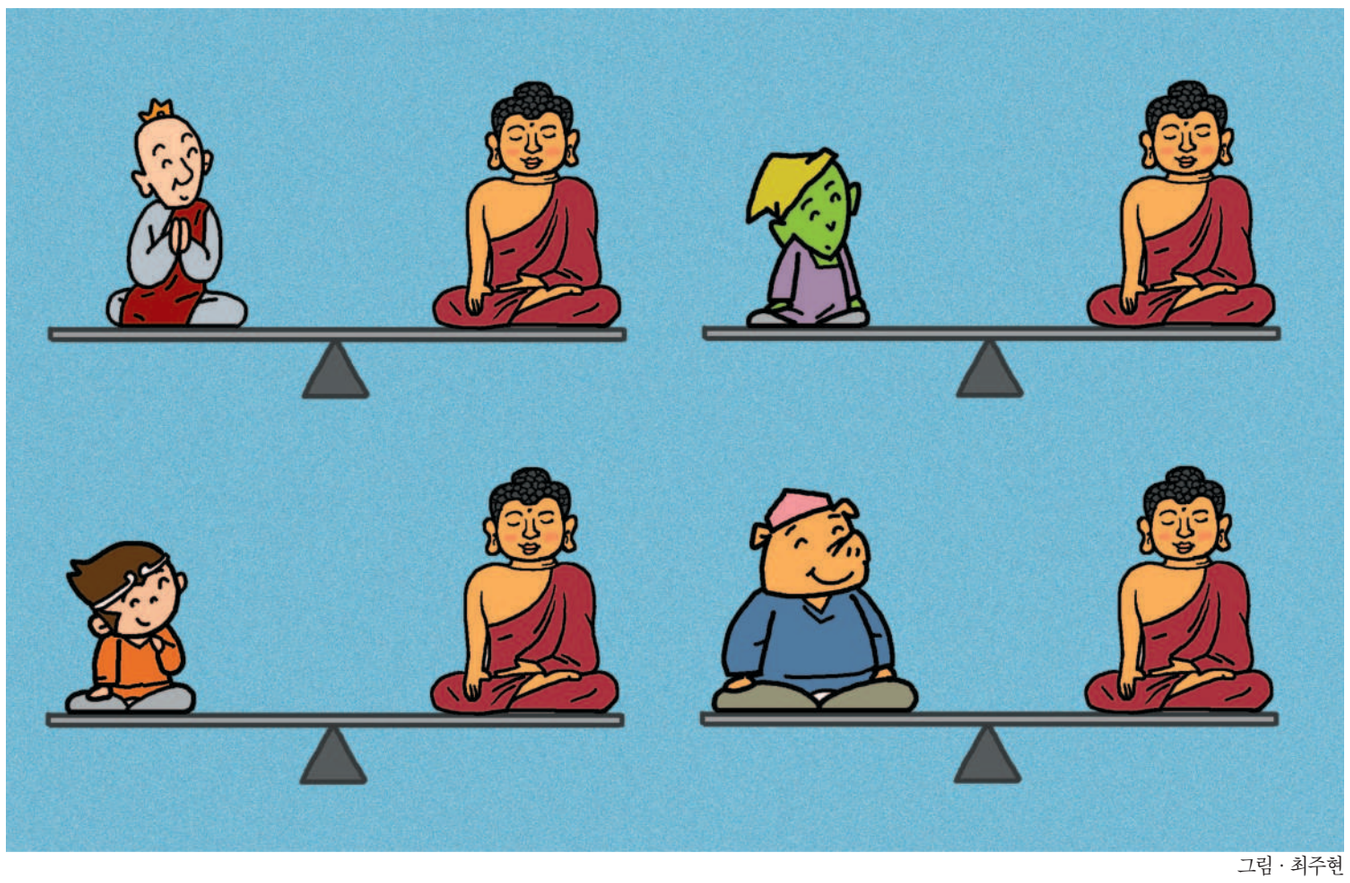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진여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송곳 꽂을 땅도 없어요! 그래서 진여에 도달하는 순간 바로 생멸의 세계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네요. 그렇지만 진여를 모르고 생멸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던 것과, 진여를 거쳐 생멸의 세계로 돌아온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생멸의 세계에 머물러 짓는 모든 업들은 괴로움을 낳는 업이지만, 진여를 거쳐 다시 생멸의 세계에 돌아와 짓는 업은 괴로움을 낳는 업이 아니라 불가사의한 업이라네요. 진여라는 자리에 가서 털썩 주저앉아서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요. 그것을 서유기의 저자는 "법신은 앉을 자리가 없다!"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슬쩍 그것이 유감이라는 문학적 표현을 곁들였겠지요.

앞에서 부처는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답게 행동함에 바로 부처다움이 있다는 말을 했었지요? 그 말과 연관지어 생각해도 좋을 것 같네요. 끊임없이 불가사의한 업을 지어나가는 존재, 항상 부처답게 행동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법신이라는 자리, 진여라는 자리에 가서 앉을 생각을 하는 순간에 바로 어그러져 버리는 것이지요. 궁극의 큰 길을 지향하는 가르침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편안함을 찾거나, 어디 눌러 앉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피곤한 것 아니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편안을 추구하는 순간 그만큼 갑자기 불편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불교와는 좀 다르겠지만 유교의 조종인 공자님의 말씀을 한번 끌어들여 볼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비는 뜻이 굳세고 크지 않아서는 안 된다. 임무는 무겁고 길

불교 수행은 '무차의 길'
손오공 욕망에 코뚜레 채워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의미

은 멀다. 어짐을 그 임무로 삼으니 무겁지 않은가? 죽은 뒤에야 끝나니 길이 멀지 않은가?" 이걸 불교식으로 바꾸면 어찌 될까요? 어짐은 자비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보살은 뜻이 굳세고 크지 않으면 안 된다.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다. 자비를 임무로 삼으니 무겁지 않은가? 죽어도 끝나지 않으니 얼마나 길이 먼가?" 마지막이 달라졌지요? 윤회를 말하지 않는 유교와 달리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해야 하는 보살의 길은 정말 끝없는 길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없는 길을 가야하는 보살의 길에서 현장법사 일행이 잠시 눌러 앉을 곳을 찾아 헤매는 바람에 요괴 굴에 떨어졌지요? 현장법사는 그래도 남의 물건은 손댈 수 없다 하여 옷은 입지 않았지만, 손오공은 밥 구하러 간 사이 저팔계, 사오정이 모두 꽁꽁 묶여 버리니 재주 없는 현장법사가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함께 잡혀가는 수밖에. 그렇게 모두 잡혀가고 나서 돌아온 손오공, 좀 황당했겠지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당연한 수순으로 요괴의 소굴 파악하고 쳐들어가서 한바탕 드잡이질을 하는 수밖에. 그런데 이 요괴도 정말 비보통 요괴지요? 아니 요괴보다도 그 요괴가 가진 무기가 완전 비보통 무기입니다. 금강탁(金剛琢)이라고 하니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팔찌인가요? 이것을 던지며 "붙어라!"하면 모든 무기가 거기 달라붙어버립니다. 무기를 뺏기고 나선 싸우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손오공도 당해내지 못하고, 하늘 세상에 가서 여러 원군들을 빌려 오지만 그 원군들도 속수무책입니다. 무시무시한 "붙어라!" 팔찌에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결국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고자 석가여래를 찾아뵙지요. 광대한 부처님의 지혜에 무슨 걸림이 있겠어요. 빙긋 염화시중의 미소를 띠셨을 것 같아요. "흐음,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 보거라!"하시며 금단사라는 귀한 보물과 아라한들을 파견해 주시죠. 그것도 "이것이 안 들으면, 다음은 이렇게 해보거라"하는 자상한 계책과 함께. 결국 첫 번째 수단이 안 통하니 부처님 말씀대로 태상노군의 거처를 찾아가게 되지요. 그 태상노군의 거처를 휘휘 둘러보니 늘 보이던 푸른 소가 안보이는 겁니다. 소 돌보는 시동은 졸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태상노군에게 신고! "영감님! 저기 늘 있던 푸른 소 어디 갔나요?" 태상노군이 깜짝 놀랍니다. "이크, 이놈이 달아났구나! 내 보배 금강탁을 훔쳐가지고…." 그래서 소 주인 모시고 오니 그걸로 끝난 거지요. 아무리 요괴가 용쓰는 재주 있다 하여도 원 주인이 찾아왔는데 어쩌겠어요? 여기서 아주 이야기가 재미있게 됩니다. 태상노군이 그 "붙어라!"무기, 즉 금강탁으로 소코뚜레를 해 가지고 끌고 가는 거지요. 그리고 서유기 저자는 친절하게도 소코뚜레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하하! 정말 그런 거냐고 묻는 분들은 상대 안한다고 경고 했지요?

바로 이 대목, 태상노군의 푸른 소와 금강탁 소코뚜레에서 무언가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요? 바로 소찾기, 절 법당 벽에 흔히 그려져 있는 소찾기 열 개의 그림[尋牛十圖]을 연상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 심우십도는 순서가 어떻던가요? 맨 처음에는 소를 찾아 나서지요(尋牛)? 두 번째는 소 발자국을 발견합니다(見跡). 그리고 소를 찾고(見牛), 그리고 소를 얻고(得牛), 소를 길들이고(牧友), 소를 타고 돌아오지요(騎牛歸家). 그리고는 소는 잊고 사람만 남으며(忘牛在人), 다음으로는 사람과 소를 모두 잊고(人牛俱忘),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며(返本還源), 마지막으로는 일상적인 삶의 세계로 나와 중생과 함께합니다(入廛垂手). 여기서 제가 주목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소를 길들인다"는 대목입니다. 소가 처음에 참 말을 안듣지요? 그 소를 제어해서 잘 길들여 집으로 타고 돌아오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소를 제어할 방편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를 제어하는데 가장 쉬운 방편이야말로 코뚜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당장 심우십도 찾아서 소코뚜레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불교가 자비문중이라서 그런지 소를 길들이는데도 코뚜레를 쓰지 않았네요. 그냥 소하고 씨름하면서 길들이고 있네요. 물론 이렇게 힘들게 소하고 싸움을 해서 길들이는 것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 길들이는 데는 코뚜레만한 것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심우도에서는 소가 바로 자신의 자성을 상징하기에, 자신의 자성에 코뚜레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자성이 아닙니다. 앉을 자리를 찾는 잘못된 수행자를 잡아들이는 요괴이죠. 그리고 실은 그러한 잘못된 수행으로 빠져든 잘못된 욕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정없이 코뚜레를 해야 돼요. 그것도 금강탁의 코뚜레를! 절대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코뚜레! 요괴노릇을 할 때는 모든 공격을 거두는 신통방통한 "붙어라!" 팔찌가 이제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제어하는 코뚜레가 되었군요. 다이아몬드 코뚜레니 절대 부서질 염려도 없습니다. 이제 속 썩이던 소 한 마리 완전하게 통제가 되겠군요.

참 부럽습니다. 말 안 듣는 욕망에 이런 코뚜레 하나 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코뚜레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코뚜레라도 좋습니다. 차츰 좋은 코뚜레로 바꿔가면 되지요 머…. 여러분들도 부러우시죠? 얼른 하나 장만하세요. 말 안듣고 자꾸 샛길로 빠지려는 못된 소! 코뚜레 해 가지고 부려먹으면서, 정말 기분 내키면 등에 올라타 피리불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선 작심삼일하는 방정맞은 마음을 지긋이 눌러 앉히고, 불퇴전의 의지를 나날이 키워나가야 하겠지요? 그렇다고 너무 갑자기 의지를 키우려 하시면 안 됩니다. 조그만 일로부터 성공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이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너무 야심찬 계획 세웠다가 실패하면 자신감만 없어지고 의지도 약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면 쉽게 세워서 반드시 성공시키십시오. 그러면 나날이 자신감과 의지가 강화되어 어느 날 다이아몬드 코뚜레처럼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날이 오겠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날을 꿈꾸면서! 오늘은 소타고 노니는 꿈을 꿔볼까요? 다음 시간에 뵈어요.



좌로 부터 법사 방필석, 동자 신준원을 안아주시는 스리랑카 대통령님.

신생아 작명 귀중한 아호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8년 작명
국가 공인 한자 1급 12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전화 02)738-5577, 팩스 02)738-2046
작명보시금 20만원 농협 : 053-02-155-065 (예금주 : 방필석)
국내외 우편발송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법사 방필석

★ 귀(貴) 자녀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

아기를 키우실때 부모가 춥다, 덥다는 부모 체질에 환경을 맞추면 부모는 좋지만 체질이 다른 신생아는 아직 의사표시가 어려워 울며 고통스러워 할것이다. 본 연구소는 체질, 적성, 성격 등을 참조하여 지은 이름은 아기를 건강하게 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명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법사 방필석 대내외활동
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대통령 각 4회 초청 방문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2011년 인도 세계불교대회 초청 방문

★ 잘될 사람이 받는 아호 ★

아호는 人生 삶에 바른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스승과도 같아서 훌륭한 사람들은 이름 외 따로 아호가 있다. 본 연구소에서 신생아 작명과 아호를 받은 동자 신준원은 스리랑카 대통령님이 안아주시는 영광을 받았다.

아호
峨山(아산) 鄭周永 前 현대그룹 총수
湖巖(호암) 李秉喆 前 삼성그룹 총수
巨山(거산) 金泳三 前 대통령

권세있고 재물이 많아도 人生 삶이 이 도리를 모른다면 어디서 무엇을 따로 잘될것을 구하려 하십니까?

♣자식이 귀중하니 이름 외 귀중한 아호를 권합니다.

그 절집의 빛

⑱ 구례 화엄사 구층암 모과나무 기둥

자연주의 건축의 윤리적 아름다움



모과나무 원형 그대로를 요사채 건물의 기둥으로 썼다. 맨 오른쪽은 동쪽 요사채 모과나무 기둥이고, 나머지 두 기둥은 서쪽 편의 것이다.



다실이 있는 서쪽 요사채의 모과나무 기둥.

자연과 구층암이 유기적으로 일체화
개심사 심검당, 청룡사 대웅전과 상통
나무 골과 옹이까지 수용한 자연주의
자연이 완성한 구조를 건축체계에 포용



천불보전 뒤 언덕에서 바라본 구층암.

백련결사, 수행선원의 청정도량

나무에 피는 연꽃이 목련(木蓮)이고, 나무에 열린 참외가 목과(木瓜)다. 그 목과가 모과다. 노랗게 익은 모과는 영락없이 참외를 닮았다. 그런데 울퉁불퉁한 것이 못났다. 못나서 모개라 부르기도 한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고 한다. 못난 모양에 비해 모과향은 대단히 향기롭다. 맛은 오만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시큼하고 떫다. 모양과 색, 향, 맛, 효능에 두루 놀라는 열매가 모과다.

모과나무는 중국 원산이다. 학명은 Chaenomeles sinensis이다. Chaenomeles는 명자나무속의 속명이다. 속명(Chaenomeles)은 라틴어 갈라지다(chaino)와 사과(melon)의 합성어다. 열매가 사과 같고 가지가 잘 갈라진다는 뜻이다. sinensis는 '중국의' 뜻을 지닌 라틴어로 원산지를 밝힌 종명이다. 나무의 학명은 라틴어로 통용한다. 라틴어는 생활언어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시대에 변함없이 항구적으로 명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속명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종명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모과나무는 생물분류학적으로 분류하면 식물계-속씨식물문-쌍떡잎식물강-장미목-장미과-명자나무속-모과나무종의 계통에 따른다. 흥부전에 나오는 '화초장(花草欌)'도 바로 이 모과나무로 만든 장롱이다. 그런데 모과나무는 중심 줄기가 외길로 높이 자라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속명에서 그 특성이 보이듯이 가지가 잘 갈라져 자라기 때문이다. 모과나무에서 하나의 사각형 판재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모과나무로 화초장 장롱을 만들었다면 필시 귀한 물건임에 분명하다. 모과나무로 건축목재로 사용하였다면 더구나 희한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구례 화엄사 구층암에 그 진귀한 장면이 있다.

지리산 화엄사 대웅전 뒤로 난 조릿대 터널 오솔길을 지나면 구층암(九層庵)에 닿는다. 〈화엄사 사적〉(1924) 등의 기록에 화엄사는 큰 절 여덟에 암자 81암, 즉 화엄사는 '8원 81암'의 사격으로 전해진다. 구층암은 81개소 산중암자 중의 하나로 이어져 내려왔다. 요사채에 걸린 현판(광무원년: 1897년)에는 '구층연사(九層蓮社)'라고 기록하고, 〈중수구층암기〉(1899년) 현판에는 '구층난야'라고도 기록하고 있다. 또 1901년에 승려 등 60인이 구층암에서 염불수행의 백련사결사(白蓮社結社)를 가졌다고 하는 바, '구층연사'는 구층암의 백련사 성격을 환기시켜 준다. 특히 '구층난야'의 기록은 구층암이 수행자들의 청정선원이었음을 조명해준다. 1937년 상량문에서는 '구층대'로 기록하고 있어 그 다양한 위상을 가늠하게 한다. 즉 구층암은 시대에 따라 구층연사, 구층난야, 구층대 등으로 불리며 백련결사, 선원, 강원 등의 도량으로 수행을 이어왔음을 파악할 수 있다. 결사도량, 수행선원이었던 만큼 도량의 청정한 기풍과 담백한 분위기는 어쩌면 당연한 유전적 생태환경이 아닐 수 없다. 구층암에서 받는 첫인상은 그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소박함, 고요함, 청정함이다.

나무 그대로 처마 밑에 옮겨 심은 듯

10여 년 동안 구층암을 지키고 계신 덕제스님은 구층암이 지닌 특성으로 자연스러움을 첫손에 꼽았는데 수긍이 가는 대목이었다. 구층암 가람이 주변의 지리산 자연환경과 얼마나 천연성과 조화로움으로 경영하였는지를 보려면 천불보전 뒤 언덕에 올라보면 된다. 구층암을 구품연화대의 정토로 능히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가람배치여서 놀랍다. 청정한 숲 속 자연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형국이다. 마치 그 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풍경처럼 자연과 건축이 유기적으로 일체화 한 것이 깊은 인상을 남긴다. 구층암 건축에서 자연스러움의 요소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선원의 요사에서 기름기와 습기를 제거한 자연 그대로의 분위기를 구현하는 것은 형상을 따르는 그림자만큼이나 당연해 보인다.

구층암은 천불전의 흙으로 만든 천불과 야생차로 유명하지만, 아무래도 구층암의 상징은 오래된 모과나무 기둥이다. 나무의 생김 그대로 기둥으로 쓰거나 들보, 창방으로 쓰는 경우는 왕왕 있다. 서산 개심사 심검당, 범종각 건물이나 안성 청룡사 대웅전, 아산 봉곡사 요사, 합천 호연정 건물 등에서 무위(無爲)의 소박한 심정들을 만나곤 한다. 서양의 그리스 건축에서는 사람의 인체를 건축기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모과나무는 의외다. 모과나무는 소나무, 전나무처럼 외줄기로 자라서 통나무 목재로 쓰일 수 있는 재목이 아니다. 중간 키의 관목에다 가지 분화가 활발해서 통나무를 얻기 어렵고 등걸 표면이 혹처럼 울퉁불퉁하고 옹이가 많아 목재로서의 기본 자질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구층암 좌우 요사 두 채에는 모과나무를 기둥으로 삼아서 일찍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천불전 뜨락엔 다섯 그루의 모과나무가 있다. 천불보전 계단 양 옆으로 살아있는 두 그루가 있고, 좌우 요사채에 기둥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세 그루다. 모과나무 기둥은 생김 그대로다. 모과나무 원형을 그대로 살려 야성적인 힘을 보존하고 있어 경이롭다. 잔가지만 툭툭 쳐내고 골격 그대로 기둥으로 활용했다. 툇마루와 창방의 기능적 결구를 위해 최소한의 흠을 파냈을 뿐이다. 그냥 서있는 나무 그대로를 처마 밑에 옮겨 심어 둔 형국이다. 건축이 숲의 정서를 담고 있다. 건축과 자연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서양의 고딕건축은 유럽의 떡갈나무 숲의 재현이다. 활엽수의 숲과 나무들의 왕성한 생명력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것이 고딕양식이다. 기둥은 나무이고, 아칸서스 잎은 활엽수의 풍성한 잎으로 재현했다. 자연은 끊임없이 부활하고 생산하며 재탄생한다. 숲과 나무로 해석한 건축적 형상을 통해 근원적인 분위기와 무한한 생명력을 담아냈던 것이다. 구층암 모과나무 기둥은 고딕건축이 담고 있는 정신의 전위에 가깝다. 보다 직접적이며 대범하다. 그리고 자연의 상징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로 구현하고, 역사적 층위를 갖는 인문적 자연으로 재탄생시켰다. 모과나무 삶의 드라마틱한 반전이고 성스러운 회향(回向)이다.

존재에 대한 깊은 존엄성의 통찰

평범한 요사채 건물에 살아있는 모과나무 기둥이 들어서자 건축공간이 엮어내는 정신적인 장(場)이 아라한과를 얻은 듯하다. 강한 중력으로 공간이 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움의 경지를 고양하고 있다. 고승대덕들이 남기고 간 지광이처럼 삼엄하기도 하다. 관대함, 무소유, 무애자재, 용맹전진, 해탈 등 깊은 수행력의 정서가 공간에 흐르고 청정 도량의 결계(結界)도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한다. 나무가 아니라 나무 형태를 빌린 일깨움의 선지식 같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건축을 누구나 돌아보는 건축으로 전환시킨 경이로운 안목이다. 존재에 대한 존엄성의 통찰이 깊고도 숭고하다. 특히 비정규직 일회성 소모품으로 사회구조를 조정하는 시대에 존재의 존엄성을 이보다 더 깊이 일깨울 수 있을까?

하나의 건축에 구조적 안정성과 경제성, 심미적 아름다움의 요소는 언제나 숙고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셋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일은 전문 건축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서로는 서로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까닭이다. 구층암 모과나무 기둥은 그 셋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어 깊은 인상을 남긴다. 모과나무 기둥은 수피가 벗겨진 뼈대의 구조다. 그런데 줄기는 인위로 다듬지 않은 원형 그대로다. 나무의 원형은 수백 년간 외부환경과의 투쟁 속에서 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화 되고 최적화 된 물리구조다. 다듬지 않고 단청을 입히지 않았으니 경제성은 논하고 따질 필요가 없다. 심미적이며 독창적인 아름다움은 어떠한가? "우리가 독창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연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 건축가 가우디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힘줄 같은 나무 골과 옹이까지 자연주의로 수용했다. 심지어는 나무와 일체가 된 돌덩어리도 그대로 내버려 뒀다. 자연 스스로가 형성하고 완성한 구조 그대로를 건축 체계로 포용했다. 나무 형태나 굴곡에 대한 차별적 분별을 여읜 차원이다. 건축에 표현된 비유클리드적이며 비선형적 구조역학의 경이로운 형태다. 자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그 바탕임에 분명하다. 군더더기 없는 뼈대가 가지는 구조미학과 윤리적 아름다움이 빛난다. 모과나무 세 그루 구층암 처마 밑에 기둥으로 심어져 있다. 휜 것은 휜 그대로, 굽고 파인 결은 파인대로, 옹이는 옹이대로 나무 스스로가 형성해온 모양 그대로로 집을 지었다. 건축이 살아 있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3기 모집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고수 총출동!!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백운산회장,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박청화교수, 현공풍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김창곤 8대 정통부차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9월 12일 ~ 12월 19일, 매주 월(月) 18:50 ~ 21:50 / 수료 후 심화과정, 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9월 12일(월) 17:30 ~ 미래학특강 외 **등록금** 240만원
지원방법 FCA홈페이지(www.gfca.kr) 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gfca@daum.net) 발송
특 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 장소 : 동국대학교(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 6번 출구)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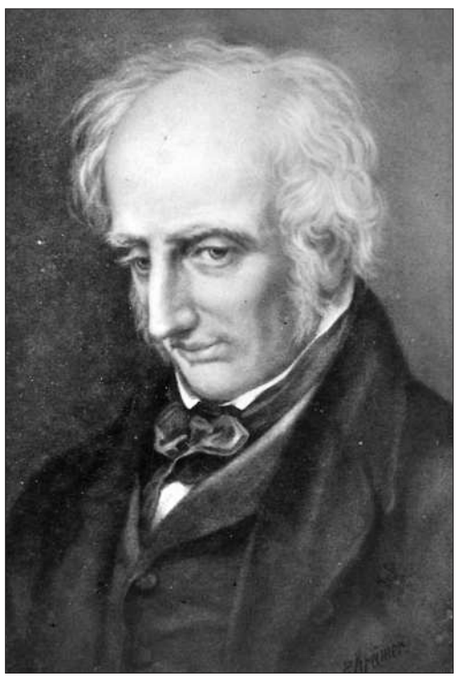
‘生死一如’… 초월을 노래한 낭만 시인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③ 워즈워스의 詩選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의 어느 날. 영국 문학기행이라는 매혹적인 일정에 가슴은 온통 설레임으로 가득했다. 무언가 새롭고 풍부한 세계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의 탈출은 시작됐다.

온 세계인 인생의 깊이와 방향을, 그리고 문학의 향유 층을 넓혀 정신적 안목을 길러준 셰익스피어를 비롯해서 대학시절 정열에 불을 붙여준 에밀 부론테 등 여러 작가의 자취를 찾아 나섰다. 여러 작가 중 나에게 주어진 워즈워스의 작품 탐방에서 시의 산실인 도브코티지를 시작으로 작품 속에 숨겨진 그의 내면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모습(사진 왼쪽)과 그의 생가인 ‘도브코티지’의 전경.(사진 오른쪽) 워즈워스는 ‘도브코티지’에서 다양한 서정시를 창작했다.

워즈워스의 시의 산실 ‘도브코티지’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지방에 자리 잡은 도브코티지는 워즈워스 가족과 그의 누나 도로시가 10년간 산 곳이다. 워즈워스는 ‘수선화’와 ‘서곡’ 등 그의 작품 중 가장 훌륭한 시들은 대부분 도브코티지에서 썼다.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 속으로 발을 디디는 아담한 집 한 채, 골목 한켠 비에 젖은 ‘도브코티지(Dove Cottage)’라는 푯말이 워즈워스의 숨결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쪽문을 들어서니 방안은 컴컴하고 천정은 낮았으나 페치카의 열기가 도로시의 따뜻한 체온처럼 기분 좋게 관람자를 감싸 안는다.

2층으로 된 건물에서 아래층은 도로시가 바느질과 가사 일을 하던 다양한 얘깃거리가 깃든 곳으로 간단하게 세면을 할 수 있는 세면기까지 놓여 있었다.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커다란 창이 있는 이층 방은 워즈워스의 무수한 영감이 떠오른 작업실 겸 침실로 아직까지 그의 고결한 영적 광채가 느껴진다. 옆에 위치한 자그마한 객실에는 콜리지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시인들이 기거하며 작품을 논하던 시의 향연이 펼쳐진 곳이다. 벽면에는 생동감 넘치는 작가들 눈빛을 담은 사진들이 나의 시선을 놓지 못하게 한다.

1802년 4월 15일 워즈워스는 도로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곳을 찾은 날이 바로 4월 15일이니, 과거와 현재가 우주적 창을 통하여 회통의 기적적인 한 순간을 만든 것만 같아 퍽이나 감격스러웠다. 그들은 집으로 향하는 도중 ‘울즈워터’라는 호수 기슭에서 수선화를 보았던 것이다.

호수에 다니면서 더욱 많은 수선화를 보았다. 우리는 호숫가를 따라서 수선화가 시골 길의 넓이로 긴 벨트를 이루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수선화를 본적이 없었다. 어떤 수선화는 지쳐 돌베개를 베고 쉬고 있었고, 나머지는 흔들리고 휘청거리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워즈워스는 도로시의 이 일기에서 수선화 장면을 읽고 영감을 받아 시를 썼다고 한다. 그러나 시가 쓰여 진 것은 워즈워스가 수선화를 본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였다. 워즈워스는 단순한 묘사적 스케치가 아니라, 기억 속에서 명상적 사유를 거쳐 육화된 상상력의 색깔로 표현하는 것을 시라 했기에, 2년이라는 시간은 시가 만들어지는 불가결의 내면 숙성 기간이었을 것이다.

18세기 낭만주의 풍미한 시인
〈서정시집〉으로 詩 개념 변화
자연과 인간, 새로운 시각서 봐

난 문득 보았네, 수없이 피어난 황금빛 수선화를, 호숫가 나무아래 산들바람에
나부끼며 춤을 추는 모습을. 이 같은 흥겨운 벗을 두고 시인을 기쁘기 그지없어라.

워즈워스의 시 중에 우리가 암송하기 좋은 ‘수선화’의 한 구절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비평가인 매슈 아놀드(Matthew Arnold)는 워즈워스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그의 위대성의 원인은 단순함이며, 자연과의 교감은 단순하고 근본적인 애정과 의무 속에서 이러한 기쁨을 우리 독자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또 같이 공유하게 하는 엄청난 힘 때문에 워즈워스의 시는 위대하다.”

물리적 자연을 넘어선 영적 자연의 여유로 우리를 끌어들인 워즈워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만들어진 도브코티지, 간절한 사랑 한 줌 남겨놓고 발길을 돌렸다.

워즈워스의 생애와 詩 세계

윌리엄 워즈워스(Willam Wordsworth)는 1770년 잉글랜드 서북부 호수지방인 컴벌랜드 코커머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변호사 존 워즈워스(John Wordsworth)의 다섯 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북부의 대지주 중 한 명이었다. 다정다감하던 어머니는 그가 여덟 살 때 폐렴으로 사망하고, 아버지마저 그가 13살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다. 어린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독과 우울 속에서 건강도 그리 좋지 않았다.

숨 막힐 듯한 환경에서 오직 구원의 길은 자연을 벗 삼는 일이었다. 신선한 바람, 하늘과 햇살, 안개와 비는 그를 키워냈다. 수련처럼 청렴한 그의 영혼에는 물들지 않은 자연이 스며들었고, 그의 가슴에서 숙성된 시어들은 더 없이 아름다운 어휘로 승화돼 독자들의 영혼마저 티 없이 맑은 기쁨으로 채워준다. 자연 속에서 성장한 그의 경험은 유년시절 추억으로 기억창고에 차곡차곡 저장되어 시적 영감의 근원이 된 것이다.

1791년 대학을 졸업 후 그는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혁명과 개혁으로 들끓던 프랑스로 건너갔다. 프랑스와 영국의 선전포고 속에서 그는 프랑스 혁명을 옹호하는 시를 많이 썼으나 이후 소박하고 친근한 언어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에 대한 시를 써 내려 갔다.

몇 년 후 그는 누나 도로시와 레이스 타운에 살면서 당대의 유명한 시인이면서 비평가인 콜리지(Coleridge)와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콜리지는 처음 만남에서 워즈워스의 천재성을 즉시 발견했다. 무명 시인이었던 워즈워스에게 콜리지는 ‘내 생각에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고 평가하는 편지를 보냈다. 한편 워즈워스도 ‘내가 만났던 유일하게 경탄할 만한 사람’이라고 콜리지의 천재성을 칭찬하였다. 평범했던 워즈워스에게 갑자기 천재의 광휘가 번쩍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콜리지와 만남과 자극, 격려에 의해서였다. 워즈워스, 도로시, 콜리지 세 사람은 하나의 영혼을 가진 이상적 유대 관계를 만들었다. 워즈워스는 콜리지와 좀 더 가까이 살기 위해 레이스 타운에서 서머세트 엘폭스든으로 이주했다. 이주 1년 뒤 워즈워스와 콜리지는 영문학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서정민요시집〉을 간행했다.

‘영생불멸 노래’엔 생사관 담겨
불교 윤회·전생 개념으로 채워
‘不一不異’ 인식… 초인의 경지

18세기 후반은 드라이든과 알렉산더 포우프를 필두로 하는 신고전주의가 그 박력과 활력을 잃고 있던 때였다. 구태의연하고 틀에 박힌 라틴 시의 모형이 아닌, 일상생활 언어인 〈서정민요시집〉이 야말로 1세기 반 동안 영시를 속박시켜 왔던, 시적 가치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워즈워스는 기존의 시와 자신의 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었다.

“나의 시들이 자금에 유행하는 다른 시들과 구별되는 또 한 가지 요소를 언급해야겠다. 그것은 다름 아닌, 행동이나 상황을 통하여 감정이 주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시에서 싹터 나온 감정에 의하여 비로소 행동이나 상황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구절은 워즈워스의 시론을 압축하여 놓은 말이다. 그는 자연과 인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았다. 그의 시작(詩作)은 경험들이 기억 속에서 변형된 상상력의 감응에 따른 비약-환상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워즈워스가 시에서 인간이 “자연을 반쯤 지각하고 반쯤 창조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워즈워스의 불교적 생사관

서시를 완성한 2년 후, 1807년에는 출생 이전의 신비한 직관을 기록한 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영생불멸을 깨닫는 노래’를 출간했다. 이 시야말로 워즈워스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체계적으로 담긴 시다. 워즈워스는 스스로 “유명하고 야심만만하여 장대한 시”라고 언급했다.

19세기 후반의 시인 홉킨즈는 너무나 감동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이 시가 쓰여진 날 영국을 위해서 가슴에 장미를 달았다”라고 외쳤다. 이 시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플라톤적 전생 사상으로 불교의 색채가 배어있다.

영생과 전생은 윤회사상의 바탕이다. 영생이란 한 모습으로의 영생이 아니라 윤회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생을 의미한다. 유식학에서는 윤회의 주체를 선·악 업력을 보존한 아뢰야식이라 한다. 세상에 태어날 때도 과거세의 업력에 따라 육도(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국) 중 어디론가 강한 업력에 의해서 최초의 생명체로 출생하여 윤회류(輪廻流)를 거듭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자연에서 존재에 대한 무상과 마음의 평온(寂滅)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그러고 보면 ‘영생불멸을 깨닫는 노래’는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의 진리에도 접근한 시가 된다.

10연에서 ‘과거에도 있었고 항상 있을 것임에 틀림없는’ 이것은 ‘상주’를 의미한다. 모든 사물은 변화하고 멸해도 진리만은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형상을 초월하여 상주한다는 것이다. 전생이나 윤회설은 인간 시야를 현세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한한 시공 속에서 펼친 것이다. 처음 연은 현상적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였으나 뒤로 가면서 그의 시는 시공을 초월한 영적 세계에 회귀할 수 있다는 영혼 불멸의 관념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워즈워스의 시가 자연과 인간에 대한 단순한 사랑, 평범한 일상의 경험, 그것과 전혀 다른 세계 즉 영원히 변치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세계는 물러나고 내면적인 세계가 중시 되면서 가치의 기준들이 내면화되기 시작되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됐다고 보아야 한다.

워즈워스가 추구한 것은 우주인생의 진리를 올바르게 보는 인간의 보편성이며 그 보편성은 더 나아가 인간과 우주영원 보존력 관계 같은 것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내면의 세계관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영생불멸을 깨닫는 노래’는 불교의 깨달음의 과정과 닮아 있다. 보편타당한 진리를 올바르게 보고 참되게 알아 그것을 자기화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을 완성한다는 사상에 접근한 것이 아닐까.

워즈워스는 삶과 죽음을 동질적 즉 생사일여(生死一如)라 생각하고 다만 형상의 옷만 갈아입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무명망념(無明妄念)을 연하여 생사의 괴로움이 생긴 것인데 워즈워스의 불일불이(不一不異)의 생사의 본질적 존재 인식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상태이며 초인적 경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생사관이다. 다시 자연과 인간이 동일하다는 사물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상통하는 관점이기도 하다.



안명희 수필가

자성을 찾아가는 근본불교

제1기생 길 따라 절로 가는 설봉포교원
6개월 과정 신입생 모집

화엄경(華嚴經)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반야심경(般若心經)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 입학식 : 9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공부하는 날
• 화 엄 경 반 : 9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반야심경 반 : 9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과 진여실상(眞如實相)을 화엄만다라(華嚴曼荼羅)와 반야(般若)의 지혜바라밀(智慧婆羅蜜)을 실천수행 하므로 즉신성불(卽身成佛)하는 참 불자(佛子), 법우(法友)의 법연(法緣)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설봉포교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131-5번지
010-5660-3653 주지스님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대북



◀ 태징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시주 은혜 갚는 길은 해외구호”

그대는 자비보살

성관 스님 로터스월드 이사장

무위자연으로 실천한 ‘자비’

자비(慈悲),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란 의미다.

그 뜻을 오롯이 실천해 온 이가 있다. 2002년 창단부터 지금까지 사단법인 로터스월드를 이끌고 있는 이사장 성관 스님이다. 불교계 대표 국제개발구호NGO 로터스월드는 2004년 법인으로서 등록됐지만, 2년 전인 2002년 이미 캄보디아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그 점을 감안하면 로터스월드 역사가 내년으로 꼬박 15년을 맞는다.

로터스월드는 불교계 뿐 아니라 국내의 대표적인 캄보디아 국제NGO로 꼽힌다. 2006년 씨엠립에 아동센터를 설립하고 단발성 구호사업이 아닌 체계 · 지속적인 후원을 실시한 것이 가장 큰 밑거름일 터. 현재 아동센터는 국내 국제구호NGO가 캄보디아서 구호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교역할을 할 만큼 성장했다. 실제로 불교계에선 로터스월드를 롤모델(role model)로 삼아 국제구호활동을 펼치려는 단체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로터스월드가 국제구호NGO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던 것은 “아픈 사람을 보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비를 무위자연으로 실천해 온 성관 스님의 원력 덕분이 아니었을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8월 5일 오후. 제20회 만해대상 평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을 만나기 위해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보현선원을 찾았다.

성관 스님이 구호사업에 뛰어든 것은 1996년 캄보디아를 방문한 것이 계기였다. 당시 수원포교당(현재 수원사) 주지를 맡고 있던 스님은 막중한 책임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4명의 도반들과 함께 캄보디아 씨엠립을 방문했다.

“부푼 마음으로 공항에 내렸는데 그야말로 ‘폐허’와 다름없었어요.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잔혹한 참상이 그대로 서려있었습니다. 거리엔 ‘1달러’를 외치며 구걸하는 어린 아이들로 넘쳐났고, 얼마나 굶었는지 뱃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빠짝 말라있었어요. 전쟁에서 다리를 잃은 사람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후 참혹했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를 “남은 생 동안 살아갈 방향을 찾은 순간이었다”고 회상하는 스님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마음에 품은 서원이 얼마나 컸는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듯 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노후엔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해 살겠다. 내 갈 길은 정해졌다’고 공언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허풍으로 들었는지 웃기만 했지요. 하지만 내가 가야할 길이 정해졌단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평화로워졌습니다. 시주의 은혜를 갚는 길은 그 방법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스님은 ‘노후 계획’이라 말했지만 그 서원이 얼마나 확고하고 간절했을까, 머지않아 기회가 찾아왔다. 6년 후인 2002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2대 의장을 맡게 된 것이다. 성관 스님이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제3세계에 대한 구호활동을 선창하자 회원 스님들이 모두 동의하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아동센터 건립을 첫 목표로 삼고 방법을 찾아 나섰지만 예산 편성, 인력 확보, 부지 선정 등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좋은 일은 함께해야한다며 신도들의 후원을 독려하자는 여론도 있었지요. 하지만 단호하게 ‘No!’라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역량만큼만 시작해 점차 기반을 다져나가야 지속적인 구호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튼튼해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이죠.”

흔히 ‘나눔은 함께하면 배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 함께할 것을 마다한 스님의 일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발적으로 발심했을 때 진중하고 지속적인 후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 1996년 도반들과 캄보디아 방문
> 전쟁 후 참상에 안타까움 느껴
> “어린이들 위해 살겠다” 강한 발원
> 2002년 로터스월드 창단 활동

“초창기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지나치게 극화시켜 후원 동기를 자극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적인 연민심으로 후원에 동참할 순 있지만 그러한 마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최악의 경우엔 모든 후원이 끊어지더라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스님의 이러한 뜻에 따라 2006년 캄보디아 로터스월드 아동센터 건립 예산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서 3억, 나머지 전액은 성관 스님의 자비로 마련됐다고 한다.

강직한 기조는 오늘날의 로터스월드 운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몇몇 불교계 국제개발구호NGO가 외부 후원에 크게 의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겪는 동안에도 흔들림 없는 기반을 유지해왔다. 로터스월드란 그 이름에 걸맞게 깊고도 썩지 않는 연꽃 뿌리를 내린 것이다.

“모든 것은 ‘교육’서 시작된다”

캄보디아 아동들에 대한 성관 스님의 애착은 남다르다. 아이들을 ‘깊은 인연’이라 일컬으며 추억담을 얘기하는 스님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환희로웠다.

“아이들과 소풍도 가고, 함께 놀이도 하지만 센터에 갈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하는 일이 있어요. 전체 아이들을 데리고 근사한 뷔페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제대로 된 식사 한 번 하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뷔페를 가자’하면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어요. 식당에 가면 어른보다도 훨씬 많이 먹는데 올챙이처럼 빵빵한 배를 보면 귀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그런 아이들 모습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려 돌아서면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었다는 성관 스님. 당시 여러 종단 업무를 맡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아이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선 만 리길도 마다치 않았다. 그렇게 캄보디아를 다녀온 횟수만 지금까지 60여 차례다.

아이들에 대한 성관 스님의 크나큰 사랑 때문일까. 로터스월드의 대표사업은 단연 ‘교육’이다. 캄보디아 씨엠립 외곽에 위치한 캄보디아 아동센터는 2006년 설립돼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중심으로 현재 50여명이 아동센터서 지내고 있다. 누적 통계 총 100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기숙사 · 사원 · 다목적센터 · 게스트하우스 · 교실 등을 갖춘 아동센터에선 방과후교실과 정서 및 예체능 교육 등을 실시하며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 도서관 · 영화 상영관 · 컴퓨터 교실도 개방하며 지역사회 문화공간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처럼 로터스월드가 창립부터 교육사업에 중점을 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성관 스님의 남다른 애착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모든 것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스님의 신념 때문이다.

“교육은 인간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배우든, 스스로 깨닫든 상관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쉼 없이 정진하라’ 말씀하셨지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관하는 사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소통할 수 없게 되고, 종국엔 단절될 것입니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관 스님은 아동센터가 나가야 할 미래 교육 방향도 이미 설계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적인 학업 수학이 아닌 현지 특성을 고려한 기술교육에 중점을 둔다. 현재 2011년 설립된 ‘로터스희망이용센터’를 통해 아동들에게 미용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및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확

성관 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해 동대학 교육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 문화사회부장 · 문화부장 · 호법부장을 비롯해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수원사주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지난 5월 창건한 보현선원 회주, 조계종 여래마을 회주, 청수사 회주,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세상 대표이사,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8월 12일 개최된 제20회 만해대상 시상식서 평화대상을 수상했다.

문화재기능인 등록 제 5772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검색 | 보리수불교예술원

인터넷 다음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을 검색하시면
보리수 공방으로 연결되고, 보리수 공방의 작업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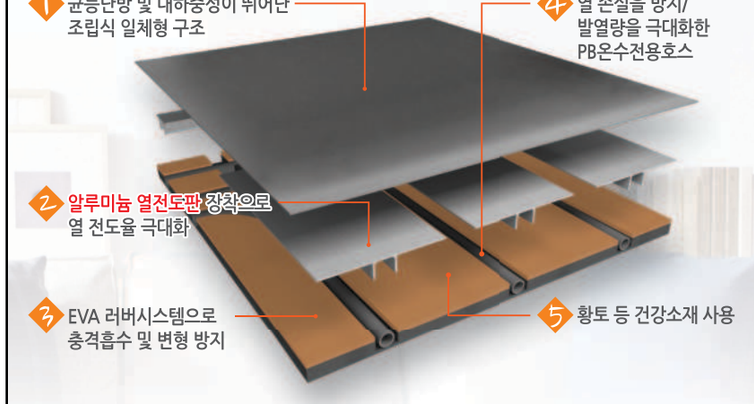
뜨시고 따시고 스님, 불자님 이제 연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조달청등록기업
MBC, KBS 방송광고제품

난방비 50% 이상 절감 / 반영구적 수명
내하중성 최고 / 전자파 ZERO



태경에너지 홍보이사 / 배우 이동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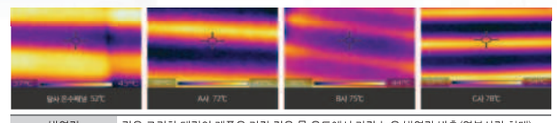
1 균등난방 및 내하중성이 뛰어난 조립식 일체형 구조
2 알루미늄 열전도판 장착으로 열 전도율 극대화
3 EVA 러버시스템으로 충격흡수 및 변형 방지
4 열 손실을 방지/발열량을 극대화한 PB온수전용호스
5 황토 등 건강소재 사용

01 황토발포단열 EVA 사용
02 업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56%,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03 알루미늄을 이용한 방열식 온수난방패널 (특허 10-1386923호)
04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제품
05 난방비 50% 이상 절감 (45℃ 이하의 저온수 난방 제품)

열과 하중에 강한 태경에너지 온수난방패널 핵심기술



열을 넓게 퍼트리는 3면 알루미늄
발열량을 높이는 PB온수전용호스
원적외선 방출 및 항균효과가 있는 황토EVA



발열량	같은 조건하 태경의 제품은 가장 적은 물 온도에서 가장 높은 발열량 방출(열복사량 최대)
열전도율	알루미늄이 장착된 태경의 제품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가장 높은 열 전도율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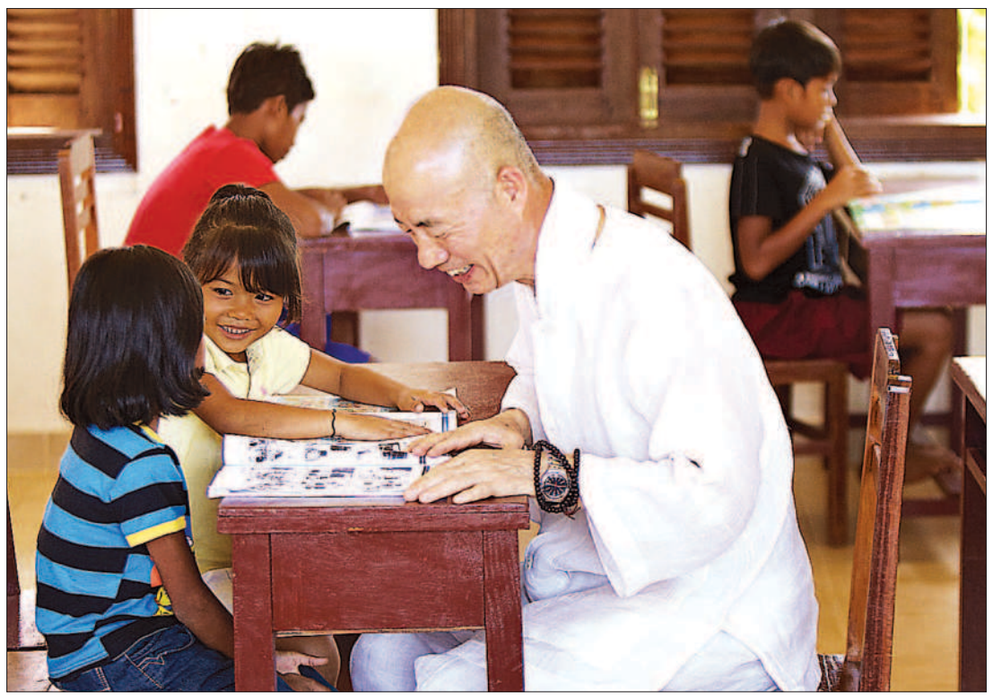
금새 따뜻해지는 놀라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 제품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태경에너지 TAEKYUNG 온수온돌판넬 전문기업

대리점 및 제품구입문의 1833-8404 www.태경에너지.kr

가스, 전기, 기름보일러 등 어디든 사용 가능합니다

…캄보디아 아동 교육, 개안 등 지원



성관 스님은 2006년 아동센터 설립 이후 지금까지 60여 차례 방문하며 아이들과 추억을 쌓고 있다.



성관 스님이 캄보디아 로터스월드 아동센터서 아이들 방과후교실에 함께하고 있다.



캄보디아 '앙두엉 국립안과병원' 준공식에 참여한 성관 스님(사진 왼쪽서 두 번째).

2006년 씨엠립에 아동센터 건립

"교육,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 없어"

아이들 사랑 남달라 60차례 방문

지역사회·기술 중심 교육 계획

개안 수술 지원 사업 시작

2007년부터 김안과 병원과 협력

연간 3회 무료진료 및 개안 수술

수혜 환자 1500여명… 의료계에 큰 획

대, 컴퓨터 및 스마트폰 수리 · 자동차 정비 · 목공 · 제빵 등 기술교육도 실시한단 방침이다.

"지역사회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인재들을 찾아내 지도교사로 채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엔 고용 기회가 창출되고, 아이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학을 나와도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이 힘든 현지 사정을 고려해 기술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1500명에게 '새 눈'을 선물하다

로터스월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있다. 캄보디아 주민들에 대한 '개안수술 지원사업'이다. 2007년부터 건양대 김안과병원과 협력해 아동센터 내에 안과병원을 설립하고, 연간 3회 무료 진료 및 개안수술을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는 자외선이 강해 유독 백내장과 익상편 환자가 많은데, 이곳서 개안수술을 받은 사람만 1500명에 달한다.

평생을 흐린 눈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새 세상을 선물하는 이 엄청난 일이 치밀한 계획으로 시작됐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인연서 비롯됐다.

"어느 날 김안과병원이 해외의료봉사를 위해 우리 캄보디아 아동센터를 찾아왔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성주(당시 병원장) · 김용란 부부와 함께 여러 의사들이 왔어요. 원래 스리랑카를 가려고 했는데 내전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필리핀으로 가려니 현지 국제구호NGO와 전화가 닿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린 것이 캄보디아였어요."

독실한 불자였던 김성주 · 김용란 부부는 그 인연을 계기로 지금까지 매년 3차례 20~30명의 대규모 봉사단을 꾸려 로터스월드 아동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역시 불자였던 김안과병원 설립자 김희수 건양대 총장의 후원은 순풍에 돛을 달았다.

초창기엔 하루 5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과 진료를 위해 몰려들었다. '심봉사 눈떴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자 씨엠립 밖 다른 지역민들까지 모여들었다. 캄보디아 주정부에서도 사람을 보내 로터스월드와 김안과병원의 '합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병이란 인식을 못하고 샤머니즘적 사고로 '우환'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앞이 보이게 해 준다니 처음엔 반신반의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딱 뜨니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김희수 총장 내외를 초청해 '우리나라에 안과병원을 설립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에 코이카(KOICA)와 김안과병원이 힘을 합쳐 캄보디아에 '앙두엉 국립안과병원' 문을 열었다. 로터스월드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캄보디아 의료계에 큰 획을 그은 것이다.

그렇다면 로터스월드의 국내구호활동 계획은 어떨까? 로터스월드의 국제개발구호 활동은 15년 간 기반을 튼튼히 다져온 반면, 국내 활동은 비교적 미비한 편이었다.

'국내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왜 해외까지 가서 돕느냐'며 국제개발구호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터라, 성관 스님께 국내활동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여쭸다. 이에 스님은 "없다"고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부터 도와야 한다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세계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절대 지금처럼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특히 동남아권 국가들은 우리에게 쌀을 보내며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세계는 함께 살아가야하는 생명공동체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로터스월드가 초심을 잃지 않고 15년 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던 힘은 성관 스님의 뚜렷한 운영철학과 기백이었다. 성관 스님은 "자기 공부가 전제되지 않는 구호활동은 생명력이 없다"며 매일 새벽마다 기도정진에 임하며 수행자로서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캄보디아 아동센터 아이들과 스님께서 회주로 계신 보현선원 신도들을 위해 매일 축원하는 발원문을 단숨에 읊을 정도다.

성관 스님은 종교인, 정치인,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보편적 가치에 충실할 때 진정한 '로터스월드'가 될 것이라 말한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선 내가 해야 할 근원적 역할과 보편적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할 때 세상은 진정한 정토세계가 될 것입니다."

글=박아름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니까야서 길을 묻다 사띠(念) ⑤

매순간 인지할 때 '앎' 얻는다

〈법구경〉 제293 게송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그러나 잘 행하여 몸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끈기 있게 해나가는 이들에게는 '주의 깊음'(sati)과 '분명한 앎'(sampajāna)의 이익으로 번뇌들은 사라져 간다.

여기에는 사띠가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몸에 대해 주의를 기울임'이다. 이는 사념처(四念處)의 첫 번째 내용인 신념처(身念處)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경문의 끝부분에 사띠가 다시 등장하는데, 두 번째는 '분명한 앎'(正知)과 짝을 이루고 있다. 북전 아함경에서 정념정지(正念正知)라는 술어로 등장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는 나아갈 때에 물러날 때에 올바로 알아차리고, 관찰에 대해 관찰된 것에 대해 올바로 알아차리는 자로 머문다. 굽히고 폈을 때에 올바로 알아차리는 자로 머물고, 대의(大依), 발우(鉢盂), 법의(法衣)의 지님에서,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맛보았을 때에, 대소변 보는 일에서, 가고 머무르고 앉았을 때에, 잠들거나 깨어 있을 때에, 말하거나 침묵했을 때에 올바로 알아차리는 자로 머문다.

〈맛지마 니까야〉 제94 '고타무카' 경에 나오는 이 구절에 따르면 '인지'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일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몸의 움직임을 순간순간 그대로 인지하는 연습을 통해 '분명한 앎'(正知)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인지/알아차림/앎'을 이끌어내는 토대는 몸의 움직임을 그대로 인지할 수 있는 '주의력'이니 바로 사띠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주의력 대신 '깨어있음, 마음챙김, 마음지킴, 주의집중, 지켜 섬' 등의 번역어를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번역어를 택하든 '일상에서 생겨나는 갖가지 신체의 움직임을 분명하게 인지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띠'가 발생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 나은영

그런데 니까야에는 정념정지에 해당하는 구절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주의 깊음'과 '분명한 앎'이 짝을 이루고 있지, 팔정도의 하나로서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한 주의 깊음'(samm¤¥sati)이 '분명한 앎'과 짝이 되는 것이 아님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정념'이란 '사띠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되므로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염/정지'의 짝은 사띠에 내재된 많은 의미 전체를 온전하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열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계열이란 자신의 몸의 움직임을 간파해내는 '인지'에 초점이 있다. 즉, '염/정지'의 결합은 '염과 정지' 또는 '염에 의한 정지'라는 의미구조를 내재하고 있다. 이때의 '사띠'는 '성취된 또는 완성된' 수행으로써의 위상이라기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사띠는 사띠를 조건으로 하여 자신의 호흡과정을 비롯해 몸의 온갖 움직임을 미세한 양상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이 수행의 중심을 이룬다. 그러므로 사띠의 의미는 '잊지 않기'보다는 '주의 기울이기' 또는 '일으킨 주의력의 지속' 정도가 '분명한 인지'와 짝을 이루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즉, '주의력'을 발휘하여 '몸의 움직임'을 그대로 간파함으로써 인지능력을 닦아나가는 길은 곧바로 '주의력' 향상의 길과 만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주의력/알아차림'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는 닦음의 길은 남방불교에서 계승해온 하나의 수행법인데, '네 가지 대상에 대해 주의 깊음의 발휘와 지속'(四念處)이라는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워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천지운명
건강 120세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상담 환영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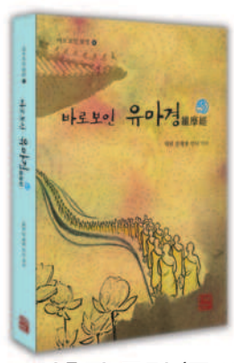
H·P 010-4496-6060 / 팩스 043)881-1359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 77번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화엄경1,2
화엄경 전자책 1권부터 5권까지 무료 공개!!
신간!
www.zenparadise.com 에 다운로드 방법 공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였다. 이러한 안목으로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 하신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외도 삼매와 진여삼매의 다른점은?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응당히 알아야 한다. 외도의 삼매는 모두가 견애(見愛)와 아만(我慢)의 마음을 여의지 못하니 세간의 명리와 공경을 탐착하기 때문이요, 진여삼매는 보는 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얻었다는 상에 머물지 아니하여 선정에서 나온 뒤에도 해만(懈慢)하는 일이 없어 모든 번뇌가 점점 엷어지게 된다. 범부들이 이 진여삼매를 닦지 않고는 여래의 종성(種性)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세간의 삼매를 닦으면서 다분히 집착하여 아견(我見)에 의지해 삼계(三界)에 매여 소속되면 외도와 같아지니, 선지식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면 외도의 소견을 일으키기가 쉽다."

본문의 〈변마장〉 끝 부분의 말이다. 삼매에도 외도의 삼매가 있다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집착과 아만을 여의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바라며,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하는 그릇된 생각이 남아 있으면, 이는 모두 외도의 삼매라 진정한 삼매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여를 근본으로 하는 참된 삼매는 어떤 고집에도 물들지 않으며, 특별한 관념에 사로잡힌 의도적 목표도 없다. 어떤 경계를 보았다거나 어떤 경지를 얻었다거나 하는 관념의 고집에도 머물지 않는다.

앉았다가 일어나 움직이는 행동을 할 때에도 해이해지거나 태만에 빠지지도 않는다. 번뇌는 점점 줄어들어 적어지게 된다. 진여삼매라야 여래의 종성(種性)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여래종성이란 부처가 되는 종자 곧 깨달음의 종자라는 뜻으로 여래종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부처의 종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칫 세상의 그릇된 삼매에 맛 들여 '나'라는 생각을 갖고 세상에 매여 소속되어버리면 외도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 외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경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여삼매는 생멸심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이다. 다시 말해 심의식(心意識)에 의한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진 경지이므로 자아관념이 일어나는 상(相)이 없다. 그런데 삼매를 닦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아만과 집착이 있고 세상에 매여 소속된다면 주관과 객관이 서로 대응하는 생멸심의 경계라 진여삼매가 아닌 것이다.

외도 삼매와 진여삼매의 차이를 밝힌 다음, 본문에서는 다시 진여삼매를 닦아 얻는 열 가지 이익을 밝히고 있다.

외도 삼매는 명리 · 공명 탐착
진여삼매, 相에 머물지 않아

①언제 어디서나 불 · 보살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곧 불 · 보살의 가피(加被) 속에 수행이 순조로워짐을 말하는 것이다.

②마귀나 악귀에 놀라지 않고 그들의 농간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수행의 방해를 극복하여 물러서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③갖가지 외도 곧 이단사상가에 현혹되지 않고, 귀신들의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 이는 수행에 임하는 정신상태가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다. 수행에도 때로는 정서적 장애가 일어난다.

④심오한 진리를 다시는 비방하지 않으며, 또 과거에 비방한 죄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한 장애가 점점 줄어들고 적어진다. 이는 정법을 모르고 믿지 않을 때의 죄업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⑤모든 의심과 잘못된 관념이 없어진다. 정법에 대한 확신으로 스스로의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 지는 것을 말한다.

⑥여래의 경계 곧 참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늘어난다. 이는 신심이 증대하여 여래의 경계에 가까워지면서 친해지는 것이다.

⑦근심걱정을 멀리하여 현실생활 속에서 용기가 솟아나고 비겁함이 없어진다. 이는 수행생활의 활력이 솟아나며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말한다.

⑧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교만도 없어지고 남에게 시달리는 일도 없다. 이는 저절로 인욕심이 생겨 외부와의 마찰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⑨완전한 선정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번뇌가 줄어들어 세속적 쾌락을 즐기지 않는다.

⑩밖으로부터 오는 충격에 놀라 동요되는 일이 없다.

선한 시주란 무엇일까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㉝시주자에게 증장돼야 할 것

施主增長品第六 (시주증장품제6)

悲心起施能與眾生樂聚。如是施主與眾生樂者。勝於解脫名為最勝。施主成他樂。因修悲者於一切眾生得平等心。如是者名為檀越。不能如是施者名為乞者。若行施時使聞者悲泣。是名善施。若不如是不名善主。若行布施能使受者子孫恣意受用歡喜讚歎名健施主。若乞而與不名施主。自往而與名善施主。若捨一切財物愛心而與不名施主。有悲心雖不與物名大施主。(비심기시능여중생락취。여시시주여중생락자。승어해탈명위최승。시주성타락。인수비자어일체중생득평등심。여시자명위단월。불능여시시자명위걸자。약행시시사문자비읍。시명선시。약불여시불명선주。약행보시능사수자자손자의수용환희찬탄명건시주。약걸이여불명시주。자왕이여명선시주。약사일체재물애심이여불명시주。유비심수불여물명대시주。)

번역

시주에게 증장되어야 할 것에 대한 품 제6

자비심으로 일으킨 보시는 능히 중생과 더불어 즐거움을 쌓습니다. 이와 같이 시주자와 더불어 중생이 즐거운 것을 해탈보다 뛰어나되 최고로 수승하다고 부르나니 시주는 타인의 즐거움을 이룹니다. 일체 중생에게 자비심을 닦은 인연으로 평등심을 얻나니,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단월(檀越)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보시하지 못하는 이는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보시를 행할 때 자비심에 감읍하였다는 말을 듣게 하면 이것을 선한 보시라고 부르나니,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선한 시주라고 하지 못합니다. 만약 보시를 행하여 능히 받은 이의 자손들이 마음대로 받아쓰고 기뻐 찬탄하면 굳건한 시주라고 말하나니, 만약 구걸해야 준다면 시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가서 주어야 선한 시주라고 하나니, 만약 일체의 재물을 희사하되 아끼는 마음으로 주어서도 시주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자비심이 있으면 비록 재물을 주지 못할 형편이어도 큰 시주라고 부릅니다.

해설

이번 6품 '시주증장품(施主增長品)'은 시주에게 증장되어야 할 것에 대해 설명한 품이다. 선한 시주란 어떤 보시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거듭 말하지만, 보시의 바탕은 자비심이다. 누군가에게 보시할 때 자비심이 바탕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보시가 선한 보시인지 중생심의 보시인지가 결정된다. 그리하여, 시주자와 구걸하는 이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경지가 되면, 이런 기쁨의 경지를 해탈의 경지보다 뛰어난 수승한 경지로 본다는 것이다.

깨달음을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등(正等)'은 '바르고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자비의 보시를 행하여 자비심을 닦을 때 이 '바르고 평등한' 경지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깨달음은 단순히 무언가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의 현실적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실천이 없는 앎은 깨달음이라 할 수 없다. 아울러 그 실천은 바로 자비심으로 행하는 보시의 마음이다.

재물의 양으로 시주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이는 보시가 단순히 구걸하는 이에게 재물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탐욕으로부터 해탈해야만 또한 진정한 시주자이기 때문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어떤 수행자

그들 부부를 처음으로 만난 곳은 남인도의 안주나 비치 언덕이었다. 바다 방향으로 놓인 긴 벤치에서 그들 부부는 해질녘 석양의 노을을 어깨동무하듯 서로 기대어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세찬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갔고 여인의 밀짚모자가 가볍게 날아갔다. 남자가 일어나 모자를 줍기 위해 갈 때 머리털 한 올 없는 여인은 담담히 그러나 엷은 미소로 남자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넝마차림으로 인도를 떠돌다 안주나 비치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한 달 가량 머물고 있었다. 해변의 언덕, 야자수의 그늘에 앉아 좌선에 몰입하다 다리운동을 위해 가볍게 거닐고 있을 때 그들 부부의 정겨운 모습을 지켜보게 된 것이다.

대화 한마디 나눈 적은 없지만 말기 암치료 중인 여인이 남편과 함께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될 여행을 인도의 해변에서 보내고 있으려니 하고 생각했을 뿐이다. 죽음을 앞둔 그들의 다가올 이별도 서럽고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내 처지는 그들에게 동정을 보낼 만큼 여유롭지 못할 때이다.

아내 떠나보낸 영국인, 티베트 승려돼
다시 만난 그는 합장으로 인사 했다

말라리아에 쓰러져 죽음의 터널에서 겨우 벗어난 직후였고 환장하고 미칠 만큼 한국의 모든 것이 그리운 향수병에 거식 증세까지 달고 다닐 때였기 때문이다. 그들을 다시 만난 곳은 바라나시의 천민의 살이 기름불에 타는 강변 화장터에서다.

그들 부부는 인도인의 고유의상을 입고 있었고 여인은 더욱 깡마른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남자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반가운 표정으로 '나마스테' 하고 제법 큰 소리로 인사했다.

안주나 비치에서의 며칠의 만남에는 눈인사 정도를 나눈 침묵의 인연인데 그들 부부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부부는 손짓과 눈빛으로 나를 이끌고 외국인이 즐겨 찾는 강변의 레스토랑으로 안내했다. 말없는 대화도 가능했던 것이다.

나의 단골 메뉴인 코리안 누들(신라면)은 그 식당 메뉴판에는 아예 그림자도 찾을 수 없어 팬케이크를 손짓으로 주문했다.

미소로 모든 언어를 대신하고 눈인사로 작별을 나눌 무렵,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두 부부가 관세음보살이 돼 나타났다. 여법하게 차려입은 승복 차림보다 넝마에 가까웠으나 삭발한 머리에 짙은 눈썹으로 향봉일 수 있겠다며 그들 중 한사람이 내게 한국말로 확인한 후 합석하게 된 것이다. 그들 한국인 두 부부는 교사였고 겨울 방학기간 동안 인도에서 자유여행 중 이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으로 있다는 한 거사는 어찌나 대화를 잘 풀어 가는지 나의 궁금증이 일시에 풀리고 있었다. 외국인 부부는 예상대로 영국인이었다. 아내가 위암 말기로 희망이 없자 직장에 장기 휴가를 낸 후 아내가 원하는 인도 여행을 하며 영혼의 안식처를 찾고 있었다. 안주나 비치의 언덕에서 바위처럼 앉아 있던 동양 히피가 승려라는 사실에 그들은 역시나 하는 표정이었다.

그 뒤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난 후 나는 티베트인이 모여 사는 라다트 지방의 '레'라는 도시에서, 정확히 말하면 헤미곰파의 천장터에서 영국인 부부 중 남자를 만나게 된다. 헤피곰파는 티베트 사찰인데 그 사찰의 천장터에서 자루에든 시체에 작두 칼질을 해 독수리 먹이로 뿌려주는 일을 영국인 남자가 자청해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죽었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달라이 라마를 만나 불교에 귀의했고, 남편은 끝내 영국행을 접고 티베트 불교의 승려가 됐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속 깊이 피멍울로 간직한 채 바람을 닮은 자유인이 되고 싶어 수행자의 길에 접어든 영국인은 나에게 '나마스테'라는 말 대신 합장으로 인사했다.

티베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자루에 넣어 사찰 부근의 천장터로 오게 된다. 그 자루에든 시체를 영국인 수행자는 작두 칼로 내리쳐 독수리 밥으로 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미 달관된 초인의 모습으로 생멸의 고통에서 적멸의 자유인을 향해가는 수행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가 작두칼로 내려치는 것은 관습과 허울을 벗어버린 진공(眞空)의 묘유(妙有)를 찾는 작업일터. 머리털 한 올 없던 그의 아내가 더러는 먹울음 덩이 돼 그의 시야를 흐리게 할지도 모를 일이다. 마날라에서 만나 함께 간 한국인 거사가 띄엄띄엄 통역을 해주었던 것이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 내 재등록을 하시여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구제 하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7월 28일 부터**
② 접수마감 : **2016년 9월 29일 까지**
③ 구비서류 :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3개월 이내) ····· 각 1부
·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각 1부 · 승려증 · 증명사진 3매
④ 접수장소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번지)
⑤ 전화번호 : 054-974-2605 / 팩스 : 054-974-2705

※ 위 기간에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의 종도로서 지위를 인정치 않으며 세무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찰등록증 취소 및 말소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이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은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참행복으로 가는 무소유의 생활선법(生活禪法)

화제의 신간 禪과 무소유

일상생활 전체가 선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좋든 싫든 간에 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선의 특색이다. 그래서 **선은 상식을 초월한다.** 그리고 초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초월이라는 그것마저 초월하는 것이 참된 선이다.

선은 사색하는 것이 아니며 추상적 명상 또한 아니다. 그것은 **일체의 지식과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다.**

왜 그대는 그렇게 많은 것을 축척하는가
왜 그대는 그렇게 많은 관념들을 집착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대가 가득차 있다고 느끼기 위함이다.

전국 서점 판매중!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정가 15,000원

법성요해 法性了解

깨달음의 궁극, 원융일심 화엄실상 법성지혜를 밝힌 책

▣ 원융불이 이사원융 사사무애 실상법계 일심의 깨달음세계를 이 책에 밝혔다.

♠ 화엄실상, 원융일지(圓融一智) 일심요의(一心了義) 각성의 실상을 밝게 드러내어 밝혔다.
♠ 깨달음 지혜로 일심, 일성, 일각의 실상을 정의하며, 일심원융세계를 밝혔다.
♠ 각종 차별개념과 중용, 중도의 실상과 그 차별 차원을 밝혔다.

신국판 | 세웅스님 역저 | 464쪽 | 정가 25,000원

원각경요해 圓覺經了解

깨달음, 구경성불 과정의 깨달음 지혜를 모두 밝혔다.

여래결정경계 원각삼종자성 수행의 실상, 심오한 각성세계를 밝히며, 대승, 일승, 불승보살 각성차별과 깨달음 각성과정을 모두 밝혔다.

♣ 깨달음 각성과정 지혜세계를 모두 밝힌 지혜점검 책이다.
♣ 구경성불 수행과정 깨달음 경계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세웅스님 역저 / 관음출판사 / 신국판 / 644쪽 / 정가 33,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전란 이겨내고 불교 조각 거두로 '우뚝'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⑮ 수연(守衍) 스님





17세기 전반 수연 스님이 만든 대표작인 1619년 서천 봉서사 목조석가여래좌상(사진 왼쪽)과 1639년 예산 수덕사 봉안 목조석가여래좌상(사진 오른쪽)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중에 소실된 사찰의 중창과 중수는 17세기 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 사찰의 복원은 명산대찰을 중심으로 주요 전각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사찰 내 전각은 종풍(宗風)이나 승려와 신도들이 필요로 했던 신앙(信仰)의 대상부터 건립되었다. 전각 건립 후에는 불상, 불화, 범종 등이 봉안되면서 민중의 귀의처로서 역할을 했다.

1600년대부터 1630년대 불교 조각계는 십여 명의 조각승을 중심으로 불상의 제작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서해안을 따라 불상을 만든 대표적인 조각승은 수연(守衍) 스님이다. 스님은 서천 봉서사 불상을 만들면서 증명으로 참여하거나 강화 전등사 불상 대좌에 "수취사대덕수연(首就師大德守衍)"으로 적혀 있어 당시 불교계에서 지혜와 덕망이 높은 승려로 존경받던 스님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수연 스님이 만든 불상은 8건 50여 점이 조사되었다.

조각승 수연 스님의 생애와 승려 장인이 된 배경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문헌과 사찰의 연혁을 적은 사적기(寺蹟記)를 통해 활동 시기와 내용, 조각승 계보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수연 스님은 1615년에 수화승 태전(太顚) 스님과 전북 김제 금산사 독성상을 조성하였다. 이 독성상 제작에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으로 참전해
終戰 이후 불상 조성 불사 '활발'
왜구 침략 소실된 사찰 불상 조성
호남 거주·서해안 중심으로 활동

참여한 태전 스님, 응원(應元) 스님, 법령(法令) 스님, 인균(印均) 스님은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들이다.

수연 스님은 수화승으로 만든 충남 서천 봉서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네 명의 조각승과 만드는데. 이 불상은 1618년 8월부터 1619년 정월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수연 스님은 불상 조성 시 증명까지 맡은 것을 보면, 1610년대 후반 이미 상당한 지위와 실력을 갖춘 승려로 추정된다.

이후 스님은 1622년에 왕실에서 발원한 한양 도성 북쪽에 있던 내원당(內願堂)인 자수사와 인수사에 봉안할 11구의 불상을 당대 최고의 조각승인 현진 스님, 응원 스님, 법령 스님 등과 조성하였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 서울 동대문 지장암에 봉안되어 있다.

또한 수연 스님은 1623년에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불상을 제작하였는데, 전등사를 중건한 지경(志敬) 스님과 불상 제작에 화주를 맡은 홍민(弘敏) 스님은 모두 부휴문도(浮休門徒)에 속하는 승려들이다. 화주인 홍민 스님은 1619년에 수연 스님이 제작한 서천 봉서사 목조삼존불좌상 제작 시 반두(飯頭, 식사를 담당하는 직책)로, 1639년에 청헌(淸憲) 스님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경남 하동 쌍계사 불상 제작 시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그의 영정(影幀)은 충북 보은 법주사 조사전에 봉안되어 있다.

수연 스님은 1625년에 전남 나주 쌍계사 목조석가오존상과 나한상 등(나주 다보사 봉안), 1634년에 전북 옥구 보천사 목조지장보살좌상와 시왕상(익산 숭림사 봉안), 1636년 전등사 목조지장보살좌상와 시왕상, 1639년에 남원 풍국사 목조삼세불좌상(예산 수덕사 봉안)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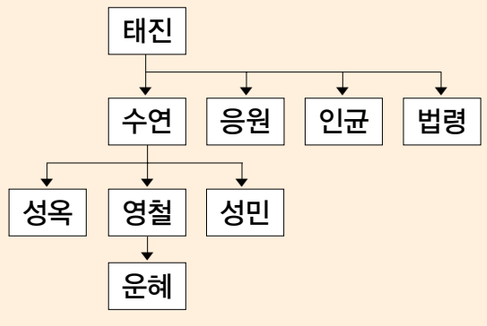
1623년 조성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목조여래좌상 대좌의 조성묵서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수연 스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스님은 1570년대 태어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의승군으로 활동한 뒤, 1615년 이전부터 불상 제작에 관여하였다. 스님이 불상을 제작한 사찰은 김제 금산사, 서천 봉서사, 서울 자수사와 인수사, 강화 전등사, 나주 쌍계사, 옥구 보천사, 남원 풍국사 등이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수연 스님의 활동 시기는 1615년부터 1639년까지다.

수연 스님의 스승이나 선배로 추정되는 태전 스님은 1601년부터 1635년까지 수문(守文) 스님과 금산사를 중건하였다. 당시 금산사는 전북지역에서 의승군의 총본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이유로 진신사리가 봉안된 금강계단 등의 중창이 이루어졌다. 태전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든 불상은 1612년에 전남 해남 대흥사 대웅전 목조여래좌상을 조성하였다. 태전 스님은 김제 금산사 중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전북에 거주한 스님으로 보인다.

수연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태전(太顚, -1600-1615-) → 수연(守衍, -1615-1639-)→ 성옥(性玉, -1619-1625-), 영철(靈哲, -1623-1649-), 성민(省敏, -1634-1639-) → 운혜(雲惠, -1649-1680-), 경림(敬琳, -1665-1680-)→인성(印性, -1660-1753-), 삼안(三眼, -1678-1740-) 등으로 이어진다. 수연과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들은 17세기 불교 조각계를 주도하던 작가들이다. 수연 스님이 만든 대표적인 불상은 서천 봉서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다. 불상은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관음과 대세지보살이 봉안된 삼존불이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가 96㎝의 중형불상이다.

수연 스님의 조각승 계보



불상은 약간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목이 거의 표현되지 않았다. 머리는 뾰족한 나발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로 표현되고, 육계 밑에는 머리 정상부에 반원형의 중앙계주와 정수리 부위에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있다.

타원형의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콧날이 뾰족하며, 입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오른손과 왼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어 아미타수인(阿彌陀手印)을 취하고 있다. 대의자락은 오른쪽 어깨에서 가슴까지 사선으로 접힌 옷깃이 부채 살처럼 늘어지고, 나머지 대의자락은 오른쪽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은 대의자락은 복부에서 편삼과 접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복부에서 직선으로 길게 늘어진 두 번째 옷주름이 가장 위쪽에 놓여 있고, 끝부분이 역삼각형(▽)으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끝부분 처리는 현진(玄眞) 스님이 제작한 1626년 보은 법주사 불상과 1633년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삼존불좌상 등에서 볼 수 있어 17세기 전반에 유행한 옷 주름 표현으로 보인다. 왼쪽 무릎을 덮은 소매 자락은 잎사귀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崎)는 가슴까지 올려 끝부분이 대각선으로 접혀 있다. 불상의 측면은 어깨선을 따라 한 가닥의 옷 주름이 수직으로 내려와 끝부분이 'ㅈ자형'으로 마무리되었다.

협시보살은 신체와 의습 처리에서 본존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화려한 보관을 쓰고, 끝부분에 술을 매단 'X자형'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 좌우 협시보살은 수인이 대칭을 이루고, 왼쪽 팔뚝을 따라 한 가닥의 '옷 주름'이 사선(斜線)으로 내려와 끝부분이 꽃잎 모양으로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옷 주름' 표현은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불상에서 왼쪽 팔뚝에 수직으로 내려오던 옷자락이 옆으로 표현된 것이다. 또한 대의 안쪽에 입은 편삼이 대의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면서 넓게 펼쳐진 점이 가장 특이하다.수연 스님이 1639년에 만든 전북 남원 풍국사 목조삼세불좌상(예산 수덕사 봉안)은 본존이 높이가 155㎝이고, 협시불상은 145㎝인 중대형 불상이다. 이 불상은 서천 봉서사 불상, 강화 전등사 불상, 익산 숭림사 봉안 지장보살상과 전체적인 형태가 유사하다. 특히 서천 봉서사 불상보다 얼굴이 조금 작아지고, 몸이 가늘어진 것을 제외하면 신체 비례와 옷 주름 표현 등이 동일하다.

예를 들어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 1619년 서천 봉서사 불상과 같으면서 끝부분이 U자형으로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고, 1623년 강화 전등사 협시불과 달리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이 복부에서 수직으로 내려와 끝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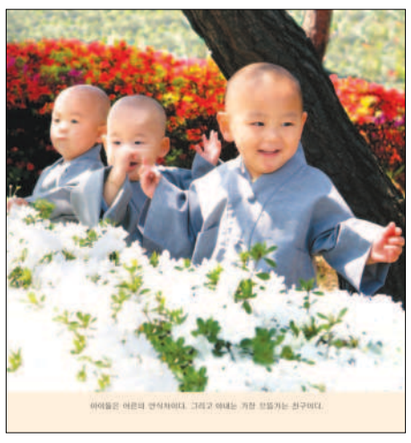
수연 스님이 제작한 불상은 90~155㎝ 정도의 중형 목조불상을 주로 제작하였다. 그가 제작한 불상의 신체비례는 높이와 무릎 너비의 비율이 서천 봉서사 불상(1619년)보다 예산 수덕사 불상(1639년)이 줄어들었다.

서천 봉서사 불상은 인상(印象)이 넓은 이마에 이목구비(耳目口鼻)가 얼굴 중앙으로 몰려 있고, 코는 짧고 뾰족한 편이다. 오른쪽 어깨에 짧게 걸친 대의자락의 형태는 서천 봉서사 불상과 강화 전등사 불상(1623년)이 대의 끝단이 동일한 위치에 펼쳐져 있고, 익산 숭림사 보살상(1634년)은 대의자락이 목에서 팔뚝까지 거의 45도로 완만하게 늘어져 있으며, 예산 수덕사 불상은 옷깃이 U자형으로 늘어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서천 봉서사 불상, 익산 숭림사 보살상, 예산 수덕사 불상이 배에서 가운데로 길게 늘어진 두 번째 옷자락이 가장 위에 펼쳐져 있고, 끝부분이 역삼각형, 사다리꼴형, 원형으로 처리되어 같은 시기에 제작된 불상의 옷주름 표현과 다르다.

그러나 왼쪽 무릎 위에 늘어진 소매 자락은 익산 숭림사 보살상에서 사선 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끝이 뾰족한 반면 예산 수덕사 불상에서는 넓고 길게 펼쳐져 있다. 마지막으로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崎) 표현은 강화 전등사 불상의 본존만 연판문(蓮瓣形)으로, 다른 불상은 수평이나 사선으로 접어 간단하게 표현하였다.

수연과 그 계보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 양식을 바탕으로 전국 사찰 전각에 봉안된 제작연대를 알 수 없는 불상 가운데 17세기 전반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은 전남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전북 정읍 내장사, 전북 군산 상주사, 전북 김제 문수사, 전북 완주 화암사 명부전, 경기 가평 현등사 극락전, 성남 봉국사 대웅전 등에 봉안되어 있다.





12절(벽걸이형)달력
100부 이상@ 1000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25.8㎝×26.5㎝

한지달력 200부 이상@
• 정가 2,000원
• 규격:30㎝×63㎝
1,800원

수첩달력 200부 이상 @600원
• 100부 @700원
• 규격 : 9.5㎝×13.4㎝ • 매수:18장

탁상달력200부 이상@
• 정가 2,000원
• 규격:26㎝×19㎝
1,800원

미니달력 200부 이상 @450원
• 100부 @500원
• 규격 : 8.9㎝×9.5㎝ • 매수:16장



영가옷B형-남 정가1,200원 영가옷B형-여



영가옷C형-남 정가1,000원 영가옷C형-여



수자영가옷 정가800원



동남영가옷 정가900원 동녀영가옷



금강경탑다라니 정가2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1,000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直指 정신과 현대미술의 성공적 '콜라보'

직지코리아 주제 전시
'직지, 금빛 씨앗' 展


최정화 작가의 작품 '마음(Rhizome)'은 시민과 서예가 등 900명이 쓴 활자를 하나하나 모아 만들었다.

현존하는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의 창조적 가치가 현대미술과 만난 전시회와 일련의 축제 행사가 초가을에 대중을 찾는다.

청주시가 주최하고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이 오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과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직지, 세상을 깨우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인류 인쇄문명의 혁신을 보여준 〈직지〉의 정신을 알리는 국제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주제 전시 '직지, 금빛 씨앗'전이다.

직지를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금빛 씨앗으로 정의해,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중국, 캐나다, 터키 등 11개국 35개팀의 작가들이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재조명한 작품을 선보인다. 대부분이 이번 전시를 위해 만들어진 신작이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조직위는 다수의 작품을 장기 소장해, 국내외 연계전시를 통해 직지를 알릴 계획이다.

전시는 크게 △'빛, 그림자를 보다(Behind Illumination)' △'빛과 어둠이 만나다(Eclipse)' △'빛, 다시 비추다(Re-Illumination)'로 나눠져 있으며, 다시 소주제로 세분화된다.

'빛, 그림자를 보다(Behind Illumination)'에서는 활자 문명의 변천사를 그려낸 연대기와 일러스트를 통해 지금껏 조명되지 못한 직지의 숨은 가치와 역사를 볼 수 있다. '빛과 어둠이 만나다(Eclipse)'는 건축가가 임시 구조물을 디자인한 문자터널과 은하계를 표현하는 새로운 스테인드글라스가 전시공간을 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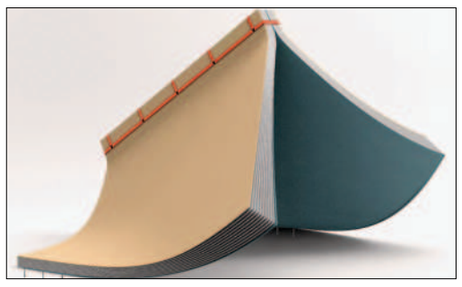
마지막인 '빛, 다시 비추다(Re-Illumination)'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직지에 대한 예술가들의 해석을 볼 수 있다. 재료와 질감을 살린 작품부터, 예술과 과학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요작품으로는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로 손꼽히는 론 아라드(Ron Arad)가 조형물이자 건축물인 '직지 파빌리온'을 선보인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담은 '직지, 금빛 씨앗' 전시를 목차로 나누어진 책으로 본다면 파빌리온은 표지와 같다.

직지의 제본 형태인 선장본에 영감을 받아, 옛 책을 엎어놓은 형태를 하고 있다. 모듈러 형식으로 조립·해체·설치가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높이 12m, 넓이 64㎡의 건축물인 이 작품은 행사가 끝난 후에도 청주시가 소장해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될 예정이다.

오는 9월 1~8일 청주 일원 개최
11개국 35개 작가팀 참가 '눈길'
미디어아트·VR 등 융복합적 전시
'직지코리아', 국제행사로 승격돼
전시·공연·컨퍼런스 등 행사 다채


론 아라드가 제작한 '직지 파빌리온'의 조감도.

한국 작가의 작품 중에는 최정화 작가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그는 〈직지〉에 사용되었던 한자를 한글로 형상화하며, 그 의미를 '마음'으로 풀이한다.

시민과 서예가 등 900명이 쓴 활자를 하나하나 모아 만든 작품 '마음(Rhizome)'부터 인지의 구성 요소인 '색·수·상·행·식'을 형상화는 '오온(Ohon)', 활자를 붙여서 나선으로 쌓아 올린 작품 '마음(心, Multiverse)'까지 모두 불교적 의미가 담겼다.

수년간 〈직지〉의 글을 모사한 신용일 작가의 작품도 눈여겨볼만 하다. 불교에서 실체가 없는 절대적 존재를 뜻하는 용어인 '순야타(Sunyata)'를 작품 제목으로 사용한 그는 반죽이 된 흙을 비닐봉지에 채우고, 조그만 구멍을 뚫어 캔버스 판에 '흙' 글씨를 써내려간다. 혹은 정성스레 쓴 글씨를 돌가루와 흙이 섞인 물감으로 지운다.

이를 다시 헝겊으로 닦아내면 사라졌던 글자가 마티에르 위해 나타난다.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일련의 작업들이다.

또한 전시회에는 직지와 구텐베르크 성서, 훈민정음 발명에 영향을 끼친 유물도 전시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직지〉보다 더 오래전 만들어졌다는 금속활자본 〈증도가〉 등을 통해 직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어떤 방식으로 전파했는지를 보여준다.

구텐베르크 인쇄술 발명까지 이르게 했던 상업적 의도를 반사경과 면죄부를 통해 알려준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전, 세종실록에 실린 한 구절과 측우기로 애민사상을 보여주고 한글을 쉽게 깨우치도록 만든 '용비어천가'까지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직지코리아에서는 글로벌 유명 연사들의 릴레이 강연 '골든씨드 라이브 쇼'를 비롯해 6회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 세계인쇄박물관협의회 창립총회,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직지코리아는 올해 처음 국제행사로 치러지는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며 "놓치면 후회할 직지코리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043)271-9361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화폭에 피워낸 부처… 여기가 바로 불국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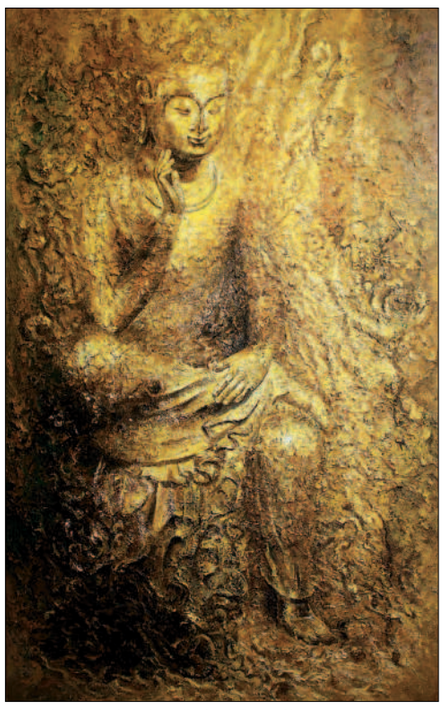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
신진작가 및 개인전 잇달아
조영아 '라오스 그리기'展
이혜숙 '南無 思惟佛' 전시
부처를 주제로 작품 그려내

다양한 서양화 기법으로 그려진 부처님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1관과 2관에서 신진작가공모 당선 작가전과 개인전 전시를 각각 개최한다.

불일미술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신진작가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조영아 작가의 전시회는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열린다.

조 작가의 전시 주제는 '라오스 그리기.' 지난해 여름 불교국가 라오스를 여행한 작가는 라오스의 정감 있는 일상에서 감명을 받고 여행 중에 마주하는 그대로를 편안하게 스케치하고 수채화로 작업을 진행했다.


이혜숙 작가의 '나무에게 길을묻다'

불일미술관은 "라오스의 있는 그대로의 일상을 보며 가끔은 쉼을 위한 쉬어가는 여정이 필요함을 알아차리게 하는 따뜻한 전시"라고 평했다.

현재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이혜숙 작가의 개인전 '나무 사유불(南無 思惟佛)'은 같은 부처님을 그렸지만 표현 방식이 조 작가와는 다르다. 유화로 그려낸 그의 작품은 사실적이면서 표현력 또한 매우 풍부하다.

작가는 불교적 세계관의 새로운 화풍을 선보이며 연기적 새로운 변주를 하고자 한다. 친숙하면서도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나무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래서 전시 주제도 '나무 사유불'이다.

불일 미술관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무 아래서 태어나고 정각을 이뤘다. 이처럼 여래가 곧 나무였고 나무가 곧 청정도량이었다"면서 "작가는 나무를 통해, 고요한 사유에 귀의하는(南無), 중생의 여래를 그려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작가의 전시는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지역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로 오세요

27일 수국사 '나눔의 노래'
28일 보덕사 '호수 음악제'

늦여름 지역 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산사음악회가 잇달아 열린다.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는 8월 27일 오후 7시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2회 수국사 나눔의 노래'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구산동 주민자치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산사음악회는 이종만 풍경소리 실장이 이끄는 뉴트리팝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가수 한영애, 우순실, 비보이 퓨전 MC 등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또한 주지 호산 스님과 오랜 인연을 쌓아온 소리꾼 장사익 씨가 수국사 태극선수련회와 함께 태극권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끈다.

수국사는 여타 산사음악회와 달리 무료공연이 아닌 일부 유료로 티켓을 판매한다. 이유는 지역 청소년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음악회를 통해 모인 기금은 전액 은평구청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장학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02)356-2001

충남 당진 보덕사(주지 정안)는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해 '제9회 보덕사 호수음악제'를 연다. 8월 28일 보덕사 경내 특별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음악제는 국가 및 종교, 인종, 승속의 장벽을 넘어 문화를 공유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축제의 시작은 당진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캄보디아, 베트남 등 각 나라별 모임들의 전통공연이 알린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전달도 이뤄진다.

본행사인 호수음악제는 뉴트리팝스 오케스트라(지휘 이종만), 판소리 강경민, 소프라노 유현주, 바리톤 박성준, 초대가수 나현아, 김국환 등의 무대로 가득 채워진다.

주지 정안 스님은 "호수음악제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이웃들이 당진 시민들과 함께 서로 이해하고 삶의 동반자로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된 자비의 공간"이라며 "음악을 통해 소통과 나눔의 문화를 실천해 당진시가 화합·치유의 성지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041)353-9306

신성민 기자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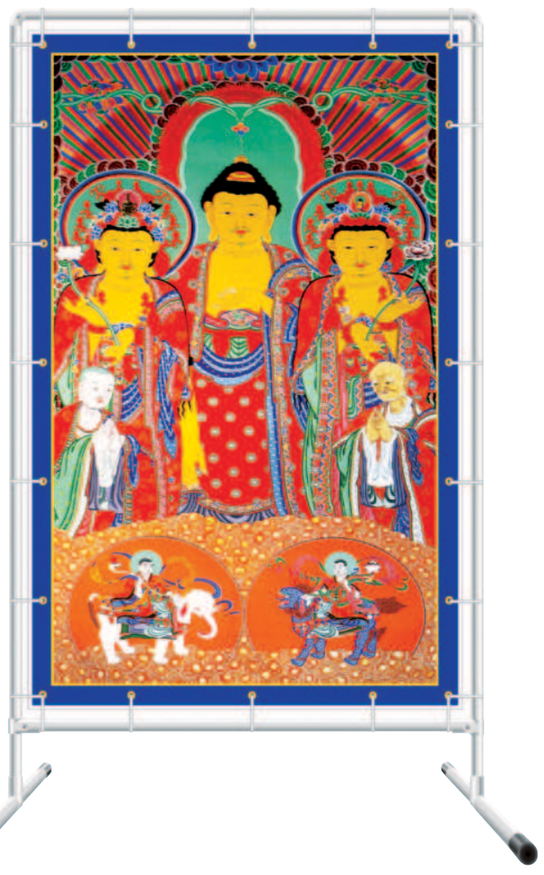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7.29~2016.8.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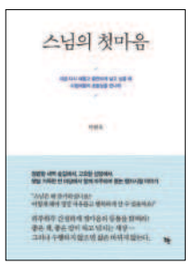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2	불교입문-도표로읽는	이자랑	민족사
3	알기쉬운 쑥쑥 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4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5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6	지장기도(손으로쓰고마음으로그리는)	지원스님	민족사
7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주)조계종출판사
8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원시불교	나카무라하지메/원영	문예출판사
9	날마다 새날-불교 명절에 담긴 수행이야기	법륜	정토
10	이뭐꼬-마음에 새겨듣는 성철 큰스님의 말씀	퇴옹 성철	장경각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출가자 대표적 삶의 태도… 지극한 마음과 정성

스님의 첫마음

박원자 지음 | 뜨란 펴냄 | 1만 5천원





저자인 박원자 작가

48가지 초발심 풍경과 구도여정 소개
초발심 수행자 화두… 참회와 하심
1백년 한국 불교 수행사도 수록돼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신선하고 재미있지만, 그만큼 힘든 순간은 아마도 처음 무엇을 하려는 순간일 것이다. 그때 마음 먹은 '첫마음' 즉 초발심을 유지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신선하고 아름답다. 조계종 종정, 총림의 방장, 승가대학 학장 등등 이 책에 등장하는 한국 불교의 구심점 같은 선지식들에게도 그 첫마음을 낼때가 분명이 존재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하다. 그 시절 그 선지식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이 책에 소개된 이들의 초발심 풍경은 다채롭고 감동적이다. 우선은 감히 흉내 내기조차 힘든 치열하고 지난한 수행 과정이 단연 눈에 띈다.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법전 스님은 한 겨울 찬밥 한 덩이에 김치 몇쪽 올려놓은 채 끼니를 해결하며 좌복 위에서 죽을 각오로 정진한 열정적 초발심 시절을 들려준다. 해인사 금강굴 불필 스님은 3년 결사를 끝내자마자 또다시 의자도 이불도 없이 100일 동안 서서 살다시피 하며 참선 수행한 경험을 회고한다. 이외에도 백만 배 절을 올리고, 하루 한 끼 공양과 장좌불와로 수행하며 촌음을 아껴 깨달음을 구한 이야기들도 소개됐다. 극도의 용맹정진 끝에 이들이 얻은 결과는 같다. 두려움도 걸림도 없는 완전한 자유였다.

수행자들이 초발심 시절에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 참회와 하심이다. 알게 모르게 형성된 업과 아만심을 버려야 나와 세상을 바르게 보고 흔들림없이 구도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절에 두고 간 할머니가 미워 날마다 눈물을 흘린 관후 스님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깊은 참회를 올렸다. 그리고 깨닫는다. 남에게 상처주지 말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어려운 행자시절을 6년이나 보낸 석주 스님.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표정에 변화가 없어 인욕보살로 불린 철산 스님. 병마를 극복한 후 참회와 하심만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알았다고 고백한 법의 스님. 이들의 이야기는 나를 내세우기 급급한 이 시대에 깊은 울림을 전한다.

이 책의 전반에 흐르는 수행자의 대표적인 삶의 태도는 '정성'이다. 이들은 모든 일에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 사람이든 미물이든 공부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한다.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료하다. 바로 우리들 내면에 첫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스스로 자기 삶의 수행자가 되어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가에는 "삼 일 동안 마음 닦는 것은 천 년의 보배요, 백 년 물질을 탐하는 것은 하루아침 티끌"이라는 말이 있다. 또한 "하루 종일 남의 보물을 세고 있어도 나에게는 반 푼어치도 안 들어온다."는 화엄경 구절도 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수행과 체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책에 담긴 마흔여덟 가지 초발심 풍경과 치열한 구도 여정은 그대로가 살아 숨 쉬는 법문과 같다. 게으르고 무지한 영혼에 밝은 등불이 되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귀한 스승이다. 이 책에는 한국 불교 백년사가 녹아 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 동안의 한국 불교 수행사, 절집의 풍속과 수행 문화, 솔직 담백한 일상생활, 고승들의 수행법 등이 풍성하게 기록돼 있다. 특히 노스님들의 회고를 통해 만암, 한암, 금오, 청담, 성철, 해안, 청화, 일타, 동산 스님 등 한국 불교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수많은 선지식들의 언행과 수행담이 흥미롭게 되살아나 눈길을 끈다.

이 책의 저자는 20대에 불교에 입문한 뒤 25년 동안 글쓰기와 수행을 함께한 불교전문작가이다. 그중 10여 년 이상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스님들의 초발심 시절을 인터뷰해 월간 〈해인〉에 기사를 연재했다. 쉽게 듣지 못할 출가자의 내밀하고 실제적인 삶의 풍경에 독자들은 뜨거운 애정을 쏟아냈다. 출가를 꿈꾸다가 실제로 입산한 예도 있고, 노스님의 어린 시절에 눈시울을 붉혔다는 수녀님도 있다. 대학 강의실에서는 교수의 낭독으로 강의실이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큰 관심 속에 연재된 1백여 명의 행자시절을 모아 십수 년 전 처음 책으로 펴냈다. 그동안 여러 스님들이 자신의 육성을 남긴 채 안타깝게 세연을 다했고, 그때 만난 중진 스님들은 원로 스님들이 되었다. 출가의 환희를 차분하게 들려주었던 젊은 스님들은 이제 한국 불교계의 중추가 되어 선원장으로, 승가대학장으로, 현대적인 감각의 주지 스님으로 사회 곳곳에서 활약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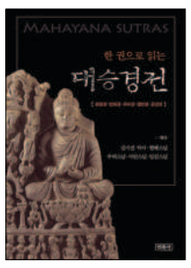
저자는 이전 원고를 꺼내 꼼꼼히 손보고, 해인사 방장 법전 스님, 금강굴 불필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등 몇몇 스님들을 추가로 인터뷰하여 새롭게 책을 구성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 말미에 인물 및 용어 설명도 덧붙였다. 이렇게 먼저 48분의 이야기를 개정증보판으로 선보이고, 나머지 분들의 출가 수행담도 곧이어 출간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대승 불교의 사상과 철학 한권에

한 권으로 읽는 대승경전

역자/김지견 박사, 현해 · 무비 · 지안 · 일감 스님
민족사 펴냄 | 2만 5천원



대승경전은 기원을 전후해 반야경을 시작으로 많은 경전이 성립됐다. 그 가운데서도 대승불교의 사상과 철학을 담은 대표적 경전이 바로 이 책에 수록된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열반경〉 〈금강경〉이다. 대승경전은 성립 시기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눈다. 용수 이전의 대승경전을 초기 대승경전, 그 이후 세친까지를 중기 대승경전, 또 그 이후 밀교의 성립까지를 후기 대승경전이라고 한다.

초기에 성립된 대승경전으로는 〈육바라밀경〉 〈보살장경〉 〈아촉불국경〉 〈반야삼매경〉 〈수능엄삼매경〉 〈반야경〉 〈화엄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법화경〉 등이 있고, 중기 대승경전으로는 〈대방등여래장경〉 〈유마경〉 〈승만경〉 〈대반열반경〉 〈해심밀경〉 〈능가경〉 〈금광명경〉 등이 있으며, 후기 대승경전으로는 〈대일경〉 〈금강정경〉 등이 있다. 후기 대승경전은 주로 밀교관계 경전이 많다.

이 책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대승경전인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열반경〉 〈금강경〉을 한 권 속에 묶었다. 여기에 수록된 대승경전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불교서는 대단히 중시하며, 사상적 바탕이 된다. 특히 중국, 한국 불교도들에게 화엄경을 비롯한 대승경전은 반세기 전 아함경이 알려지기 전만 해도 유일한 경전이었다. 또한 이 경전들은 한국불교도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독송하는 경전이기도 하다.

〈화엄경〉은 깨달음의 세계를 극명하게 묘사하면서, 그러한 세계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보살의 수행단계나 구법(求法)의 이야기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이사무애(理事無碍)'를 넘어 '사사무애(事事無碍)의 법계관'은 오늘날 현대사조의 갖가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철학이다.

〈유마경〉은 많은 불제자에게 공(空)과 불이(不二)의 진리를 설한다. 다양한 각도서 공과 불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 법문을 구하는 보살의 존재방식을 설한다. 특히 62가지의 사견(邪見)이 곧 진리를 깨닫는 바탕이 되며,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논리는 역설적인 논법을 통해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 뒤집으면 그것이 곧 진리요, 극락이라는 것이다.

〈법화경〉은 '일승(一乘)' '일불승(一佛乘)'의 가르침을 설하는 경전이다. 중생들을 최고의 진리인 '일불승'으로 이끌기 위해 먼저 방편으로 삼승(三乘 : 성문, 연각, 보살)을 설한 다음에 그들에게 대승의 가르침인 '일승(一乘)' '일불승(一佛乘)'을 설한다.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처음으로 '불타, 곧 여래는 멸(滅)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불신상주설(佛身常住說)'을 설하고 있다. 특히 절묘한 비유와 방편으로써, 모든 중생을 최고의 진리인 '일승(一乘)' '일불승(一佛乘)'으로 안내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법화경〉에 의하면, 붓다는 원래 먼 옛날에 도(道)를 이루어 무한한 수명을 얻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붓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과 같은 모습, 곧 입멸(죽음)을 맞이하는 현상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려는 자비심 때문이라고 말한다. 〈열반경〉은 '일체중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성, 여래장을 갖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고 설한다. 불성, 여래장은 동의어인데 곧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바탕, 부처의 씨앗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든 그 마음과 인성 속에 불성의 인자(因子)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본질적으로는 부처'라는 선언으로써 평등사상이자, 중생의 인격에 대한 존중인 동시에 무한한 희망을 주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경전이다. 〈열반경〉의 대표적 사상이 바로 여래장사상과 불성사상이다.

〈금강경〉은 공(空)사상을 설한 경전이다. 일체는 공하여 실체가 없으므로 집착하지 말라,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고정적인 가치관이나 집착을 갖게 되면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사상은 초기에 성립한 금강경 등 〈반야경(般若經)〉에 나타난다. 그들은 붓다의 참 모습을, 불상이나 육체적인 모습에서 찾지 않고 '붓다의 지혜가 곧 불(佛)'이라고 확신했다. 반야지혜가 깨달음의 목표였다. 그래서 지혜(般若婆羅蜜)를 강조했는데, 이 지혜의 획득이야말로 보살, 곧 대승의 수행자가 터득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했다. 이 지혜에 의해 파악된 세계의 존재방식을 '공(空)'이라고 불렀다. '대승(大乘)' 또는 '대승불교'란 '큰 탈 것(큰 가르침)' '뛰어난 탈 것(뛰어난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곧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며, 그 가르침으로 어리석은 중생들을 미혹의 세계로부터 깨달음의 세계로 실어간다는 의미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족첸(대원만) 수행의 안내서!



아로 예세 중내의 족첸 수행 지침
깨달음을 얻는 티베트 수행 요결

10세기 티벳불교의 위대한 성취자이자 스승인 아로 예세 중내의 핵심 가르침!
티벳불교의 가장 높은 단계의 가르침인 족첸 수행에 대해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설명! 어떻게 마음의 본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마음의 본성에 머무는 삶을 살 것인가? 근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아홉 단계의 수행법을 통해 모든 이들을 행복과 평안으로 이끌어준다.

켄첸 빨덴 셰랍 린포체 • 켄뽀 체왕 된걀 린포체 저 / 고수연 옮김 / 국판 / 256쪽 / 값 14,000원

부처님의 가피가 가장 수승한 법화경 사경!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말 (전5권)
법화경 사경
혜조 역 / 사륙배판 케이스
전체 940쪽 / 값 40,000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한문 법화경 사경 (전7권)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750쪽 / 값 4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네팔 어퍼 무스탕, 탱화·사원 발굴 '가속화'

아메리칸히말라야 재단, 잠파 라캉 등 복구 작업 돌입

'숨겨진 불교문화의 보고'로 알려진 네팔 '어퍼 무스탕(Upper Mustang)' 지역서 탱화를 비롯한 전통 티베트 불교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숨 가쁘다.

어퍼 무스탕 지역은 1992년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기존 네팔 정부는 무스탕 왕국의 수도인 '로 만탕(Lo Manthang)'으로의 여행을 불허했기 때문에 1991년까지 무스탕은 일반에 완전히 차단돼 있었다. 그러나 1991년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일부 관광객들에게 출입을 허가했다.

이후 세상에 공개된 어퍼 무스탕에선 초기 불교의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 및 동굴벽화, 조각 등 불교유적이 대거 발견됐다. 특히 이 지역 로 게카르(Lo Gekar) 사원은 티베트 불교의 창시자가 건축한 것으로, 티베트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연 침식작용 및 2014년 발생한 대지진 피해로 인해 잠파 라캉·로 게카르 사원 등에 피해가 발생, 대대적인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8월 3일(현지시간) "지난해 지진으로 잠파 라캉 사원 곳곳에 금이 갔다. 로 게카르 사원도 자연 침식작용으로 인해 벽과 기둥 등이 훼손됐고, 프레스코 벽화가 검게 그을렸다"며 "현재 이 지역엔 탱화를 비롯한 전통 티베트 불교문화를 보존·복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라고 설명했다.

복구는 아메리칸히말라야재단(American Himalayan Foundation)의 총괄로 진행된다.

그 중 탱화 복원팀의 소속원인 왕 지그메(Tsewang Jigme) 씨는 "이곳 벽화들은 세계 어느 것과도 대체할 수 없다. 복구 작업 중에도 볼 때마다 긴장된다"며 "매우 조심히 다뤄 손상 없이 복구할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이라 말했다. 지그메 씨는 티베트의 독특한 불교문화를 수호하려는 예술가로, 중국서 종교를 극심히 탄압하던 문화혁명 시절 탈출했다.

주민들은 탱화 복원 작업에 유독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탱화

1992년 세상에 공개된 후
불교문화 발굴 관심 확대
미 정부 지원으로 '본격화'
최근 탱화복원 작업 중점

를 복원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와 다름없다고 여길 정도다.

지그메 씨는 "탱화를 덮고 있는 진흙을 제거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서서히 탱화가 모습을 드러내자 마을 주민들이 오열하기 시작했다"며 "마을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는 탱화를 무사히 복원하기 위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감행할 것"이라 말했다.

어퍼 무스탕 지역은 지난해 4월 네팔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비교적 적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 지역의 마을 사람들은 "복구된 탑이 마을을 지켜준 것"이라며 강한 불심을 드러냈다.


네팔 '어퍼 무스탕(Upper Mustang)' 지역의 불교 유적을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사진출처=scmp

그러나 모든 불교문화 유적이 대지진을 온전히 피해간 것은 아니었다. 로 만탕 지역의 왕궁을 비롯해 많은 사원들이 배수 시설의 파괴로 곰팡이 피해 등을 입었다.

특히 벽화에 세계 최대 만다라가 그려진 것으로 유명한 15세기 건축된 잠파 라깡 사원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벽 곳곳에 금이 갔고, 여전히 바닥에는 500년 역사의 프레스코 벽화 조각들이 흩어져있다.

한편 어퍼 무스탕 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은 2008년 비영리단체 로 걀포 지그메 재단(Lo Gyalpo Jigme Foundation)이 미국 정부로부터 2만3000달러(한화 약 2500만원)를 지원받으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0년 전 이 지역 게미(Ghemi) 마을의 2개 쵸르텐(마을을 액운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불교식 탑)은 거의 붕괴 직전이었다. 당시는 불교문화 보존에 대한 의식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 중 1개는 마을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돼 내부 석판이 모두 깨져 있었다. 이에 재단은 100여 명이 넘는 일꾼을 투입해 대대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알래나 테필츠 네팔 주재 미국 대사는 "이곳의 다채로운 문화유산 대부분은 대체 불가능할 만큼 가치가 높다. 하지만 기념비들 대부분은 진흙으로 빚어지고, 그림과 나무 조각으로 이뤄져 변질되기 쉽다"며 "이미 손상된 문화유산에 대해 네팔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은 매우 상심할 것"이라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英 브렌트우드, 어린이 명상교실 운영 '눈길'

5~12세 위해 '사람·동물·자연' 주제로 명상 진행

영국 한 불교센터가 어린이들을 위한 명상프로그램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에 위치한 브렌트우드 불교센터는 오는 9월 10일부터 5~12세 어린이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매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조 홀트는 "컴퓨터와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과 달리 어린이들은 5~6세의 이른 나이에 스마트폰 등 기계를 접한다. 이에 따라 개인 간 유대관계가 줄어들고 자연과 동물 등 주변의 아름다운 것을 접할 기회를 잃었다"며 "이런 현상은 그들의 자비와 연민심을 줄어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상은 기계문명으로 소홀해진 주변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된다. 어린이들도 명상을 하면 자신만의 여유와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들은 명상센터에서 사람, 동물, 자연 등 3가지 주제에 맞추어 명상을 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게임과 시(詩), 노래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쌓는 경험도 가질 계획이다.

어봇제임워드 브렌트우드 불교센터 장은 "수업은 보호자들도 함께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의식을 상승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주 어린이 명상그룹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일상생활에서 느낀 감사함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한다.

브렌트우드 불교센터는 프로그램 진행 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달 '마음, 몸 그리고 영혼(The Mind, Body and Spirit)' 행사를 실시했다.


영국 잉글랜드 브렌트우드 불교센터는 9월부터 5~12세 어린이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매주 진행한다. 사진출처=에식스크로니클닷컴

한편 브렌트 우드 불교센터뿐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명상의 장점을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 있다.

엠마 세팔라 스탠퍼드 대학의 '연민과 이타심 연구 및 교육 센터(CCARE)' 연구원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명상이 행복과 연민심, 그리고 사람간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세팔라 연구원은 "명상을 주제로 한 수백 개의 연구를 통해,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면역력을 기르고 통증 및 상처의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또한 뇌 심상화 연구를 통해 명상이 주의력과 집중을 길러주고 기억력을 향상 시키게 해주며 궁극적으로는 행복과 자비심을 상승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어봇제임워드 센터장은 "명상으로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생각하는지를 자각하게 하고 조절하게 할 수 있다"며 "수많은 연구결과가 뒷받침 해주듯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을 증대해 주고 안정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싱가포르 억만장자, 5만여 불교 예술품 공개

홍 레옹 회장, 소장품 5만여 점 개인 박물관에 전시

싱가포르 대기업 홍 레옹 그룹의 외 홍 레옹(Oei Hong Leong) 회장이 평생 수집한 불교 예술품 5만여 점을 전시한다.

경제지 '포브스'는 8월 3일(현지시간) "억만장자 외 홍 레옹 회장이 4층 규모의 개인 박물관 '네이 쉬에 탕'서 5만여 점의 불교 예술품을 전시할 예정"이라며 "전시품들은 인도·태국·중국·몽골 등 아시아 전역서 수집됐다. 이 박물관엔 오직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홍 레옹 회장은 40년 전 싱가포르로 이사 오며 불교 예술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내가 불교 예술품에 매혹된 이유는 '숙명'과 다름없다"고 말한 홍 레옹 회장은 당·송·명나라 시대 진귀한 예술품을 포함, 최대의 개인 소장 예술품을 보유한 사람이다.

전시품들은 판매는 불가할 예정이다. 특히 홍 레옹 회장은 소장품 전부를 전시할 추후 계획에 대해선 "그럴 예정 없다"고 답하며 "소장품 전부를 미래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싱가포르 국립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홍 레옹 회장은 "불교 예술품 수집이란 취미가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줬다. 그 운으로 사업도 성공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개인 소장품 '18승려들'과 함께 있는 외 홍 레옹 회장 모습. 사진출처=inusanews

한편 이번 전시에선 홍 레옹 회장이 보유한 예술품 중 일부 소장품이 제외됐다. 공간적 한계 때문에 모든 소장품을 수용할 수 없고, 가장 진귀한 것들은 회장의 저택에 보관 중이기 때문이다. 전시서 제외된 소장품 중 '18승려들'이라 불리는 122cm 목조 조각상은 홍 레옹 회장이 20년 전 싱가포르의 한 사원서 구입했다. 홍 레옹 회장은 20년 전 약 77억을 주고 산 이 조각상이 현재는 3배에 달하는 가치를 지닐 것이라 추정한다.

박아름 기자

티베트 비구니 스님 소신 공양

"라룽가르 축소 및 탄압 못참아" 유서 남겨

중국 쓰촨성에서 티베트 비구니 스님이 당국의 티베트 탄압정책에 항의해 자살했다고 '티벳포스트'가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티베트 최대 불교학원인 '라룽가르 불교아카데미' 소속 비구니 스님 릭진돌마가 "순수한 티베트 승려들을 억압하는 중국의 행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자살했다.

릭진 돌마 스님은 중국 쓰촨성 간쯔 장족자치주 더거 지역 출신 인물로 라룽가르 발전을 위해 기부 하는 등 애정을 쏟았다.

티벳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 최대 불교강원 주변 시설을 철거하고 학승 감축을 명령하자, 티베트인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과 티베트 행정부는 이같은 탄압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형 객원기자


'라룽가르 불교아카데미' 소속 비구니 스님 릭진돌마가 "티베트 승려들을 억압하는 중국의 행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며 목을 매 자살했다. 사진출처=티벳포스트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녁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도치료법 1:1 또는 5인이하 실전교육을 상시합니다.
※ 기도 치료는 유사 사이비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의학입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두권 구입 값 43,600원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기도치료는 유사 사이비 대체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치료법입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전문기도치료사만 된다면 노후 걱정은 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입니다만 가끔 한달에 천만원이상의 수입을 볼때도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011-557-2773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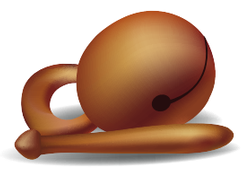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내겐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고 마음 어두운 사람은 자랑을 한다. 자랑일랑 그만두게나 나 이미 내가 아니며 어디에도 자식과 재물은 없네.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상담안내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천도재,구병시식,49재)
010-2125-4684
대구은행 087-13-035968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배우자 관상을 보면 몇 살때 어디 질병이 있는지, 죽음까지 알 수 있다
– 암, 질병, 묘터, 교통사고, 이혼을 얼굴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관상과손금 비밀이야기(판매중)
010-4014-8822

평생교육원 등록안내

(불교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참나를 찾는 참선강의

9~11월 3개월간
매주(토) 14-16시 수업
초보자 환영, 기초부터
친절히 안내
(천안 동면 광덕사)
010-5588-6448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범패작법 전문교육 수강생모집

(6개월과정 / 수시접수)
교육내용 : 조석예불,새벽종송,사시불공,천도재, 사십구재,점안의식,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관욕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나비무 : 도량게,다게,운심게,오공양, 삼귀의,육법공양,향화게,법고무
* 범패작법 전문스님들이 사찰 각종행사 대행하여 드립니다 *
* 전생체험 및 빙의환자 퇴마치유 전문*
010-5269-4168
(연화사 범패작법교육원)

법당 철거전문 (재활용 센터)

퇴불,철거,견적,불교용품, 매입,판매 정성을 다해
퇴불,철거 깨끗하게 해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기업
(주) 다사팜
010-2395-3333

황제내경 의술전수

침법,단전호흡,음식으로 만병을 고치는 의술
수강생모집, 수강료 20만
옥천 010-2274-4267
블러그 : 네이버 phw426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내 사찰)
053-654-0408
010-3422-3232

불심깊고 독신자 60대이상 보살님 찾습니다

(경북 울진)
010-8571-6559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남 거제)
010-7169-9878

비구스님 입니다 부전자리 원합니다

010-8955-9485

모 집

부전스님(비구니),
공양주(큰스님만 담당)
– 큰스님 모시고 운전할 분
(컴퓨터 하는분, 남여불문)
– 불교공부 및 방편 공부할 분
(생활포교사,생활법사 양성)
010-4905-0575

문두루 기도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총무원장 및 각원 원장 모집공고

본 종단은 문공부 등록 및 등기필한 종단입니다. 유능한 인재 확보와 종세를 넓히기 위해 각원 원장 및 부원장님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교육원장, 호법원장, 문화원장, 포교원장, 고시원장, 비구니원장, 전법사대전교
(사)대한불교대승조계종 010-8729-8494

漢文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 / 한글(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은
漢文念佛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스님들과 불자님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불교 상용의식집입니다!



● 제1권 (예경/각청) ● 제2권 (천도/시식) ● 제3권 (수계/방생)
● 제4권 (장의) ● 제5권 (점안) ● 제6권 (독송집)
● 제7권 (토속의식 모음집) 각권 20,000원
(스님과 신도가 함께하는 법당용 책 사찰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 (장엄사)
010-7144-7339 (총 무)
010-5277-8024 (스 님)
계좌번호 :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근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소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마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 숫타니파타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도심 속의 땅넓은 사찰◀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4,000여평 ※일부 주거지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전망
- 가액 : 6억 8천만원

▶ 탁트인바다전망과전통목조사찰◀
- 위치 : 부산 신항만 부근, 거가대교 입구
- 총부지: 240여평, 1만여세대 대단지아파트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목조산신각(7여평)
- 가액 : 6억 5천만원(전, 월세 가능)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정선 카지노 부근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한옥법당 70㎡, 한옥황토요사채 110㎡, 토지 500㎡
- 교통편리하고 주차장 있음
- 방편 잘하시는 분 추천함
- 가액 : 3억 조정불가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2000평
◎ 인법당 : 30평
◎ 차량진입, 산세수려
◎ 양도 : 5억8천
◎ 위치 : 서울대형포교원
◎ 대지 : 70평
◎ 전체건물 : 200평
◎ 전철역앞, 주차가
◎ 양도 : 2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공원 사찰 안내

- 위치: 부산 온천동 금강공원 입구
- 총부지 : 203여평(주차장 완비)
- 건물1:법당 30여평, 요사채2동
  건물2:원룸 12개, 점포2개
- 전 월세 : 전세 2억에 월 400만원
- 인수가 : 6억 5천만원(은행 5억)

직통 010-2595-7752 전무
※사찰전문 만덕 부동산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면목동(급)포교원

- 3천만원에 월 170만원 시설비 방문 상담 요함
- 5층 법당 약 200㎡ 역세권, 대로변 건물
- 완벽한 시설완비, 즉시법회 가능함 전철역에서 5분이내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아늑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노천불
- 목조건물, 전통법당
- 요사채 40평, 식당 40평, 창고 60평
- 대지 1,250평(종교부지)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5천만원

010-4028-88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200평,건평1층,요사채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황토방2개,화장실,주방,욕실
- 삼존불, 탱화, 인등, 영가단, 법륜대, 집기 일절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3억8천(융자1억3천만원)
- 급 양도, 방문요, 즉시법회 가능

010-3186-036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삼보사찰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시설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동 8호선 암사역 5분거리 대로변
- 시설 : 삼존불, 약사여래, 신중, 후불, 탱화 등
- 2층 전체 48평,법당,방2칸, 주방, 화장실, 욕실, 베란다 (몸만 와도 언제든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80만원
- 꼭 하실분 시설비 1000만원

010-2282-8885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관음전,종각
- 요사채,공양간 외 건물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3억 4천(절충) (스님건강문제로)

010-4628-5699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일월산
- 자락이 아담한 곳, 1급수 청정지역 앞마당 계곡물 흐르고 산기운이 솟는자리
- 땅 500평 법당자리 토목공사 완료, 20평 허가
- 요사채30평, 현대식 목조건물 완공 2년반
- 밭 2필 500평, 개인사정 급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마산리 563번지,553번지는 대지,산은110-6번지
- 하우스법당과 하우스산신각, 요사채1, 처사방1, 황토방1, 하우스 창고1, 자재창고 4개
- 563번지 대지 147평,553번지 대지 230평
- 임야 산 2,007평 110-6번지
- 전기 개인전기 정화조 산에 내려온 식수
- 모든 집기 일체포함
- 가액 : 2억 (절충가능)

010-5348-2002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뒤편 산이감싸고 있는곳)
- 대지 140평, 건평150평, 3층건물, 법당30평, 삼존불, 신중, 지장단, 영단, 법단, 단청 방6개
- 공양간, 창고, 차고, 다용도실, 화장실 3개
- 시설완벽 몸만오시면 됨 8m 도로접 초등학교 100m전철, 버스 300m
- 가액 : 15억(절충가능) 소임관계로 급양도

051)754-337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반송로 273번길2
- 법당, 방1, 창고방1, 샤워실, 공양간 큼
- 40평 3층(시설완벽함)
- 가액 : 2,0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3389-813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산사 새벽시장 뒤 (서감초등 부근)
- 4층 건물에 2층
- 건 60평 포교원
- 법당 완전 구비, 즉시 입주
- 가액 : 1,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0-7570-2051

도심속의아담한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 대출 ~7500만원~ + ~1억 3천5백만원 합 가액 : 2억 1천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밀양IC 얼음골 방향 15분 거리
- 잣나무 숲과 계곡의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중, 대지 328평
- 2층 건물 1층 명상홀 및 요사 59평 2층 대웅전 24평
- 대나무숲속 삼성각 4.5평 별도 요사채 28평과 창고 20평
- 원통문 수월관음,연화탑,포대화상등 석물 농지에 사과나무 220주 호두나무 40주
- 가액 : 7억

010-4895-2050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동구 대로변 사거리
- 평수 :50평, 3층 엘리베이터 유
- 은행,마트,병원등 인구밀집지역
- 오존불(각3자,2자반),신중,영가단 냉난방완비, 시설완벽
- 가액 : 보 500만, 월 65만원 시설비품 1700만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010-2896-6689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7589-9600
010-3753-7844

임법당(급)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성당시장 약 5분거리
- 평수 : 대지 약 47평, 건물 약 27평
- 가액 :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5387-67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지리1길 31-3호
- 구 가옥 보수로 별장같은 단독
- 특수목 높은 담장 화분대로 활용
- 화단에 과일나무 정원같은 도량
- 비구니 스님이면 너무 좋은 도량
- 주변공지 구입하면 대도량 가능
- 답사 후 맘에들면 매가 다소 조정
- 좋은인연 좋은가격 8천 3백만원

010-5458-2955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 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토 굴 안 내

- 위치:경북 문경시 동로면
- 건물 목조 기와 30평
- 대지 100평
- 참고 : 면소재지에서 3.5㎞ 권리승계임
- 가액 : 6천만원

010-3189-8745

다용도 주택안내

- 위치 : 경기 양평 신복리 뒤는 산, 앞은 옥천시내 아신역에서 차로 5분거리
- 정남향(대지 257평 건물 40평) 지하암반수 마당 넓음.터와 주위에 약초 많음 (용도 :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등)
- 암환자 치유도량으로 최고
- 투자하고 같이 할 분도 환영
- 가액 : 4억 8천(실입주금 3억)

010-4234-253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옆)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청주 도심사찰안내

창건13년 청주 도심포교 기도도량
- 대지: 60여평
- 건물: 50여평
- 대웅전. 16아라한전. 산신각
- 요사채: 방5. 화장실2
- 아미타 대불 삼존불.영험의 지장탱화
- 직접 방문 확인후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가액: 4억5천만원

010-7169-9878

서울사찰안내 임대

템플스테이 게스트 하우스
- 에어비엔비 운영할 분 환영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15-38
- 대지 80평, 건물 100평 2층
- 천연기념물 271 굴참나무 소재
- 은퇴자분 주거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추천
- 가액 : 8억, 임대협의

010-7452-47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사직동
- 총 45평, 방 3개, 법당 25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왕보살 본존불 뒤 신중은 흑탱화, 산신탱화, 칠성탱화
- 신장, 소종, 북, CCTV, 에어컨, 컴퓨터, 냉장고 가전제품 일체, 책장과 도서류.
- 꼭하실 분만 연락 바랍.시설A급, 즉시 법회가능, 몸만오시면 됨
- 큰스님 노환으로 치매가 발생하여 절 운영이 힘들어 급 양도
- 가액 : 보 1,000만원 70만원,시설비 3,500만원

010-5018-3335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진량읍 아파트 단지 인접(갓바위 가는길)
- 3층 약 50평 옥상단독사용(민원없음)
- 법당: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 소불60불, 인등완비, 주지실, 친견실, 객실, 공양간완비, 각방 에어컨 완비
- 즉시법회, 정말 몸만 오세요
- 가액 : 전세 3백 년세 2백 시설비 6백(시설 원만함)

010-7536-2588

포교원 안내

- 위치:부산시 기장군 기장시장 부근 2층
- 법당 평수 60평, 법당 보시고 결정
- 방 2칸, 스님 건강상
- 가액 : 전세 2,000만원 월 50만원

051-724-5530
011-591-797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고령군 쌍림면
- 평수 : 약 145평, 466㎡
- 법당 : 아미타 3존불, 공양간, 방 4개
- 가액 : 9,500만원

010-3697-3521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중대동 757번지
- 대지 250평, 건평 180평
- 심야 전기, 주차 10대 가능
- 팔공산 중심자락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좋고 또한 도로교통이 편리한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당은 닷집과 구룡반자 수미단 등으로 조성 되어 있으며 부처님의 모습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 가액 : 18억

010-3502-2618

사 찰 안 내

- 위치 : 물! 공기좋은 지리산 중산리 부근
- 대지 : 130평, 요사채, 후원, 실외화장실
- 텃밭 무한정사용 가능
- 가액 : 1억 6천만원

055-972-033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 평수: 2층. 45평
- 법당 3존불조성, 완벽하게 갖추어진 포교당으로서 몸만 오시면 법회 즉시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2575-987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기면 기산리
- 대지 536㎡, 주차장, 텃밭 661㎡
- 법당, 주방 및 종무소1, 요사2동
- 삼존불(동불), 인등 300등, 해우소 4
- 현 법회 성황, 불사기도 좋은 도량
- 가액: 1억 4천 5백만원 몸만 오세요
- 대 불사 인연으로 떠남

010-3679-1080
1899-1042

사찰, 포교원 정보를 내 스마트폰에서...

Temple Kok



템플콕

출시기념! 무료이용 이벤트 ~ 9월 30일 까지

전국의 사찰, 포교원, 암자, 기도터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 매물도 올리고..
(매물의 상태를 직접 사진으로 확인하고 지도검색을 통해 정확한 위치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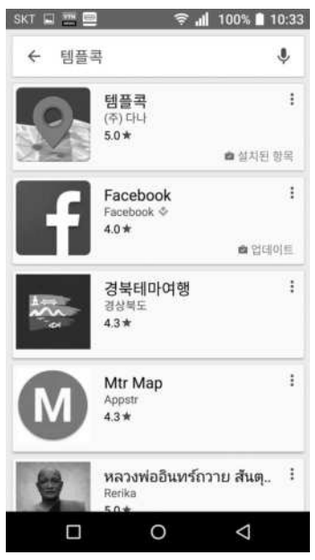
필요한 매물을 스마트폰에서 한 눈에 검색하고 바로 확인하고,
내 매물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올려서 직거래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항목별 (사찰, 포교원, 암자, 토지임야, 납골당 등), 가격별로 검색 가능 합니다.
▶ 매물 담당자와 직접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용안내

1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템플콕'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2 간단한 회원가입 후 본인의 매물 등록
3 게시 기간에 맞는 요금 결제
4 입력한 매물 게시(시작)일 - 오후 7시 등록 (관리자)

※매물등록은 매물보기에서 다른 매물 입력내용 확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문의 02)2004-8214

주의 : 템플콕은 사찰 및 포교원 등 수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상호 직거래하는 방식이므로 거래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정 정리의 힘

구제고지 (‘긍정심리학스쿨’ 대표)

〈2〉 비우는 습관 ㊦

스트레스, 그날그날 ‘리셋’ 합시다



숙면의 힘

어느 지방 대학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여성 C 씨는 계속되는 강도 높은 업무에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무직인 C 씨에게 과도하게 일을 맡겼고, C 씨는 본인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직하려고 해도 지방에서는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평생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울한 감정을 키웠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것 같은 기분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C 씨에게 해준 조언은 퇴근 후 ‘산책’ 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라는 불안함과 우울함, 즉 ‘소모계’ 인 부정적 감정과 맞서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긴장 풀고 쉬기’ 에 트레이닝의 초점이 맞춰졌지요.

“회사나 집 근처에 산책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C 씨는 “집 뒤에 작은 숲이 있는데 거기에서 산책하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무와 풀을 보면서 산책하는 행위를 ‘그린 엑서사이즈’ 라고 합니다. 가벼운 운동 효과와 함께 정신적인 치유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요.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숲 속 길을 걷다 보면 해소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C 씨에게 특히 강조한 내용은 ‘스트레스를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말 것’ 이었습니다. 벅찬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불안, 걱정 등의 부정적 감정은 가능한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일과 중에, 다시 말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트레스를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않고 부정적 감정을 그 날 안에 전환시키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푹 자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뜰 때 한결 가뿐해진 몸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 때문에 얻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호르몬 내기

독일의 어느 심리학자가 ‘장기 휴가에 따른 회복 효과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를 연구 주제로 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 휴가를 통해 일상적인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감은 해소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이내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랫동안 휴가를 가도 그 효과는 단기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퇴근 후에는 업무와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입니다. 이를 ‘감정적으로 거리두기(mental Detachment)’ 라고 합니다. 일단 사무실에서 나온 뒤에는 업무와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습관을 지닌 사람은 장기 휴가를 다녀온 사람보다 훨씬 더 심신이 건강했습니다.

업무와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일은 부정적인 감정을 전환하는 습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깅, 워킹, 에어로빅,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은 천연의 묘약이라고 하는 양성 호르몬 ‘엔도르핀’ 의 분비를 촉진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 있는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쾌감 호르몬 ‘도파민’ 의 분비를 촉진해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요가나 명상 등 호흡을 정돈하는 전통적인 방법 역시 스트레스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세로토닌’ 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이 그날 느꼈던 감정을 써보는 ‘글쓰기 치료’ 도 부정적 감정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빙글빙글 되풀이 되기 쉬운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효과가 실제로 입증된 기분 전환 방법으로써 근무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마음의 스위치를 전환하고 일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중에서 자신의 기호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것을 골라 그날 안에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긍정적인 습관을 지니게 되면 수면의 질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상쾌한 기분과 낮에 일할 때의 의욕은 서로 상통합니다. 즉, 우울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하루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업무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
가능한 빨리 떨치는 것 중요
술 · 도박 등 사행성 오락보다
산책 · 글쓰기 등이 효과 ‘탁월’

기분전환에 도움되는 습관들

감정회복습관을 알게 된 이후 저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뜹니다. 저만의 기분 전환법은 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퇴근 뒤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마련된 자그마한 헬스클럽에 가서 20분 정도 러닝머신 위를 달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기분 전환을 위해 명상을 합니다. 일기 쓰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불쾌한 경험을 한 날에는 이면지를 앞에 놓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적습니다. 그러면 부정적 사고와 감정을 문자화시켜 외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써 내려갑니다. 이는 ‘라이팅 테라피(Writing Therapy)’ 라고 하는 치료 요법입니다.

감정을 내면에 꼭꼭 가두고 뚜껑을 덮어버리는 대신 밖으로 표출하는 ‘글쓰기 치료’ 는 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분노나 두려움 같은 인간의 ‘기본 감정’ 은 원시적 뇌라고 일컫는 뇌의 중추 부분에서 발생하는데, 매우 충동적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쓰는 행위를 하면 이성과 상상력을 관장하는 대뇌 신피질이 활성화됩니다. 감정을 관장하는 원시적 뇌가 아닌, 다른 부위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글쓰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진정되고, 한발 더 나아가 복잡하게 얽힌 마음의 실타래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게 되는 ‘재해석’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가는 정신적으로 피로하기 때문에 비관적이 되거나 노이로제에 걸리기 쉽다고들 하지만 글쓰기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지식 노동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남성 E 씨는 통신 회사에 근무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와 민원이 많은 업무라고 합니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피로감뿐만 아니라 무력감마저 느껴져 결국은 ‘탈진 증후군’ 으로 발전할 위험이 큽니다. “그때는 정말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E 씨도 당시를 이렇게 회상할 정도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 있던 것이지요.

E 씨를 구원해준 것은 초등학생 아들 때문에 맡게 된 유소년 소프트볼 팀의 감독 일이었습니다. 유소년 스포츠단이라고 해도 감독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E 씨는 평일에는 직장인, 휴일에는 소프트볼 감독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가슴속 어딘가에서 꿈틀거리던 부정적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고 신체 내부에 활력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답니다. 감독 일 덕분에 주말만큼은 평일의 격무에서 벗어나 부정적 감정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특히 소프트볼처럼 치고 달리는 운동은 스트레스 발산에 효과적입니다. 또 그라운드에 나가 햇볕을 쬐는 일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일조량이 적은 가을이나 겨울에는 기분이 가라앉는 ‘SAD(계절성 정동장애)’ 상태에 빠지기 쉬운데, 햇볕을 적절히 쬐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경험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이타성’ 에 바탕을 둔 사회적 행동입니다. 기쁨이라든가 자랑스러움 같은 긍정적 감정은 부정적 감정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전환하는 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회식’, ‘노래방’, ‘사행성 오락’ 입니다. 회식은 감정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업무로 인해 불쾌했던 기분을 고스란히 다시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와 함께라면 아무래도 업무의 연장처럼 느껴집니다. 사행성 오락은 직장인이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카지노에 가거나 경마, 경륜 등의 도박을 하면 우리의 두뇌에서 쾌감 물질인 ‘도파민’ 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목표를 달성한 순간에 사라집니다. 갖고 싶은 무언가를 손에 쥐는 순간, ‘행복’ 이 아닌 ‘허무’ 를 느끼게 됩니다. 사행성 오락을 할 때는 ‘여기서 이기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오르지만 막상 승리하면 기대한 만큼의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또 다른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 다른 도박을 찾아 나서게 되지요. 이렇게 도파민의 주술에 걸려 도박의 늪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듭니다. 결국 중독되어 버립니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인 감정의 연쇄 반응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계속 일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 피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 감정은 그날그날 전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분 전환에 필요한 좋은 습관을 들이면 열심히 일하면서도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행복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감정 정리의 힘〉 (다산 3.0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탈 종 공 고

• 성 명 : 진관(최종섭)
• 사찰명 : 관음사
• 주 소 :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508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대한민국 영산재 50호
경기범패 학인모집

▶기초반 : 염불송, 예절법,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북)
불교의 유래, 기도의 참법, 간단한 액막이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승려반 : 도량석, 조석예불, 종송, 사시예불, 사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기능반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잡, 화의재바라
나비침, 도량게, 타게, 법고무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법주반 : 49재의식, 천도재의식, 시다림, 파묘의식,
산소이장법, 바라타징법, 새벽종송,
각종 점안의식, 각종 점안의식, 각종 이운법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강 주 : 민지효 스님
• 개강일시 : 2016년 9월 5일
• 장 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24 광법사
(구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동 303-8번지 광법사

문의전화 010-4466-3575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232749644926 00

■ 강의내용 : 4~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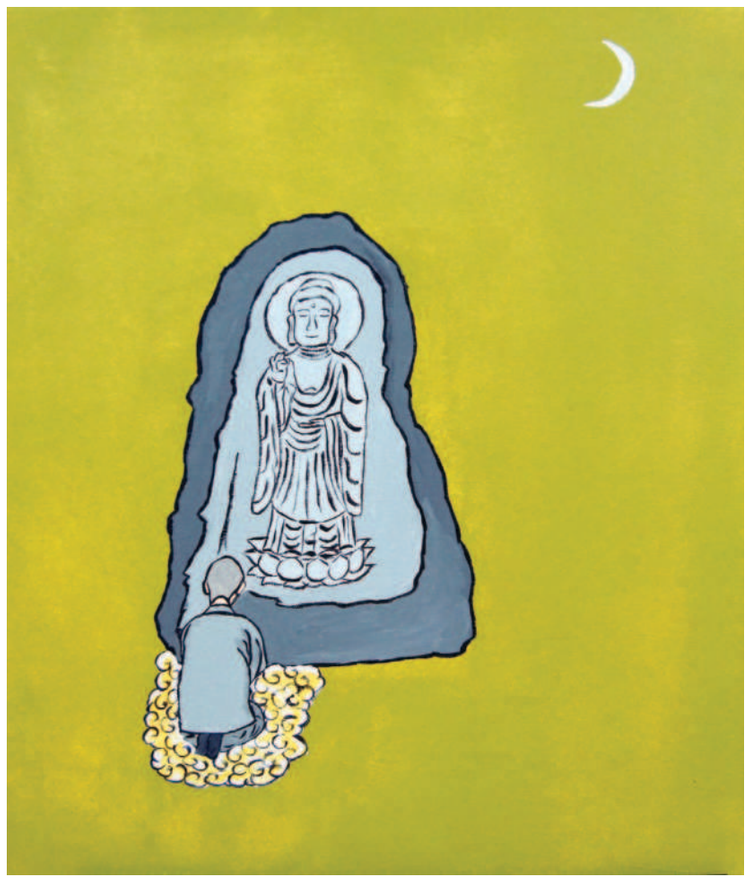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배종훈의
명상카툰

마애불



시간이 그 형상을 거의 모두 사라지게 했지만 바위에는 분명 부처가 새겨져 있었다. 일부 남아 있는 옷의 주름과 수인, 광배가 흐릿한 윤곽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절집에 있는 오래된 석물과 마애불을 좋아한다. 특히 폐사지에 남은 석불은 남아 그 자리의 시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의 얼굴이 거의 남지 않은 마애불, 흐릿한 연꽃문양, 날개의 일부가 남은 비천상 등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과거의 시간을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그 빈자리를 그려 넣는다.

마애불 아래 절을 올리는 젊은 스님의 뒷모습에서 문득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굴려라, 똥! ㊤

"더러운 똥이라고? 내겐 소중한데…"

커다란 똥이 떨어졌다. 똥은 맑은 공기를 가르며 풀밭 위에 철퍼덕 내려앉았다. 정말 굉장한 똥이었다. 쇠똥구리 동동이는 머리를 한껏 치켜들고 더듬이를 흔들었다. 바삭바삭 마른 풀 냄새와 달콤한 이슬 냄새가 났다. 아주 맛좋은 쇠똥이란 걸 먹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소님!"

동동이가 소의 발굽을 똑똑 두드렸다.

"으응, 쇠똥구리로구나."

소는 되새김질하며 눈으로는 경중거리고 뛰어노는 송아지를 쫓고 있었다.

"제가 소님의 똥을 좀 가져가도 될까요?"

"마음대로 하렴. 이제 그 똥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똥을 가져다가 무얼 하려고 그러니?"

"쇠똥 경단을 빚을 거예요."

"쇠똥 경단을 빚어 무얼 하려고?"

"먹을 거예요. 쇠똥 경단은 아주 맛있거든요."

소가 큰 눈을 껌벅였다.

"그러니까 내 말은 왜 힘들게 경단을 빚느냐는 거야. 먹으려면 그냥 여기서 먹으면 되잖니."

동동이는 더듬이를 움츠렸다. 그건 당황했을 때 나오는 동동이의 버릇이었다. 동동이는 더듬이를 이리저리 흔들며 대답했다.

"음……. 그건 말이죠. 경단으로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밤이 되면 배가 고파지는데, 먹을 걸 찾아 집 밖으로 나오려면 무척 귀찮아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똥을 빚어 두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잖아요. 겉은 와사삭 바사삭 안은 촉촉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동동이는 입을 다물었다. 소는 이미 동동이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소는 커다란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신선한 풀을 찾아 성큼성큼 걸어갔다. 뛰어놀던 송아지가 엄마 뒤를 따랐다. 엄마 소는 긴 혓바닥으로 송아지의 이마를 핥고는 꼬리를 휘휘 저어 송아지 등에 붙은 쇠파리를 쫓아주었다.

동동이는 냉큼 쇠똥 위로 올라갔다. 방금 눈 똥은 푹신푹신하고 따뜻했다. 동동이는 앞다리로 똥을 모아 둥글게 이겼다. 쇠똥을 다질 때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쇠똥은 금세 마르기 때문에 재빨리 다지지 않으면 단단하게 뭉쳐지지 않았다.

누구도 동동이에게 경단 빚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동동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혼자였다. 경단은 늘 크거나 작았다. 경단이 크면 굴리기가 힘들었고, 작으면 너무 빨리 말라서 부서지기 일쑤였다. 수많은 경단을 빚고서야 동동이는 자신에게 꼭 맞는 크기의 경단을 빚을 수 있었다.

둥글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동동이는 똥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다. 쉴 새 없이 일하느라 다리가 달달 떨렸지만, 이번에 만든 경단은 마음에 꼭 들었다. 정말 힘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집은 아주 멀리에 있었다. 날아서 오는 건 잠깐이었지만, 똥을 굴리며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다. 쇠똥을 굴리는 동안 동동이는 잠시라도 쉴 수가 없었다. 다른 쇠똥구리에게 쇠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쉬지 않고 빠른 속도로 달려야 했다.

'어째서 나는 쇠똥 경단을 만드는 걸까?'

동동이는 궁금했다.



그림 · 강병호

동동이의 일과는 매일 똑같았다. 아침이 되면 맛있는 똥을 찾아다니고, 똥 경단을 굴리며 집에 돌아오면 어느새 저녁이었다. 흙바닥 위를 구르며 단단해진 똥 경단은 아주 맛이 있었지만, 집에는 미처 먹지 못하고 수북하게 쌓아놓은 경단이 바삭바삭 마르고 있었다.

동동이는 경단 위에 뒷다리를 올리고 힘차게 굴리면서 중얼거렸다.

'어째서 나는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걸까?'

"와! 공이다."

아기 오리가 넓적한 주둥이를 휘두르며 달려왔다.

"아니야. 이렇게 작은 건 구슬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리들은 뒤뚱뒤뚱 달려와서 부리로 똥 경단을 굴렸다.

"여기! 이쪽으로 패스, 패스!"

동동이는 온 힘을 다해 똥 경단을 부둥켜안았다. 이리저리 구르면서 돌멩이에 부딪힌 등딱지가 몹시 아팠다.

'그냥 놓아버릴까? 어쩌면 이러다가 죽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이 똥은 정말 맛있는 똥인걸. 지금까지 만든 경단 중에 최고로 멋진 경단인데.'

"얘들아, 안 돼. 그건 장난감이 아니란다."

엄마 오리가 말했다.

"공도 아니고, 구슬도 아니야. 그건 쇠똥구리의 쇠똥 경단이란다."

"똥, 똥, 똥, 똥이라고요? 어째서 똥 같은 걸 굴리고 다니는 거야. 퉤퉤퉤."

"그러면 못써요. 쇠똥 경단은 쇠똥구리에게 아주 소중한 거야."

'소중한 것'이라는 말이 동동이의 가슴 속에 쏙 들어왔다. 동동이가 똥 경단을 빚어 굴리는 건 그것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 소중하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지만. 똥 경단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동이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엄마 오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동동이를 살폈다.

"정말 미안하구나.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동동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오리가 빙긋이 웃었다.

'엄마들은 늘 저런 웃음을 짓는구나.'

동동이는 생각했다.

'우리 엄마도 그랬을까. 저렇게 다정한 눈으로 나를 보았을까. 다른 이에게는 더럽고 쓸모없는 똥 경단이지만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거라고 말해주었을까. 송아지의 이마를 핥아주는 엄마소처럼 아픈 내 등딱지를 가만히 어루만져 주었을까.'

동동이가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캄캄한 굴속에는 부스러진 똥 경단 몇 개만 굴러다니고 있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엄마가 있다는데, 동동이에게는 엄마가 없었다. 동동이는 늘 혼자였다.

똥 경단은 무사했다. 한쪽에 살짝 금이 갔는데, 뒷다리로 몇 번 굴리니 다시 붙었다. 그런대로 굴릴 만했다. 굴리고 또 굴리다 보면 더 단단해질 것이다.

"밥 먹을 시간이야. 모두 연못에 들어가 부리를 닦으렴. 똥이 묻어 더러워졌잖니."

멀리서 엄마 오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기 오리들은 연못에 부리를 담그며 노래를 불렀다.

"똥, 똥, 무슨 똥, 마른 쇠똥, 경단 똥.
누가 누가 먹을까. 쇠똥구리가 먹지.
똥, 똥, 누구 똥, 쇠똥구리 경단 똥."

아기 오리들이 놀려대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동동이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엄마 오리의 말은 마음이 아팠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더러운 것일 뿐이라는 게 동동이는 슬펐다.

〈계속〉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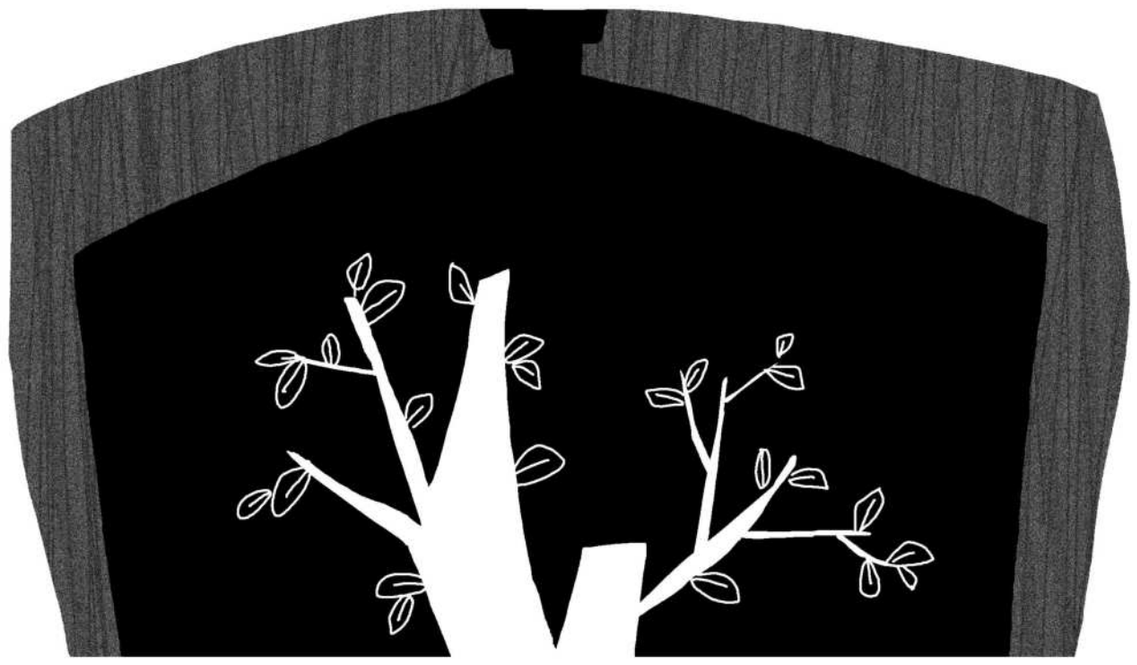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자리를 해 주시는 것을 보니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안 오실 줄 알았더니 '가죽 속에 물이 들어갈 리가 있느냐.' 하고, 하하하, 이렇게 오신 것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산천초목과 더불어 우주 전체를 한마음으로 둥글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가지신 것 같습니다. 참 감개무량합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비하고는 관계없는 말이지마는, 어떤 집에 초상이 났는데 그 집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면 "저 집 사람은 틀림없이 천당에 갔어." 하고요,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집은 "뭐, 보나마나 지옥 갔어." "잘 죽었어." 하고 쑤군대거든요. 그게 무슨 까닭일까요? 그러니 우리가 한 철 살면서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행, 정직한 마음, 포괄적인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조건 없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상대와 내가 부딪치지 그렇지 않으면 부딪칠 리가 있나? 내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부닥침이 있으니 내 탓이지.' 하고 돌릴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우주 법계에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두루 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을 줄 수도 있는가 하면 조건 없이 일체제불의 마음의 능력이 각자 여러분 앞에 같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마음이므로 이 세상의 모습을 버리고 떠났다 하더라도 영원히 세세생생 여래의 집에 뜻을 같이하고 우주 전체와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불바퀴의 생산처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 한마음 도리를 배우는 여러분은 정신계와 물질계를 한데 합쳐서 중용으로써 그렇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일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도를 구하는 거지 내가 아니고 생활이 아니라면 도가 어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무술 하는 사람들이 신검을 만들려면, 그리고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기술자가 되려면 거기에 포괄적인 마음으로써 정성을 다해서 내 혼을 다 집어넣어야만이 기술자가 되고 신검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 소립니다. 그 신검은 모든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우주 전체를 받칠 수 있고 또는 우주 전체를 굴릴 수 있는 그 대의적인, 지혜로운 자비의 마음으로 쓴다면 그 자비의 마음이 즉 신검, 자비의 칼인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는, 나의 무명 악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세상만사가 모두 같이 돌아가는 둘 아닌 법을 알기 위함이요 셋째는,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같이 사랑하면서 우주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그 이치를, 그 섭류를 모두 터득하고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처럼 다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리고 귀 달리고 몸뚱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으면 그 몸뚱이 자체가 영원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몸뚱이가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기 위한 방편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모두 한데 합쳐져서 서로 서로 통하면서 같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바퀴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듯이, 모두 한데 합쳐져서 둘이 아니듯이, 즉 빗방울이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의 물이지 어찌 개개의 빗방울이겠습니까? 그래서 개개의 물방울이 한데 합쳐져서 돌아가는 그 소용돌이가 바로 불바퀴이며, 외국에서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랙홀이라는 자체는 바로 우리가 생산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또 태어나고 또 진화돼서 다시 태어나고, 모습을 갈아서 다시 태어나고 발전이 돼서 다시 재현이 되고 생산이 되고 이러는 그 자체로서 바로 생산처라고도 합니다. 자동적인 생산처. 우리의 마음의 소용돌이가 바로 불바퀴의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한번 울렸다 하면 생산이 되곤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자꾸자꾸 바뀌어 재현이 돼서 자꾸 생산이 돼서 영원히 그칠 바가 없이, 즉 멸함도 없고 태어남도 없이 영원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하게 돌아가는 그 섭류를 우리는 내 몸속에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한다고 하고 여러분이 산다고 하고 여러분이 주었다고 하고 여러분이 망했다 하고, 또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하고 여러분이 잘했다 못했다, 죄를 지었다, 죄를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본래부터 말입니다, 우주의 크나크고 광대한 섭류를 알려면, 모든 일체 생명들이 두루두루 공생하는 그 자체를 알려면 내 몸부터 먼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했다, 내가 산다, 나다 이러지만 그게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 여러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시발점이 종점이요 종점이 시발점이라고 한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억겁 전에 미생물로부터 진화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수없는 진화를 거듭거듭 해서 인간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진화된 이 모습이 자기를 진화시켜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속에 어떠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진화시켜서 온 것입니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잘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내가 됐다는 걸, 미생물 하나가 수없는 알을 낳아서, 즉 마음의 씨를 낳아서 내 몸뚱이를 진화시키고 크게 만들어서 집합소에 함께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의 씨 여러 개가 바로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발점에서는 미생물이었는데 종점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점을 지금 여러분 몸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몸속이 또 종점이 아닙니다. 불덩이가 한번 탁 날아서 툭 터지고 또 스러지고, 또 툭 터지고 스러지고 하는 이것이 우주 섭류의 작용입니다. 태양도 그렇지만 모든 자체가 상대와 상대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가 턱 터지면 그 마음의 씨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원소 자체의 씨 하나에서, 마음의 씨 하나에서 마음의 씨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입자로 된다든가 분자로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또 원자로 분리가 돼서 나가면서 우리가 애가 어른이 되고 그러듯이, 또 분자에서 원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분리돼서 그 마음의 씨가 우주 전체를 싸고 돌고 있습니다. 시발점에서는 쪼끄마한 마음의 씨였는데 지금 몸뚱이 속에 마음의 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석류 안에 씨앗이 많이 들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많은 씨가 든 석류를 그냥 석류라고 하지요. 그렇죠? 석류라고 하죠. 우리 사람도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자생중생 개개의 모습과 의식 또는 생명을 따로따로 이름 부르는 일이 없죠. 빗방울이 다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 속에 그렇게 자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 의식이 마음의 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를 먹어도, 하다못해 사과를 하나 먹어도 혼자 먹는 게 없습니다. 수십억의 생명들이 먹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속에 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하면 사대가 흩어져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의 씨를 많이 해 놓고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익이 없고 생산할 수가 없다면 아마 우리의 생명들을, 모습들을 이렇게 형성시켜 놓진 않을 겁니다. 하나 우주의 섭류에서 모든 생산을 해서 우리가 점점점점 불어 나가게끔 한 자체가 바로 마음의 씨입니다. 씨 하나에 의해 석류가 열리면 그 석류 하나 안에 씨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듯이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쥘래야 쥘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의 씨 하나가 그렇게 많은 악업 선업의 씨를 내 몸뚱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었다고 하는데 내가 먹은 게 어딨습니까? 수십억의 생명들, 모습들, 의식들이 그냥 하나가 들어가면 서로 먹고 사는데, 여러분은 입을 빌리고 손을 빌리고 눈을 빌리고 귀를 빌리고 코를 빌리고 몸뚱이 전체를 다 빌려서 그 생명들의 집 노릇을 하고 집합소 노릇을 하고 심부름꾼이 되고 관리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기릅니다. 그러니까 기른다기보다도 그것이 바로 즉 자기입니다.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시발점의 미생물이 지금 종점에 가서도 또 미생물입니다

☞ 25면에서 계속

그러니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시발점의 미생물이 지금 종점에 가서도 또 미생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을 고등 동물이라고 하죠? 인간은 위대하다고 보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깨달아서 내 자생중생들이 모두 진화되고 창조가 되고 바로 화신이 되고 응신이 돼야, 천백억화신으로 바뀌어서 천도가 돼야만, 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바로 미생물을 벗어나고 부처도 되고 법신도 되고 일체가 다 되는 법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거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전체 모두가 부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팠다 하면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데, 한마음 안에서 모두가 출현을 해서 응신으로 응해서 나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발전을 못해서 미생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생물에서 왔다는 것을 각자 자기의 몸속을 보면 증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수억겁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몸속을 보면 자기가 바로 미생물에서 왔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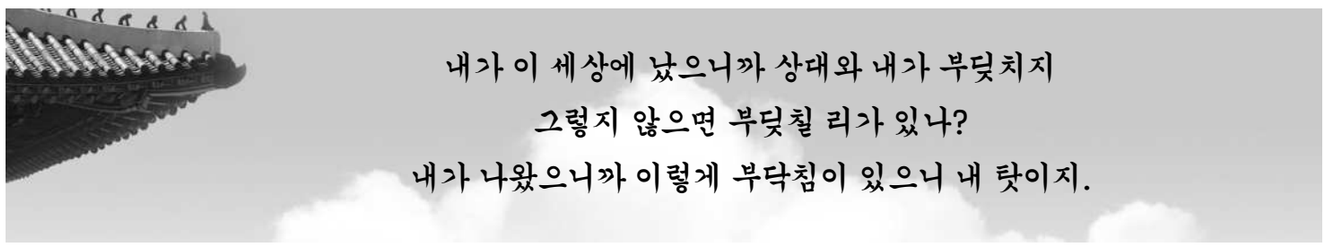
그리고 물에서 왔다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면 물주머니 속에서 나오게 돼 있죠? 그것이 그 증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또 물주머니에서, 어항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이 무슨 산하대지의 턱 틔어진 허공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항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는 여러분이나, 또 몸뚱이가 어항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이 내 자유껏 누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바로 마음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 자생중생들 틀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항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와 뭣이 또 다릅니까? 거기서 마음이 벗어나야 내 몸, 어항 속에서 사는 몸뚱이, 수레바퀴에서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마음을 쓸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어항 속이라 함은 공기주머니를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는 한 치도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복으로 돌아친다면 항상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날 좀 살려 달라고 비는 거와 같아서 더더욱 자기 마음은 자기 업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항 속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첫째, 내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둘째, 물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셋째, 허공, 즉 불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소립니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느라고 그런 겁니다. 그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실이지마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 못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무(無)의 세계, 바로 정신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물에서도 소용돌이가 있고 허공 바람 속에서도 소용돌이가 있고 마음의 불 속에서도 소용돌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용돌이를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을 넘어서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고 하시지마는 우리 생활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떠나서는 도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벌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 없어야, 개개인들이 다 '내가 없다' 이런 도리를 알아야 자유인이 될 겁니다. 내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먹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바로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이, 모습들이, 의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 하나를 먹어도 내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시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내 한 몸 속에 있으니까 한마음이죠.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놈도 그놈들이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놈도 그놈들이요 먹는 것도 그놈들이 같이 먹는 것이요,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공동체로서 공동 작업을 하면서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를 줬다고 하더라도 아예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줬다' 이러는데 내가 줬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수십억의 내가 있는데 말입니다. 어떤 거를 줬는데 내가 혼자 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줬다 하지도 말고 내가 안 줬다 하지도 말고, 내가 먹었다 하지도 말고 내가 안 먹었다 하지도 마십시오. 그 가운데, 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에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거를 보고선 나쁜 거 좋은 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안 되고 되는 것도 알고요. 이렇게 하면 누가 된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참 자랑스럽게 잘한 거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체가 없어서 찰나찰나 내가 되는 거죠. 아버지 노릇 할 때도 내가 한 거고 남편 노릇 할 때도 내가 한 겁니다. '내가, 내가,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아서 무심이에요. 나는 무심이에요. 행도 이걸로 됐다 저걸로 됐다 이렇게 행을 하니까 '내가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캐치해서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거 할 때, 남편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요? 나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방 "아버지!" 하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되는데요? 금방 "아무개야!" 부르면 아들이 되는데요? 이렇게 광대한 천차만별의 묘법은 아마도 마음 떠나서는 없을 겁니다. 이 마음의 도리를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구나. 너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묘법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시를 읊는 사람은 "묘법인가 하노라." 이러고 했는데, 하하하….



하여튼 여러분,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마음공부를 해서 마음을 뛰어넘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도 여러분이 어디든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여기 앉아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다면" 하는데, 이건 모습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신족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다 가 보세요. 여러분 안방에는 뭐가 있고, 마루 올라가는 데는 뭐가 있고, 신발장은 어디 있고, 냉장고에 뭐를 해 놓고 왔고 이런 걸 다 아시죠? 마음은 이렇게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는 것이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마음공부를 한다면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항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내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저런 산천초목들도 서로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열매를 맺고, 가을이 오면 서로 주고받는 마음끼리 모여서 임을 기다리듯이 내년 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속삭이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말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말로다가 서로 통합니다. 그런데 신경이 날카로워서 말이 조금만 잘못되면 엇각이 나서 오밀조밀하던 사랑이 그만 변해서 돌아가죠. 증오로 돌아가고. 이러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정이나 이웃에 어떠한 문제나 괴로움이 있다고 할 때, 내가 도와주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보고 들을 때에 벌써 가설이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이웃집하고도 가설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가설이에요. 보이는 데 물질적인 가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가설.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어떡하든지 일어서야 되겠지.' 한다면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설이 돼 있어서 불이 들어오니까 말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항상 여러분한테 말했지만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부모자식지간이나 그 마음이 돌아서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맡겨 놓으면 바로 스위치를 올려놓은 거와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불이 들어오고 이쪽에도 불이 들어오니까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불 들어오는 전력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 들어오는 건 다 마찬가지로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잘 알아들으시고 그냥 실험하시고 체험하시는 것이 바로 관법입니다. 내가 스위치를 탁 올려놓고서 지켜보는데 그 지켜보는 동안이 실험이요, 내가 그것을 '알았다! 아, 저런 것이로구나!' 할 때에 체험입니다. 부처님이 49년 설해서 가르쳐 주신 길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야 내 골수의 내 마음까지도 알 수 있노라. 그리고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느니라. 마음을 알 수 있는 까닭에 그 마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공덕의 이치를 알 수 있느니라."

복이라는 것은 남이 농사지어 놓은 데 가서 "한 됫박 주시오." 하고 얻어먹는 것이고, 공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같이 서로서로 빈 데를 도와주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두 손가락으로 집는 거하고 열 손가락이 다 한데 합쳐서 드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의 도리, 마음의 섭류는 우주 삼천대천세계, 즉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전체가 돌아가는 법계를 한 손으로 들 수가 있어서 이게 공덕입니다. 그러나 이 섭류를 하나도 모르고 내가 목마르면 급박하게 '물 한 그릇 주시오', '옷 한 벌 주시오' 하고 비는 것이 기복입니다. 빌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똥마려우면 똥을 누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자유스러운 사람으로서 살아라." 하고 사람으로서 진화돼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고등 동물이라고 했지만 고등 동물의 그 한계 내에서도 벗어나야 자유인이 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이름만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벗어나야 만물의 영장이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49년의 그 뜻은, 그 길은, 그 진리는 바로 자기가 혼자만의 국한된 부처라는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됐다가 남편이 되고, 형님이 되고 아우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이렇게 스스로 자동적으로 아주 걸림이 없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고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그렇게 어디에 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걸림이 없듯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을 해 놓고 부처님이라고도 이름을 해 놓고 여래라고도 이름을 해 놓고 그런 겁니다. 모두가, 부처님, 문수, 보현 또는 지장이나 관세음, 칠성, 용신, 지신, 산신, 독성, 신중 이 모두가 한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릇을 안 하고 사십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딴 사람을 해치는 걸 보면 그냥 덤벼서 해치는 사람들을 헤쳐 놓고 모두 말리지 않습니까? 그게 신장입니다. 금방 자기가 신장이 돼요. 그랬다가 또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아유, 저건 너무 잘못해. 저건 아유, 알미워 죽겠어. 저거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생각을 내는 법신이 됩니다. 몸뚱이로 움죽거려서 그거를 확연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화신입니다. 보신이며 화신이죠. 보현이면서도 화신 말입니다. 화신은 바로 바뀌는 그 시점을 말하고 다 바뀐 것을 보현이라고 그럽니다. 화하는 것은 바뀌는 것을 말하고요. 즉 말하자면 생각할 때는 우습지만 우리가 항상 "컵을 들었다." 물을 뜨는 과정이다. 물을 먹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8월 15일 광명선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눈푸른 스님의 비판, 불교 향한 시대요청

이민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



현각 스님은 한국불교계의 스타이다. 아마 한국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종정 스님이거나 행정 수반인 총무원장 스님의 법명은 몰라도 현각 스님하면 한국의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귀에 익었으리라. 불교계를 넘어 종교계의 인기 스타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그런 그가 이제 조계종단을 떠나겠다고 했다. 나중에는 활동 공간을 유럽으로 옮기겠다는 의도였다고 정정을 했지만 조계종단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계속 유지했다. 조계종단의 모순과 비리,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외국 불교수행자들이 겪는 힘든 여건을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고 했다. 세속으로의 퇴속이 아니라 또 다른 불교공동체로 옮겨가 승려생활은 계속한다고 말했다.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문제를 돌아보자. 먼저 거대종단인 조계종단의 파행적 운영과, 행정 승려들의 일탈된 행위, 재가신자를 도외시한 관료적 운영방식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현각 스님이 지적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 거대종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주로 재가 모임의 여러 단체에서 '외국승려들까지 그렇게 지적하지 않는가' 하고 공감의 메시지를 보낸다. 특히 일반 신도란 시주의 리소스로 생각되어 '불교신행=복 빌기=시주금' 으로 치환되는 단순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지적된다. 복잡하게 변형되는 현대적인 삶을 이끌 불교적 신행과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아니라, 세 불리기와 힘의 집중과 자기 과시하는 일이 조계종단 신행의 모든 것으로 비치게 했다는 비판이다.

사실 이런 파행적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당수의 신행자가 입을 닫고 등을 돌리고 있다. 이것이 조계종단의 현장이다. 여기에 현각 스님의 발설이 돌출된 것이다. 그 파장을 의식해서인지 교육, 문화부분을 담당했던 조계종단의 한 스님은 즉각 반론을 제기 하며 현각 스님에 대해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판을 했다. 이제껏 여느 승려와는 다른 대접을 받은 외국 승려로서 그가 한 비판은 소위 '외국우월주의' 의 산물같이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각 스님의 발언이 일으킨 파장은 거의 막판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나는 현각 스님을 포함하여 외국인 불자를 오랜 기간 관찰하며 몇 편의 글까지 썼다. 이 분들의 위상을 현대적인 삶의 형태와 연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각 스님의 종단 비판과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불교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관점이다. 현각 스님의 지적 중의 하나인 한국불교의 민족중심, 내 것 중심적 사고방식이 다시 이 논란의 핵으로 떠오른 것이다. 어느 곳, 어느 시대이건 승단의 현장 행태는 항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상적인 교단이란 존재해 본적이 없다. 조계종단만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도 없다. 심지어 부처님의 '파승(破僧, Sanghabheda)' 이란 가장 무거운 계율마저 역설적으로 승단의 파행성을 노출시킨 것이 아닌가. 왜 조계종단이 잘못과 비리를 인정하며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가가 문제일 뿐이다. 어째서 조계종단은 이 외국승려의 뼈아픈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거짓말쟁이거나 전혀 우리 현장을 보지 못하는 피상적 관찰자로 전락시키는가?

더욱이 외국승려를 수용하는 우리의 태도가 과연 적절했으며, 행정적인 배려는 합당했는지도 물어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세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는 일은 별로 없다. 그래서 종교의 국제화, 세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로 논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시원(始原)이 기독교 선교주의의 말단적 표현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상품 수출하듯 한국불교도 팔리기를 원한다. 한국불교가 티벳 불교나 남방 위빠사나 불교처럼 서양인이 선호하는 불교이기를 원했고, 그런 즈음 현각 스님이 한국에 들어 왔다. 그러나 정작 그를 출가시킨 숭산 스님은 조계종단이 이들 외국수행자를 수용할 제도적 장치이며 수행의 기준이 없음을 알고 고민했다. 그래서 관음종이란 새 종단까지 발주시켜 이들을 받아들였으며, 지금 세계 각지에서 훌륭한 수행단체의 몫을 하고 있다. 소위 한국 스님이 시작한 세계화의 한 부분이다.

또 다른 경우도 있다. 외국인으로 한국 불교를 겪으며 참선수행과 불교를 공부하다 본국으로 귀환하여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교수가 되거나 재가불자로 환속하여 명상수행에 관한 저술과 강연, 수행단체를 이끈 경우도 있다. 로버트 버스웰(Robert Boswell)과 스티픈 베츨러(Stephen Batcheler)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대표적 불자들이다. 버스웰 교수는 이후 한국불교학을 대변하는 학자로 근자에는 보통 불교학자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으로까지 추대되었다. 그것도 스님 위주의 이사회에서 선발되었다. 베츨러는 우리 사찰에서의 참선수행 경험은 물론 남방불교수련에 심취하여 부처님 초기의 수행을 일상생활 속에 재현시키려고 여러 형태의 이론과 경험을 실험하고 있다. 당연하게 그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우리에게 낯설기 때문이다. 낯설게 여기는 것은 나의 고정적인 입장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어떤 '낯설음' 도 나에게 와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조계종단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선가의 기본적 화두 '없음' 하나만으로도 이 '낯설음' 을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어떤 고정적 틀도 주장하지 않는 터에 종단에서 꺼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음에 인용된 파란 눈의 불자가 한 발언을 보라. 현각 스님의 발언은 한 개인의 돌출적인 것이 아니다.

"승직의 불교 엘리트는 재가 수행자에 대해 권위를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 특정 전문 집단을 공경하고 의존하며 무엇인가를 바치는 그런 문화를 지니고 있다. 곧 고승(高僧), 노사(老師), 라마승이거나 아잔(Ajahn)에게 말이다. 그러나 불법을 자신의 언어, 우리 자신의 시대적 맥락에서 활용한다면 승직에 연계된 교리적 권위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본래의 목소리를 찾을 필요를 느낀다. 나는 더 이상 전통적인 동양의 스승들 발밑에 앉을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는다."

(Tricycle, 2010년 봄 호의 인터뷰 기사)

이것이 현재 서양에서 이루어지는 불교 신앙 스타일의 하나이다. 현각 스님의 발언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우리 조계종단은 이런 스타일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것인가?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서 서양에 선불교를 전파하는 일본 선승은 이렇게 실토한다.

"미국 불제자는 승려가 아니지만 또 재가자인 것만도 아니다. 아마 이들에게 알맞은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일 것 같다. 우리(동양)가 재가 · 출가라고 하는 이분법적 분류로 차별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양태가 감지되고 있다."

(스즈키 ˇV류, Zen Mind, Beginner's Mind)

현각 스님이 일으킨 파장은 이미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신행 형태에 따른 것이다. 다만 그 와중에 조계종단의 해묵은 파행이 끼어 있을 뿐이다. 그것을 민족 중심, 내 것 중심, 조계종단 중심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아직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한국불교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 현각 스님 발언, 개인돌출 아냐
> 출재가 이분법 구조 벗어나
> 새로운 시대 양태 감지해야
>
> 조계종 중심 문제의식
> 상황파악 못하는
> 한국불교 심각성 보여줘

이 글은 한국종교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의 '종교문화 다시 읽기'〈8월 9일자〉에 게재된 원고를 발췌 · 정리한 것입니다.

社說

'골든타임' 이 '킬링타임' 돼서야

최근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서 급작스럽게 쓰러진 시민에게 간단한 기계를 꺼내 전기충격을 가해 응급조치를 취하는 장면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자동심장충격기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현상이 일어난 환자의 골든타임에 필수적인 응급기구다.

본지가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 12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 10곳만이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조사도중 심장충격기의 존재조차 모르는 곳이 태반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심정지 발생 후 생존율이 4.9%에 불과하다.

심정지 환자의 생명이 달린 심정지 발생 초기 4분 이내, 이른바 골든타임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응급기기 미비가 주 원인이다.

가톨릭계에서는 수원교구에서 한 신부가 심장충격기로 인해 살아난 이후 전체 성당에 활발히 보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도 신부들에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의 경우 대형교회에는 이미 심장충격기가 갖춰져있다. 하지만 불교계에는 아직 예산 문제 등으로 보급이 되고 있지 못해 안타깝다.

불교계는 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소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반사찰 소임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관련 장비를 갖추는 일과 교육을 통해 의식을 끌어올리는 일, 모두에 관심이 필요하다. 만약 사찰에서 심장마비로 인해 쓰러지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골든타임' 은 말그대로 '킬링타임' 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N포 세대에 희망주는 불교를

한국사회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취업' 에 성공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청년들은 이제 '결혼' 앞에서 미래를 포기한다. 한국사회는 결혼율은 감소하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사회구조로 변화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작은 집에서 오순도순 평범하게 사는 것마저 '사치' 가 돼버린 사회가 됐다. 이런 포기에 대한 세태를 꼬집는 말이 'N포세대' 다.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다. 포기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경제적 여건 때문이다.

사실 N포 세대 문제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대다수 젊은이가 장기간에 걸쳐 공유하는 좌절과 무력감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사회 전체의 불안과 위험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질보다 정신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합천 해인사가 오는 8월 18~20일, 25~27일까지 2회에 걸쳐 처음으로 개최하는 '가야산 해인사 청년희망캠프' 는 여러모로 기대할만 한다. 해인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희망캠프를 연 것은 이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도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해인사에서 과도한 경쟁 등으로 청년들의 지친 심신을 위해 안정과 쉼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캠프 개설의 의도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사회에는 희망이 필요하다. 현재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도 문제가 우선적으로 많지만, 오로지 성공과 재화만을 위해 살아가는 물질주의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이런 표면 · 내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교는 노력해야 한다. 시대와 호흡하는 불교로 변화하는 것이 사회에 희망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 명심하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 1644 - 9108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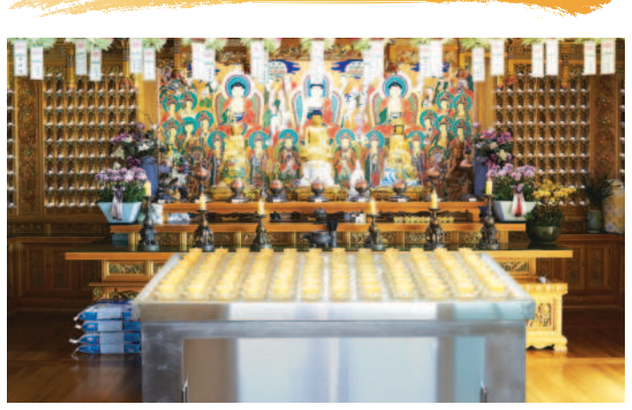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PC컵 밀납양초 공양으로 장엄한 법당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 판매

실외 양초 공양집



new

연꽃(連花)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원기둥 (중) 테파초

日本精蠟 LOTUS 향초



원기둥 (중) 테파초

한봉밀납양초



천연쑥양초



전사지







야광용 양초 (호랑이·연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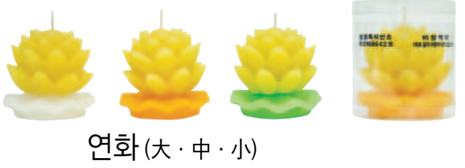
등大



육각초



칠성초 (연화 · 호랑이 · 반야)



연화 (大 · 中 · 小)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 담 문 의 :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